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1000-000554-01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서문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진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이정림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최혜선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조성연 (호서대학교 교수)

권영인 (전 연세대학교생활과학연구소)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개발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출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 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조복희

목 차

연구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 방법	13
4. 용어 정의	20
II. 연구 배경	21
1. 육아지원기관 특별활동 관련 규정	21
2.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정	30
3. 특별활동 적합성	40
4. 특별활동 관련 선행연구	45
5. 요약 및 시사점	50
III. 외국의 보육과정과 특별활동	52
1. 일본	52
2. 스웨덴	59
3. 영국	64
4. 요약 및 시사점	68
IV. 특별활동 운영 현황	69
1. 특별활동의 실시	69
2. 운영배경 및 원인	74
3. 영유아 일과와 특별활동	79
4. 교과목 결정과정	86
5. 수업 유형	89
6. 특별활동 부모 선택권	95
7. 비용	99

8. 특별활동 관찰 사례	102
9. 요약 및 시사점	107
V. 특별활동 이용 현황	110
1. 특별활동 이용 비율	110
2. 이용배경 및 원인	119
3. 이용시간	125
4. 비용	128
5. 만족도 및 요구	136
6. 요약 및 시사점	138
VI. 특별활동 관련 정책제언	140
1. 특별활동의 영향	140
2. 특별활동 정책의 기본원칙	147
3. 특별활동 관련 정책 제언	149
VII. 맺는 말	155
부 록	163
부록 1. 부록 표	165
부록 2. 심층면접조사 결과	168
부록 3. 면접조사지 3종	189

표 목 차

〈표 I-3-1〉 분석대상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	14
〈표 I-3-2〉 보육시설조사 자료 분석 내용	14
〈표 I-3-3〉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반적 특성	15
〈표 I-3-4〉 가구 및 아동조사 자료 분석 내용	15
〈표 I-3-5〉 심층면접 시설장 특성	16
〈표 I-3-6〉 보육시설장 심층면접조사 내용	17
〈표 I-3-7〉 심층면접 부모 특성	18
〈표 I-3-8〉 부모 심층면접조사 내용	19
〈표 II-1-1〉 보육료 관련 규정	22
〈표 II-1-2〉 기타경비 수납한도액	23
〈표 II-1-3〉 서울시 결정방법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24
〈표 II-1-4〉 특기(특별)활동비 수납 및 운영시 유의사항	24
〈표 II-1-5〉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과정 영역 지표	25
〈표 II-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일과의 통합적 운영	26
〈표 II-1-7〉 유치원 특별활동 관련 규정	27
〈표 II-2-1〉 아동발달의 기본 원리	31
〈표 II-2-2〉 NAEYC가 제시한 교육과정 원칙	34
〈표 II-2-3〉 보육·교육과정 내용선정 지침	36
〈표 II-2-4〉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	37
〈표 II-2-5〉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	38
〈표 III-1-1〉 일본의 보육목표	54
〈표 III-1-3〉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보육지침	55
〈표 III-1-4〉 일본 성마리아 보육원 만 4, 5세반의 일과	56
〈표 III-1-5〉 유아 일인당 특기·적성교육에 지출하는 월 비용: 3세 11개월 기준	58
〈표 III-2-1〉 피르스쿨라 보육목표	61
〈표 III-2-2〉 예테보리시 피르스쿨라의 하루 일과	63
〈표 IV-1-1〉 특별활동 영역별 프로그램	70
〈표 IV-1-2〉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비용유무	71
〈표 IV-1-3〉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 - 영아	72

〈표 IV-1-4〉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 - 유아	72
〈표 IV-1-5〉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과목 운영 비율	73
〈표 IV-2-1〉	특별활동 실시 이유	76
〈표 IV-2-2〉	보호자 요구 높은 보육내용 - 유아	78
〈표 IV-3-1〉	표준보육과정이 제안하는 일과 운영 - 만5세반	80
〈표 IV-3-2〉	A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 만5세반	82
〈표 IV-3-3〉	B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 만5세반	82
〈표 IV-3-4〉	C 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84
〈표 IV-3-5〉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85
〈표 IV-4-1〉	특별활동비 결정	88
〈표 IV-5-1〉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부 강사 비율	89
〈표 IV-5-2〉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부강사 이용비율	90
〈표 IV-6-1〉	특별활동 프로그램 의무 수강 비율	97
〈표 IV-6-2〉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99
〈표 IV-7-1〉	아동 1명당 최대 특별활동 수납액	100
〈표 IV-7-2〉	D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수입 지출 사례	100
〈표 IV-7-3〉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식	101
〈표 IV-8-1〉	영어 특별활동 수업 구성	103
〈표 V-1-1〉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110
〈표 V-1-2〉	가구소득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111
〈표 V-1-3〉	제 특성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111
〈표 V-1-4〉	연령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률	113
〈표 V-1-5〉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률	114
〈표 V-1-6〉	제 특성별 특별활동 개수	116
〈표 V-1-7〉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의 개인서비스 이용 종류 및 수	116
〈표 V-1-8〉	시설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실시 비율	118
〈표 V-2-1〉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 이유	124
〈표 V-2-2〉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 이유	125
〈표 V-3-1〉	특별활동 과목별 주 평균 이용 시간	126
〈표 V-3-2〉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평균 이용 시간	126
〈표 V-3-3〉	아동 1인당 특별활동 총 이용시간	127

〈표 V-3-4〉 K어린이집 특별활동 시간 사례	128
〈표 V-4-1〉 시설운영·특별활동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129
〈표 V-4-2〉 연령별·특별활동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130
〈표 V-4-3〉 특별활동 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131
〈표 V-4-4〉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131
〈표 V-4-5〉 연령별·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월평균 비용	132
〈표 V-4-6〉 특별활동 이용 개수별 월 평균 비용	133
〈표 V-4-7〉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 ..	134
〈표 V-4-8〉 제 특성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 부모의 걱정 추가 부담액 ..	135
〈표 V-5-1〉 특별활동 만족도(5점 평균)	137

그림 목 차

[그림 II-2-1] 보육과정 구성과 운영 과정	35
[그림 VI-2-1] 특별활동 요구, 실시 및 결과	147
[그림 VI-2-2] 특별활동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안	148

부 표 목 차

〈부표 V-1-1〉	국공립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5
〈부표 V-1-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5
〈부표 V-1-3〉	기타법인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6
〈부표 V-1-4〉	민간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6
〈부표 V-1-5〉	가정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7
〈부표 V-1-6〉	직장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167

연구요약

1. 서론

1. 연구 목적

- 보편화되고 증가추세에 있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에 대하여 운영 및 이용의 배경, 원인 등의 실태를 진단하고, 특별활동을 둘러싼 부모, 시설운영자 및 전문가 사이의 입장 차이를 규명하여 바람직한 특별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아동발달론에 입각한 보육과정의 원칙 검토
 - 외국의 보육과정 운영 원칙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 배경과 이유, 과목 및 선택과정, 실시 유형, 시간, 비용 등 운영 실태 진단
 - 부모들의 특별활동 이용 이유, 비용, 시간 및 요구 등 이용 실태 진단
 -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시설, 부모, 아동 입장에서 긍정적·부정적 요인 검토
 -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제언

3. 연구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정 및 특별활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외국의 보육·교육과정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음.
 - 분석에 포함된 보육시설은 3,131개소이며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는 1,339명임.
- 시설장 14명과 부모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장, 교사, 공

무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활동 수업을 관찰하였음.

-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II. 연구배경

1. 육아지원기관 특별활동 관련 규정

- 영유아보육법 기타경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정부가 특별활동 수납상한액을 두고 있으며, 평가인증지표 중 '일과의 통합적 운영' 지표를 통해 바람직한 일과운영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보육료 포함 불가, 학부모의 동의, 원치 않는 아동의 방치 금지, 외부 전문강사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특기(특별)활동비 수납 및 운영 시 유의사항을 보육사업지침에 제시하고 있음.
- 「유아교육법」 과 「유아교육시행계획」 은 유치원 특별활동 허용범위를 규정함.
 - 지역 교육청별로 종일반 및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제작 배부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사업과 인력을 지원하는 지혜나눔 사업으로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함.

2.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정

- 발달은 여러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서적(sequential)이고 누적적(cumulative)으로 이루어지므로, 연령과 발달 수준별로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 아동의 원활한 발달과 학습이 촉진됨. 따라서 아동의 지식수준 이상의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발달수준에 적합한 보육·교육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능동적 놀이 학습 참여보다 수동적인 학습 문제지 풀이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스트레스, 낮은 자신감과 함께 학령기까지 운동, 학습, 언어, 사회적 기술 발달 정도가 낮음.
 - 과도한 학습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를 박탈함. 발달과 경험은 사회, 언어, 인지, 정서, 신체 측면이 상호 연결되어 이루어지므로 보육과정 역시 정답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영유아의 탐구와 탐색을 촉진하여야 함.
- 보육과정은 영유아와 성인 및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성공의 느

낌, 학습의 즐거움을 장려하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융통성을 허용할 수 있어야 함.

- 보육시설에 권장되고 있는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따라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 영역별 보육과정 목표를 설정하고 연령집단별로 구분된 보육과정을 제공함.

3. 특별활동 적합성

- 전문가들은 영유아 시기의 특별활동의 교육내용이나 과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임.
 - 대집단 수업과 교사 지시적인 학습지 활동 등은 성인 주도의 하향식·단계적 학습 방법을 적용하므로 영유아가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음.
- 1997년 NAEYC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 개정안에서 발달 적합성 개념에 연령 적합성과 개인적합성 외에 사회·문화 적합성을 추가하였음.
 - 아동의 발달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 파트너로서의 부모 의사를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의 가치관이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발달 적합성이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특별활동 실시가 불가피한 현상이라면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가지고 정규교육을 보충해 주고 확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4. 특별활동 관련 선행연구

- 특별활동 실태, 특별활동에 대한 시설장과 부모 및 교사의 인식과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인지적·정서적·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음.
- 이들 연구는 과도한 특별활동이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통합보육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III. 외국의 영유아기 보육원리와 특별활동

- 일본 보육소 보육지침은 개별 아동 발달의 연속성을 파악한 후 창의적 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할 것을 권장함.
 - 공립보육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나, 상당수의 사립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함. 원어민 영어교실이 가장 많고, 다도, 음악교실, 체육교실, 일본무용 등을 실시함.
- 스웨덴의 피르스콜라는 아동의 감정 표현 및 공유를 지원하고, 교사는 교육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지만 아동과 구체적 활동을 할 때에는 최대한 아동의 요구와 흥미 중심으로 하는 비형식적인 활동들을 조직하여 제시하고 있음.
 - 다수의 교사와 함께 자유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 영국의 보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기관이 주도하며, 인지중심이나 언어, 악기, 스포츠 등의 활동은 보육과정의 일부이며, 특별활동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별도 비용 없이 외국어 수업을 실시함.

IV.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현황

- 보육시설에서는 한글, 수학, 과학 등의 인지 영역과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영역, 교구를 이용한 영역 및 외국어 영역 등에서 100여종 가량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보육시설의 95.4%(유료 53.0%, 무료 42.4%)가 특별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여 실시하지 않는 시설은 4.6%에 불과함.
 - 별도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 수는 시설당 평균 2.39개임. 영아 대상은 2개 실시하는 시설이 34.5%로 가장 많고, 유아 대상은 3개 실시하는 시설이 30.9%로 가장 많음.
 - 과목 운영비율은 영어가 61.8%로 가장 높고, 체육·미술·음악이 33~38% 수준이며, 교재교구 이용 프로그램 20.9%이고, 수학·과학·한글·한자 개설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보육시설장은 특별활동 운영 이유로 부모요구 수용, 시설의 경쟁력 확보, 운영비 보완, 영유아에 다양한 경험 제공 등을 들었음.
 -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나 학원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를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야 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는 기관 경쟁력, 원아모집, 교사에 대한 자극, 가시적 교육효과, 운영비 보충과 같은 경영 관련 문제들이 대부분임.
 -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은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기도 함.
-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일과 중에 운영하는 방법은 특별활동 수 등에 따라 다름.
 - 오후에 방과후 특별활동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보육과정을 20~30분 단위로 구분하여 한두 개 특별활동을 요일별로 배치하는 경우, 일일 보육과정을 무시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경우 등임.
 - 프로그램 실시 시간대는 보육시설의 46.0%가 오전, 26.1%가 오후, 26.5%는 오전과 오후 구분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결정은 부모 수요조사를 거치기도 하지만, 시설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부분 시설장의 주도로 이루어짐.
 - 시설장의 주도성 정도에 따라 시설장이 각 교과목을 먼저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특별활동 관련 업체의 마케팅이나 주변 시설장의 평판에 의해 선별하는 경우, 시설장 자신이나 교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손쉽게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은 29.4%의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30.9%는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28.8%가 일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고 응답함.
-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은 특별활동 관련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와 자체에서 교사나 교구 등을 조달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됨.
 - 외주 방식은 외부 강사가 일체 교재교구와 함께 파견되는 경우와 보육시설에서 교구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고 강사만 파견하는 경우가 있음. 영어, 외국어, 체육의 외부 강사 비율은 각각 90.2%, 86.7%, 83.6%임.

- 외주 방식의 경우에는 그림책, 노래, 게임, 워크북 등 다양한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주로 대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유아를 격려하거나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개별 과제를 주는 등의 상호작용의 수준이 특별활동 강사에 따라 다양함.
 - 보육시설이 특별활동 교사를 채용하거나, 보육교사에게 특별활동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를 채용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함. 외부강사 비율이 낮은 경우, 수학 28.3%, 한글 28.7%, 한자 41.7%, 미술 49.5% 등임.
- 특별활동 실시 시설의 50%이상이 특별활동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음.
 - 의무 수강 비율은 체육 72.1%, 한글 62.5%, 영어 60.1%, 과학 60.5%, 음악 59.7%, 교구이용 프로그램 56.0%, 미술 51.9%, 수학 56.7% 등임.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시설 20.8%는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8.3%는 교사와 자유활동, 5.8%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사 없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음.
- 특별활동비 관리는 48.8%가 보육재정과 혼합하여 관리하며, 27.8%는 별도 관리하고 있고, 9.4%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함.

V. 부모 특별활동 이용 현황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는 예체능 과목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영유아의 41.8%가 영어, 25.9%가 체육, 21.1%가 미술, 18.6%가 교구이용프로그램, 17.6%가 음악, 10.1%가 한글, 8.5%가 과학, 7.8%가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음.
 - 2008년 12월 보육아동 현황과 대비시켜 환산하면, 영어 이용아동은 약 47만 여명, 체육 29만 여명, 미술 24만 여명, 교구이용 프로그램 21만 여명, 음악 20만 여명, 한글 11만 여명, 과학 9만 5천여명, 수학 8만 8천여명으로 추정됨.
- 부모들이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주로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가 이동하지 않고 보육시설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학원 등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고 함.
- 특별활동 수강으로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능 증대가 자녀가 경쟁력 있는 사람으

로 성장할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좋아해서 하는 것일 뿐 큰 기대나 이유는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음.
- 특별활동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으며,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질이 큰 기대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음.
- 특별활동은 주로 10분에서 30분을 단위로 주 1~2회 진행되고 있음. 가장 많이 진행되는 영어 수업은 1주일에 2~3회에 걸쳐 60분 동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소 10분에서 최대 300분임.
- 특별활동 중 이용률이 높은 영어, 체육, 교구이용, 미술, 음악 프로그램은 75~87%의 시설이 별도로 비용을 받고 있음.
 - 특별활동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과목당 월 평균 1~2만원 선으로 영어가 18,620원이고, 체육 11,990원 등임.
 - 아동 1인당 특별활동 비용은 월평균 4만 4천원 정도이나 이용하는 개수에 따라서 3,000원에서 200,000원까지 그 분포는 다양함.

VI. 특별활동 정책방향

1. 특별활동의 영향 검토

- 부적절한 교육으로 인한 발달 적합성 부족 문제와 아동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호기심에 의한 발달 촉진 등 긍정적 측면이 언급됨.
 - 균형잡힌 발달이 필요하다는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은 영유아에게는 놀이 및 다양한 경험 제공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교육 위주의 특별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아동의 경쟁력을 우선하는 부모는 특별활동을 통해서 아동의 능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함.
- 다수의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부모의 조기교육열을 충족시키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교육상품임. 그러나 비용이 부담되는 부모도 있음.
 - 부모들은 자녀가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며,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생각함.
- 시설장들도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이자 전문가에 의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분절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과의 통합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음.

- 기회가 제한된 농어촌 지역 시설장은 특히 다양한 경험을 많이 언급함.

□ 교육 내용이나 적정 시기에 대해 사회적 합의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장은 특별활동 관련 지식과 정보를 통해 부모에 대한 교육 주도권을 가짐.

-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해야 할 투자를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인식이 부모가 시설장의 각종 특별활동 권고를 따르게 하는 요인임.

- 시설장 입장에서 부모 요구에 부응하여 원아모집 등 경쟁력강화 조건임. 특별활동 잘하는 기관이라는 명성은 고가의 특별활동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모들의 취원과 재원으로 이어짐.

□ 교사들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방해받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으나, 특별활동 시간은 보육교사에게는 일과의 여유시간이며 아동 관찰 시간이 되는 경우도 있음. 한편 외부강사에 비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낮다는 시각이 확산될 우려 있음.

□ 외부강사 및 전문 강사 파견업체의 확대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음.

2. 특별활동 정책제언

□ 특별활동 제한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표준보육과정 내 실화,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외부 특별활동에 대한 기준 마련과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 관리를 정책 목표로 함.

-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통합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함.

□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내실화 도모

-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정규 보육과정 운영 시간 및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

• 오전시간에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으로 제한함.

- 표준보육과정 및 표준보육과정 연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교사교육을 통하여 보급함.

- 표준보육과정 및 연계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련 교재교구를 보육정보센터를 통하여 대여, 지원함.
- 시설장과 보육교사 교육 강화로 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함.
 - 표준보육과정 및 영역별 심화 과정 교육을 지원함.
 - 프로그램 은행 운영으로 보육교사 프로그램 학습을 지원함.
 - 보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하여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비용을 지원함.
- 프로그램 지원네트워크 운영
 -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순회 전문강사 지원체계를 구축함.
 - 전문단체 등으로 보육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함.
- 특별활동 프로그램 관련
 - 외부강사에 의한 특별활동 지침을 제시함.
 - 특별활동은 외부 전문가가 실시하고 부모가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활동으로 규정함.
 - 총 비용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과목수를 제한함.
 -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무조건적인 이수를 금함.
 - 특별활동 시 보육교사의 역할을 명시함.
 - 특별활동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함.
 - 전문업체에 의한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인증제 도입 등 관리체계를 구축함.
 - 특별활동 강사 파견업체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함.
 - 파견되는 특별활동 강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함.
 - 특별활동 비용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외 문제를 해소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과정¹⁾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표준보육과정과는 별도로 그 이외의 프로그램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이는 최근 들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별활동이란 용어를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별활동이 무엇인가는 대략적으로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정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며, 용어도 일정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로 인한 교육 내용과 접근 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그동안 특별활동은 종일반 오후 자유놀이활동 시간에 표준보육과정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예체능 활동으로 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도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자유놀이활동의 일환이라기 보다는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한 교과 활동으로 의미가 변색되어 가고 있다.

현재 실시되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원인은 주로 조기교육에 대한 과도한 부모의 교육열과 편의성, 그리고 보육시설의 원아모집 경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특별활동은 체육, 미술, 음악등 예체능 과목이 주를 이루었으나 초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영어가 도입된 이래로 영어가 가장 보편적 특별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발 빠르게 형성된 유아 영어교육 시장의 마케팅 전략은 부모들의 조기교육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이에 많은 보육시설에서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아모집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영어를 보편적으로 수용하며, 이외에 특별활동 교과목의 수를 늘려가고 있다. 부모의 교육열에 부응한 상업적 이해에 따라 특별활동이 보육시설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는 오래되었으나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육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의 기본틀은 2006년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련되었음.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에 「표준보육과정」을 공포하고 이어서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사지침'을 고시하였음.

사실 보육시설 이외의 영유아 관련기관에서도 특별활동, 특기활동, 조기특기교육, 종일제특성화프로그램, 시간연장제 프로그램, 방과후 특별활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 유치원에서 종일반 운영확대와 정부의 종일반비 지원 등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의 특별활동과 상호 상승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특별활동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물론 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별도로 특별활동을 받을 때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선호하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으나, 정부의 무상 보육·교육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내 특별활동 비용은 증가추세여서 정부의 보육료 지원정책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와 같이 심화되고 있는 영유아의 특별활동에 대해 그간 전문가들은 실시되는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지, 특별활동을 통해 미래의 인적자원으로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이정화 외, 2003; 김영명·서영숙, 2006; 이미화·김은영, 2007). 전문가들이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별활동의 내용과 교육과정이 성인 주도의 하향식 전달방법으로 기능과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한 단계적 학습을 강조하게 되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으며, 둘째, 영유아 스스로 발달에 적합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선택권과 발달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셋째, 대부분의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 특성에 민감하고 수용적인 교사보다는 특별활동을 전담하는 외래강사에 의해 이루어져 교육 내용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갖출 수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제한 또는 금지시킬 수 있는가? 정부는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하여 특별활동의 수를 제한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물론, 오랜 기간 수요자의 선택과 요구, 그리고 시설장의 이해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온 보육과정 운영관행이 일시에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관련 평가인증지표가 다른 항목과는 달리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서문희 외, 2009), 특별활동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에 대하여 실시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시설 운영자, 부모, 전문가의 관점에서 그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실태를 진단하고 운영에 대한 관계자의 입장 차이를 규명하여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현실 적합한 특별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학계에서 진행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론적 쟁점을 분석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보육과정의 원칙을 정리·검토한다.

둘째, 외국의 보육과정 운영의 기본원칙과 현황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 배경과 이유, 과목 및 선택과정, 실시 유형, 시간, 비용 등 운영 실태를 진단한다.

넷째, 부모들의 특별활동 이용 원인, 요구, 비용, 시간 등 이용 실태를 진단한다.

다섯째,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의 장단점을 시설, 부모, 아동 입장에서 검토한다.

여섯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가. 국내외 관련 문헌, 통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국내외 특별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관련 연구 문헌과 사례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활동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수집·분석하였고, 일본, 미국, 영국 및 스웨덴 보육프로그램 관련 제도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나.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 분석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 원자료를 분석하여 보육시설의 특별활동 실시 및 부모들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1) 보육시설 조사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의 보육시설조사는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표본 추출하여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총 3,201개 보육시설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 특성이 독특한 부모협동시설을 제외하고 총 3,131개 보육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특별활동 실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이 된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I-3-1>과 같다.

분석 내용은 시설의 소재지, 설립주체별 유형 및 시설별 보육 영유아수와 특별활동 운영 현황으로 특별활동 종류, 부모 선택여부, 특별활동 담당자, 보육료 외 비용 징수여부, 운영 시간, 운영 이유 및 비용 결정방법 등이다(표 I-3-2 참조).

<표 I-3-1> 분석대상 보육시설의 일반적 특성

단위: 개소, %

구분	시설수	비율	구분	시설수	비율
시설유형			시설정원		
국공립	319	10.2	20명이하	1202	38.4
사회복지법인	305	9.7	21-39명이하	619	19.8
기타법인	61	1.9	40-79명이하	698	22.3
민간	1066	34.0	80명 이상	612	19.5
가정	1159	37.1	계	3,131	100.0
직장	221	7.1			
계	3,131	100.0			

<표 I-3-2> 보육시설조사 자료 분석 내용

구분	내용
시설 특성	- 소재지, 설립주체별 시설유형 및 규모
특별활동 운영	- 특별활동 실시 이유 - 특별활동 종류, 선택 여부, 참가영유아 수, 담당자 - 특별활동 비용 결정 방법 및 비용징수 여부 -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2) 가구 및 아동 조사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 및 아동 조사는 전국 257개 조사구의 15,000가

구 중 초등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영유아는 2,563가구에서 3,331명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1,339명의 자료를 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대상 영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I-3-3>과 같다.

분석 내용은 아동의 거주지와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와 특별활동 이용 과목 수와 부모 선택여부, 특별활동 담당자, 주당 평균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과 만족도 등이다(표 I-3-4 참조).

<표 I-3-3>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영유아수	비율	구분	영유아수	비율
아동연령			모취업여부		
만0세	45	3.4	모취업	574	42.9
만1세	178	13.3	미취업	714	53.4
만2세	327	24.5	모 부재	50	3.7
만3세	316	23.7	가구소득		
만4세	256	19.2	99만원 이하	83	6.2
만5세	213	16.0	100~149만원	169	12.7
이용 시설유형			150~199만원	251	18.8
국공립	215	16.0	200~249만원	198	14.8
사회복지법인	117	8.7	250~299만원	160	12.0
기타법인	53	4.0	300~349만원	154	11.5
민간	801	59.9	350~399만원	77	5.7
가정	126	9.4	400~499만원	111	8.3
직장	26	1.9	500~599만원	70	5.2
계	1,339	100.0	600만원 이상	66	4.9
			계	1,339	100.0

<표 I-3-4> 가구 및 아동조사 자료 분석 내용

구분	내용
가구 및 아동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 가구 월 평균 소득수준 - 아동 모의 취업여부 - 이용하는 보육 또는 교육기관
특별활동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종류, 담당자, 주당 이용시간 - 부모 선택 여부, 비용 지불여부, 과목별 평균 비용 - 이용 만족도

다. 개별 심층면접조사

질적 연구방법으로 개별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시설장들과 부모들의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여 특별활동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운영 및 이용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선택하였다.

1) 시설장 심층면접조사

보육시설 특별활동에 관한 시설장 심층면접조사는 정원 40인이상 보육시설 시설장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시설유형과 수도권, 소도시 및 농어촌 등 지역으로 분류하여 임의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시설장 면접은 2009년 9~10월에 걸쳐 시행하였고,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약 60~80분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면접 내용은 조사 대상자 동의하에 녹취하였으며, 녹취 내용은 전사한 후에 여러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표 1-3-5〉 심층면접 시설장 특성

사례 번호	지역	시설유형	학력	경력	현원	특별활동 실시 과목수	비고
1	서울	민간	석사과정	12년	48명	7과목	
2	서울	민간	대졸	12년	50명	5과목	
3	서울	민간	대졸	22년	200명	5과목	
4	서울	민간	박사과정	27년	250명	7과목	영어학원 겸업 어린이집2개 운영
5	서울	국공립	대졸	23년	46명	2과목	
6	경기	민간	석사	31년	250명	8과목	
7	경기	민간	석사	17년	60명	7과목	농어촌
8	경기	직장	석사	16년	70명	6과목	소도시, 체인형
9	강원	법인	대졸	15년	54명	6과목	농어촌
10	충청	국공립	대졸	24년	120명	11과목	소도시
11	충청	민간	대졸	18년	68명	5과목	농어촌
12	경남	국공립	석사	27년	134명	5과목	
13	전북	민간	고졸	12년	70명	5과목	농어촌
14	전북	법인	석사	20년	150명	2과목	소도시

면접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의 <표 1-3-5>와 같다. 면접에 참여한 시설장

은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8명, 국공립 3명, 법인 2명, 직장 보육시설 1명이다. 학력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대졸 이상이며, 평균 20년 정도의 보육 경력을 가지고 있다. 시설 규모는 현원을 중심으로 40~50인 규모와 70여명 규모 각각 4개 시설과, 100인 이상과 200인 이상 각각 3개 시설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은 평가인증 등에서 권장하는 바와 같이 2개 과목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부터 11개의 과목을 운영하는 시설장까지 다양하다.

보육시설장에 대한 면접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I-3-6>과 같이 일반적인 시설 특성 이외에 특별활동 운영 현황과 원인 및 보육과정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적 제언 등의 4개 영역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표 I-3-6> 보육시설장 심층면접조사 내용

구분	내용
시설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및 현원, 연령별 반구성 현황 - 원장의 운영 철학, 경력, 연령 및 학력, 시설 운영 형태 - 교사의 전반적 특성 - 이용 아동의 전반적 특성
특별활동 운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종류 및 과목별 선택 이유 - 운영 형태: 시간, 교사, 비용, 선택여부, 만족 및 불만족 요인 부모선택시 비수강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 - 특별활동 운영의 효과
특별활동 운영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 수요 - 특별활동과 기관 운영의 장·단점
보육과정 운영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보육과정 실시 여부 - 아동발달과 특별활동 간 관계 - 표준보육과정과 특별활동 관계 - 보육교사에 의한 일과 구성의 어려움, 장·단점 - 보육시설 이외의 기관 특별활동 이용 아동 여부 및 개선책
특별활동 관련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규제에 대한 입장 - 정책적 지원 요구

2) 부모 심층면접조사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 심층면접조사는 1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부모 면접 대상자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중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6개 이상 이용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부모 면접은 2009년 9월~10월에 걸쳐 시행되었고, 면담은 약 30~40분에 걸쳐서 반구조화된 질문지

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면접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녹취 내용은 전사 후 여러 차례의 조정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범주에 따라서 분석되었다.

〈표 1-3-7〉 심층면접 부모 특성

사례 번호	지역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특별활동과목	특별활동비용
1	서울	만4세(여) 모	고졸	건설회사 (사무보조)	300만원	- 어린이집 4 - 학습지 3 - 문화센터 1	- 약 20만원 - 기타 13만원
2	서울	만3세(남) 부 만5세(남) 모	대졸 대학중퇴	자영업 주부	800만원	- 어린이집 7 - 학습지 4 - 창의미술	- 4만원
3	서울	만4세(여) 7개월(여) 모	대졸	회계관리	500~600만원	- 어린이집 3 - 문화센터 1	- 학기당 16만원
4	서울	만5세(남) 부 만1세(여) 모	고졸 고졸	자영업 주부	200만원	- 어린이집 5 - 태권도	- 17만원 - 태권도 9만원
5	경기	초등생1 만1세(여) 모	대졸	학원 경영	400만원	- 어린이집 5 - 학원 3 - 학습지 1	- 15만원 - 학원 39만원
6	경기	초등생2 만4세(남) 모	고졸	주부	250~300만원	- 어린이집 6 - 학습지(바우처)	- 학습지 1만원
7	경기	만2세(여) 모	대졸	파트타임	400만원	- 어린이집 4	- 9만원
8	강원	만5세(남) 모	고졸	주부	일정치 없음	- 어린이집 4	- 3만9천원
9	충청	만4세(여) 부 만1세(여) 모	대졸 고졸	자영업 남편일보조	일정치 없음	- 어린이집 5 - 학습지 1	- 4만5천원 - 학습지 3만5천원
10	경상	만5세(여) 만3세(여) 모 만1세(여)	고졸	주부	150만원	- 어린이집 8 - 학습지 1	- 4만원, - 학습지 2만1천원
11	경상	만2세(남) 부 모	전문대졸 전문대졸	자영업 가족일보조	300만원	- 어린이집 3 - 학원 1	- 8만원 - 학원 8만원
12	전라	만5세(여) 부 만3세(남) 모	고졸 전문대졸	자영업 남편일보조	300만원	- 어린이집 6	- 6만원

면접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명은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였다. 참여한 부모의 아동 연령은 만1~5세까지이며, 모의 취업상태는 취업모가 4명, 무급종사자가 3명이고 5명이 전업주부이다. 월평균 소득은 계절에 따른 일 또는 농업으로 평균 소득 산출이 어렵다는 가정부터 많게는 800만원 정도까지이다. 면접 대상 부모의 아동들은 보육시설에서 평균 6~7개 정도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고 집에 돌아와

서도 각종 학습지와 문화센터 등에서 특별활동을 한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비용은 적게는 3만 9천원에서 많게는 약 20만원까지이며 기타 학습지, 학원 등의 비용은 바우처 지원으로 1만원을 부담한다는 경우부터 월 39만원을 지불하는 경우까지 있다 (표 I-3-7 참조).

부모 면접 조사 내용은 일반적인 가구 및 부모의 특성 이외에 특별활동 이용 현황과 원인, 특별활동 운영 관련 의견과 정책적 제언 등의 4개 영역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표 I-3-8 참조).

〈표 I-3-8〉 부모 심층면접조사 내용

구분	내용
가구 및 부모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성 및 자녀 현황 - 부모의 학력 및 취업상태, 가구소득 수준, 주거 지역 특성 - 자녀 양육 철학 - 보육시설 이용시간 이외의 양육 형태와 학습지 등의 이용여부
보육시설 이용 현황 및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보육시설 내 일과 구성 인지 여부 및 만족 정도 - 보육시설 항목별 만족도 -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낸 이유 및 현 보육시설 선택 이유
특별활동 이용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활동 종류, 선택이유, 시간, 비용 - 교육내용 및 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만족 정도
특별활동 관련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이유 - 보육시설 이외의 특별활동에 대한 입장 -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특별활동과 이유 -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의 반응 - 특별활동과 아동 발달 관계
특별활동 관련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특별활동 지원 여부에 대한 입장 - 정책적 지원 요구

라. 포커스그룹 면접

시설장, 교사,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을 조직하여 5회의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운영 규제, 허용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해관계별 입장을 규명하였다. 특히, 시설장 포커스 그룹은 지역별로 3회를 개최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접은 면접 참여자들 상호간에 인지적, 정서적 자극을 유발하여 개별면접이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관점, 의견대립

등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이러한 기법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각 그룹 면접 참여자들은 종사하는 시설 유형과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개별 그룹에는 3~6명이 참여하였고, 면접의 전 과정을 녹취하였으며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포커스 그룹 면접 분석법에 따라 개인수준분석과 집단간 분석의 단계를 거쳐 활용하였다.

마. 전문가 의견 수렴

연구기간 후반기에 보육 관련 학과 교수,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및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의 타당성과 실제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 용어 정의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 특기활동,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특별활동 등 다양한 명칭으로 특별활동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시간과 형태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그러나 이미화·김은영(2007)은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였고, 반대로 서울시는 보육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외부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 용어의 정의는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에서 분석된 특별활동의 범위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던 보육교사가 운영하던 정해진 보육료 이외의 별도 비용을 부담하고 실시하는 모든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활동, 교재교구를 이용한 각종 활동 및 한글, 수학, 과학 등의 인지 능력 발달 관련 특별교과 중심의 활동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정책건의로 제시한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보육료 이외의 별도 비용 부담 여부와 표준보육과정의 보육내용을 기준으로 정의하였다. 즉,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여 표준보육과정과 별도로 보육과정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되는 특별 교과 중심의 활동으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배경

본 장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교육과정의 원칙을 점검하고 보육·교육 과정에 적합한 특별활동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별활동 현황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특별활동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영유아 발달 및 학습 특성과 특별활동의 관계를 특별활동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분석한다.

1. 육아지원기관 특별활동 관련 규정

가. 보육시설 특별활동 관련 규정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해도 된다는 규정이나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공식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의 기타경비 관련 규정과 평가인증지표 중 '일과의 통합적 운영' 지표가 적정한 특별활동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보육료 중 기타경비 관련 규정

보육시설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활동, 특기활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사업 안내」 등 보육 관련 규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다. 특별활동, 특기활동은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프로그램 활동이다.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제3항은 보육시설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보육시설 영유아들에게 실시하여야 할 보편적 보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따른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은 권고 조항으로, 보육시설이 어떤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지는 보육시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특별활동은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사업안내로 정하는 비용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는 보육시설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요경비 수납액 결정과정은 시·도지사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정하면 보육시설장은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표 II-1-1 참조). 40인 이상 보육시설이 필요경비를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²⁾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 필요경비에 무

엇이 포함되는 지는 법이나 안내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표 II-1-1〉 보육료 관련 규정

구분	내 용
영유아 보육법	제 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 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육시설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09년 보육사업 안내	3. 보육료 등 결정 가. 시·도지사 ○ 연도별 보육료(방과후 보육료 포함)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하여 시달(법 제38조) 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의 장이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적극 지도·감독 ○ 각 시설별로 신고된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내역을 파악하여 관리 다. 시설장 ○ 시·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시설장은 아래의 사항을 보육시설에 게시하고 입소를 희망하는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 보호자들이 숙지하도록 함 - 시·도지사가 결정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해당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실 수납액

각 지방정부가 고시한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방식과 한도액은 <표 II-1-2> 에서와 같이 시·도별로 차이가 있다. 기타 필요경비는 대체로 입소료,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비로 구분된다. 결정 방식은 세 가지로 시·도, 시·군·구, 시설위임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한도액도 시·도 전체가 모두 균일가격을 받도록 하는 시·도가 있는 반면, 시설유형별로 차등액을 받도록 하는 시·도도 있다. 먼저, 결정 방식별로 볼 때, 시·도 지사가 결정하는 경우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도 등 12개 시·도이다.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는 서울시, 경기, 충남, 충북, 강원도이다. 경북과 경남은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 2)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동법시행령 제21조 2(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표 II-1-2〉 기타경비 수납한도액

단위: 원

시도별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
서울	50,000 이내	○ 실비 범위 내에서 자치구청장이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납한도액 결정 ○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위임 불가	
부산	연 80,000	연 90,000	월 70,000
대구	연 75,000	연 90,000	월 80,000
인천	국고보조시설 70,000 (직장보육시설포함) 민간보육시설 100,000 (부모협동포함) 가정보육시설 100,000	국고보조시설(직장보육시설포함) 월 50,000 민간보육시설(부모협동포함) 월 80,000 가정보육시설 월 80,000 - 종류 및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협의하여 수납 (40인 이상 시설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득) - 군구에서는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여건 고려하여 군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불도 결정 가능	
광주	70,000(1회) (재원아 20,000(1회))	연 120,000	행사비: 연 50,000 기타 필요경비: 월 80,000
대전	90,000	건당 12,000 (년 144,000)	월 60,000
울산	81,000 (재원아 22,000)	실비수납 (년 18회 이내)	원 70,000
경기	100,000	사군에 위임	사군에 위임
강원	70,000 (재원아 20,000)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충북		○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호자의 협의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하도록 결정 ○ 단, 40인 이하시설은 부모회를 거쳐 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은 후 결정	
충남		○ 입소료(상해보험료, 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불가피한 경비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고 후 수납한다. * 단, 정원 40인 미만 시설은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전북	50,000 (재원아 20,000)	시 월 100,000 군 월 80,000	시 월 90,000 군 월 90,000
전남	연 80,000	연 120,000	월 80,000(3과목 이내)
경북	연 80,000	1회 20,000	보호자와 협의하여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
경남	사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		
제주	50,000	연 50,000	월 6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자료.

기타경비 수납한도액은 사실상 보육료 이외에 부모에게 비용 부담을 시키는 상한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기적성비 수납한도액은 별도의 강사비와 교재비가 드는 특별활동 개수를 제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는 관리 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보육시설 기타경비의 한 종류로 수납한도액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각 자치구의 구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의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특별활동비는 마포구 최저 월 5만원에서 동작구 최고 18만원까지 분포한다. 수납한도액 이외에도 과목당 6만원이나 5과목 이내와 같은 과목별 비용이나 과목 수 등의 규정을 만든 구도 있다(표 II-1-3 참조).

〈표 II-1-3〉 서울시 결정방법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단위: 원

자치구	특별활동비	자치구	특별활동비
강남구	150,000 이내(5과목 이내)	서대문구	60,000
강동구	60,000 이내(과목당)	서초구	150,000
강서구	90,000	성동구	100,000
강북구	150,000	성북구	70,000
관악구	90,000	송파구	150,000 이내
광진구	140,000이내(학부모 협의)	양천구	90,000
구로구	90,000	영등포구	110,000
금천구	80,000	용산구	90,000
노원구	80,000	은평구	90,000
도봉구	일반아 80,000, 방과후 45,000	종로구	80,000
동대문구	학부모와 협의(동의서)	중구	80,000
동작구	180,000	중랑구	80,000
마포구	50,0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9). 내부자료.

〈표 II-1-4〉 특기(특별)활동비 수납 및 운영시 유의사항

유의사항
- 특기(특별)활동비는 보육과정이 아니므로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다.
- 특기(특별)활동은 반드시 학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 보육시설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은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기(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 특기(특별)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 보육교사의 특기활동 후 특기활동비 수납은 불인정

자료: 2009년 서울시보육사업지침(2009).

서울시는 또한 2009년 서울시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특별활동비 수납에 관한 유의 사항을 명시하였다. 서울시의 특별활동 정의는 보육과정에 포함된 활동이 아니며 외부 전문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특별활동비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수납할 수 없으며,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표 II-14 참조).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보육과정 관리

보육시설 보육과정 운영에 관한 질 관리는 평가인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³⁾ 전체 평가인증 지표 중에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관련 관리기준은 보육과정 영역 일과의 통합적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전부이다.

〈표 II-1-5〉 보육시설 평가인증 보육과정 영역 지표

40인 이상 보육시설		39인 이하 보육시설	
하위영역	지표	하위영역	지표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계획안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 자유선택활동 시간 일과의 통합적 운영 일상생활 관련 활동 실외활동 시간 보육과정 평가	보육활동 계획과 구성	보육계획안의 수립 보육활동 계획의 균형 실외활동 및 일상생활 관련 활동 연령별 대안 활동
보육활동	대소근육활동 언어활동 친사회적 활동 기본 생활습관 활동 탐구활동 창의적인 음률활동 창의적인 미술활동 역할놀이와 쌓기놀이	보육활동과 자료	영아용 동일한 놀잇감의 준비 감각 및 조작 활동과 놀잇감 대소근육 활동과 자료 언어활동과 자료 친사회적 활동 기본 생활습관 활동 탐구활동과 자료 표현활동과 자료 역할 및 쌓기놀이와 자료

자료: 평가인증사무국(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시설 규모별로 구분되어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중 40인 이상 보육시설 평가지표에는 ‘일과의 통합적 운영’(대 3-4)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지표는 일과를 교과목 형태로 구분하는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우수한 수준,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부적절한 수준의 1~3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보육시설에서 일과를 하나의 교과목 형태와 특별활동(예: 영어, 체육, 국악, 컴퓨터, 한글, 미술,

3)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60~80개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짐. 2009년 12월 기준 전체 보육시설의 52.2%가 평가 인증을 받았음.

음악, 과학, 수학 등)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별활동이 일상적인 보육활동과 달리 외부 강사와 일정 시간 동안 수업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일과의 통합적 운영을 어렵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인증시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일과의 통합적 운영’ 지표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오전이나 오후 시간을 한글, 미술, 음악, 영어, 체육, 과학, 수학 등 교과목 형태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여 영유아를 모두 같은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같은 자료나 내용을 가지고 일과를 진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표 II-1-6〉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 일과의 통합적 운영

구분	일과의 통합적 운영
1	일과를 교과목 형태로 구분하지 않으며, 대부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2	일과를 교과목 형태로 나누지는 않았으나, 통합성이 적다.
3	일과가 교과목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자료: 평가인증사무국(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40인 이상 보육시설).

영유아가 자신의 능력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교과 중심의 특별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성인의 일방적인 지시로 활동이 주도되기 쉬우며 영유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고 발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육시설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에 대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표에도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지표나 평가기준은 없다. 영유아보육법이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의 평가기준에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문서화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보육시설 평가인증시 특별활동을 2개 정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다.

39인 이하 보육시설 관련 지표에는 특별활동을 제한하는 ‘일과의 통합적 운영’ 지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유치원 특별활동 관련 규정

1) 유치원 특별활동 관련 규정

유아교육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표 II-1-7〉 유치원 특별활동 관련 규정

구분	내용
유아교육법	제13조 (교육과정 등) ①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2005 유아교육 시행계획 ¹⁾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내용(2005년) • 목적 - 유아의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성교육 및 창의성 개발 등 전인교육 정착 - 국가고시 유치원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교육과정운영지침 준수 • 추진내용 -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 운영 · 교육부 개발·보급 유아교육자료 적극 활용 -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기본생활습관 지도 철저 -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 철저 ·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 - 종일반 프로그램: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언어, 수과학, 미술, 음악 등) 내용을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으로 운영

주: 1) 2005년도까지 제시되었고 현재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지님

한편, 2005년 「유아교육시행계획」은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중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내용에서 특별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놀이중심의 통합교육을 운영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개발·보급한 유아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며, 유아발달에 부적합한 특별활동을 근절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적합한 특별활동의 대상은 영어지도, 학습지 활용, 유치원 일과 중 기능교육 등이다.

각 교육청은 내실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학은 유치원 교육과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교원 전문성과 유아의 인성 교육과 단위 유치원의 교육력 신장을 목표로 인성교육을 위한 수준별·개별화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도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유치원 장학은 시·도교육청 주관의 표집장학, 지역교육청 주관의 담임장학, 요청장학, 종합장학, 사이버장학, 지구자율장학, 유치원 주관의 원내 자율장학이 있으며, 종합장학은 필요에 따라 담임장학과 겸해 실시된다. 연간 장학지도 회수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연 3~5회,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 1~3회이다. 즉, 유형에 관계없이 최소 연 1회 이상은 수업의 질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조언을 받고 있다. 장학 제도는 시·도 교육청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운영된다.

2) 종일제·에듀케어 운영 지원

가) 특성화 프로그램

유치원 종일제는 기본 교육과정 운영 이후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의미하고, 유치원 에듀케어는 종일제에 이어서 하루 13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종일반 운영의 기본 방향을 명시하였다. 즉, '종합적인 보호'와 '전인적인 교육'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사립 유치원 종일제는 유치원을 집과 같이 편안한 환경에서 먹고, 자고, 씻고, 쉴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체험, 문화체험, 자연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유치원의 교육활동과 보육활동의 분리 운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008년 전국 유치원의 91%가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형 취학전 교육인 에듀케어는 유치원 종일반의 브랜드로, 기존의 시간 연장제 또는 종일제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목표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2003년부터 서울지역 19개소 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에듀케어 모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31개원의 공립유치원과 258개원의 사립유치원으로 총 389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5년간 공립은 약 7배, 사립은 약 8배 정도 운영 유치원 수가 증가하였다.

각 교육청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운영지침, 또는 유치원 종일제 운영지침으로 종일제 교육과정 운영지침을 제시하는데⁴⁾ 종일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유아 발달의 적합한 내용으로 통합적 교수 학습방법을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시·도

4) 종일제 운영지침에는 운영목적, 운영방침, 수업일수, 학급편성,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사, 운영비, 지도감독, 지원조직·구성운영, 통합운영 방식 등이 포함됨.

가 많다.

유치원 운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종일반 특성화 프로그램 또는 에듀케어 특성화 프로그램이 개발, 제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153호 유치원 교육과정에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은 유아, 교원, 유치원의 실정,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요구, 지역의 특수성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며, 유치원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 지역 교육청과 유치원에 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특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일제 프로그램 관련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⁵⁾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지역 교육청별로 다양한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2007년 선정된 우수사례는 32개인데, 전래동요를 통한 통합활동, 한국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활동의 실제, 생태체험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활동, 유아표현능력 증진을 위한 음악활동의 통합적 운영 방안, 긍정적 자아형성을 위한 창의적인 표현활동, 명화감상을 통한 창의적 표현력 신장활동, 깨끗한 환경지킴이, 자연물을 활용한 조형활동 등이다(문무경 외, 2009).

나) 세대간 지혜나눔 사업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은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를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문화(영어), 과학, 예·체능 등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문 교육 분야를 우선 개발하고, 전문분야 중·고령 인력풀을 구축하여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한다. 과학창의재단,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기관을 활용한다.

학부모 및 현장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전문가 자원봉사 풀을 구축하여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한다. 전문 인력 보유기관을 발굴하고 인력풀을 구축하여,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보급, 전문가 및 유치원 교원대상 사전연수 실시 등을 동시 추진한다. 프로그램시 교사와 전문인력간 역할을 분담하되, 담임교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증

5) 광주교육청 사례의 경우 장학자료 2007-57호로 '종일반 요리활동을 위한 꼬마 요리사' 자료를 개발하였고, 2009-15호로는 '종일제와 함께하는 즐거운 유치원 생활' 자료를 제시하였음. 각 교육청 사례는 문무경 외(2009) 참조

대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전국유치원 8,341개원의 12.5%인 약 1,000여개의 유치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운영 결과 분석 등을 통하여 확대 및 방향을 재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2. 영유아 발달과 보육과정

영유아는 연령단계별로 발달 수준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별 보육과업이 다르다. 보육과정을 구성하고 설정하기 위해서는 연령단계별 영유아의 발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본 절에서는 영유아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 발달과 초기경험

어린 시절의 자극은 발달과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뇌발달과 신경연결계 형성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적절한 자극은 발달을 촉진시키지만 자극이 없거나 위험한 약물 및 물질에 노출되거나 영양이 빈약할 때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적절한 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아동의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기대에 아동이 압도될 때 발달 잠재력이 손상된다.

따라서 아동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원리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연구는 NAEYC에서 제시한 아동발달 과정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수세기 동안 연구, 조사, 이론, 실제로부터 정제된 12가지 원리들이 제시되어 있다(Bredenkamp & Copple, 1997). NAEYC에서 제시한 아동발달 과정 원리는 <표 II-2-1>과 같다.

NAEYC가 제시한 12가지 원리에 따르면, 발달은 여러 영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순서적(sequential)이고 누적적(cumulative)으로 이루어진다. 즉, 인지발달과 신체적 성숙은 상호간에 주위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물리적 경험 및 사회적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행동적 변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내용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발달은 논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일정한 순서를 거쳐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어떤 한 단계는 그 이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동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누적적이다. 이와 같은 기본 원리는 신체적, 지적, 사회·정서적 측면 등 모든 발달 영역에 적용되며 개인에 따라 또는 문화에 따라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모든 아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발달원리에 따라 발달한다(NAEYC, 2009).

〈표 II-2-1〉 아동발달의 기본 원리

내용
1. 아동의 발달 영역-신체, 사회, 정서, 인지-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 영역에서의 발달은 다른 영역에서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2. 발달은 이미 획득된 것에 기초하여 이후의 능력, 기술, 지식과 함께 비교적 규칙적인 순서(sequence)로 일어난다.
3. 발달은 서로 다른 영역 내에서의 각 아동의 기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동 마다 발달 속도는 다르다.
4. 유아기의 경험은 개별 아동 발달에 누적적이고 지연된 효과를 가진다. 최적의 시기는 발달과 학습의 특정 형태를 위해 존재한다.
5. 발달은 좀 더 복잡하고, 조직적이고 내재적으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6. 발달과 학습은 복합적인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고 또 거기서 발생한다.
7. 아동은 신체적·사회적 경험과 문화적으로 전달된 지식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그들 자신만의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이다.
8. 발달과 학습은 아동들이 생활하는 신체적·사회적 세계를 포함하는 환경과 생물학적 성숙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9. 놀이는 아동의 사회, 정서, 인지 발달과 함께 그들의 발달을 반영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10. 아동들이 새로이 획득한 기술을 연습할 기회를 가질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현재 숙달 수준을 넘어선 도전을 경험할 때에도 발달이 진행된다.
11. 아동들은 앎과 학습의 다른 양식들과 그들이 아는 것을 다른 방법들로 표현하는 것을 보여준다.
12. 아동들은 그들이 안전하고 존중받고, 그들의 신체적 요구가 충족되며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의 맥락에서 가장 잘 학습한다.

자료: S. Bredekamp & C. Copple, eds., (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 Washington, DC: NAEYC.

일반적인 연령별 발달특성 및 발달과업은 만 2세미만, 만 2세, 만3~5세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2세 미만은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신체 리듬에 맞춘 식사를 통해 영양을 섭취하고,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운동능력을 기른다. 생후 1년 반경까지 체중이나 신장의 성장과 함께 이동운동능력이 발달된다. 두뇌발달 또한 생후 어느 시기보다도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두뇌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이 시기 동안의 영양결핍은 두뇌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신체적, 운동적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탐색의 기회 및 경험의 증가로 지각능력 및 기억능력을 비롯한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지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감각기관들의 자극이 필요한 시기이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 등이 필요하며 특히 언어적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어머니를 비롯해 돌

보이주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애착과 신뢰를 형성하고, 이러한 애착은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Berk, 2007; Stephen, Dunlop, & Trevarthe, 2003).

2세가 되면 신체운동 발달이 점점 더 정교화되고 신체 움직임이 유연해진다. 언어 능력을 비롯하여 지적능력이 더욱 발달한다. 언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언어를 사용하여 어른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 주변을 탐색하기 위해 관찰, 질문, 조작, 분류, 측정을 한다. 양육자로부터 떨어져 이동하는 등 주변환경에 대한 탐색이 증가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경험을 공유한다. 점차 다른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더불어 독립적이 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자기주장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다루기가 어려워진다(박성연, 2006; Berk, 2007; SOEID, 1999).

만3~5세는 만2세까지와는 달리 신체적 성장은 눈에 띄 정도로 현저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단단한 몸매를 갖추게 되는 한편, 뛰기, 달리기, 공 던지기, 그림 그리기, 액체 따르기 등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능력이 향상된다. 어휘력의 증가와 문법능력의 발달로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능력이 급속히 발달한다. 또한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다(박성연, 2006; Berk, 2007; Papalia, Gross, & Feldman, 2003). 인지능력의 발달로 사회적 기준이나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근거한 이차적인 정서를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발달한다. 이에 따라 유아는 또래관계 등 사회적인 상황에 필요한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나 또래와의 놀이경험을 통해 자아개념, 성역할 및 도덕성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행동 발달의 기초를 다지게 된다(Berk, 2007; SOEID, 1999). 따라서 이 시기 유아들에게는 상호우호적인 또래관계를 갖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나 부모는 자주적인 표현을 격려해주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격려해 주며, 공감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김지은 외, 2006; SOEID, 1999).

나. 아동발달과 보육교육 프로그램

육아지원기관 또는 부모의 역할은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아동의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거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극을 퍼붓는 것은 아동들을 질리게 만들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위협하고 자극 박탈과 흡사한 조건을 만들게 될 수 있다. 조기학습센터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교육용 글자, 숫자 카드 등으로 훈련을 받은 영아와 읽기,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등 본격적인 교육과정을 이수 받은 유아가 똑똑하고 영리한

‘영재 아기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Hirsh-Pasek & Golinkoff, 2003). 또한 생후 첫 몇 년 동안이 읽기, 음악, 체조와 같이 훈련에 의존하는 기술들을 숙달하는 데 민감한 시기라는 증거 역시 없다(Bruer, 1999).

오히려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적절한 자극은 사물을 보고 만질 수 있는 기회, 언어 및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 돌아다니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와 같은 일상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발달하는 경험-기대 뇌 성장(experience-expectant brain growth)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경험-기대 뇌 성장은 양육자가 아동과 학령전 아동에게 적절한 놀잇감을 제공해 주고, 식사를 함께 하고, 그림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일과를 날마다 즐길 수 있도록 해 줄 때 가능하다. 이처럼 일상적이고 자극이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장이 기초가 되어야 특수한 학습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험-의존 뇌 성장(experience-dependent brain growth)이 이루어질 수 있다(Huttenlocher, 2002; Shonkoff & Phillips, 2001).

이와 같은 성장과 발달 원리에 따르는 아동중심 프로그램(child-centered program)에서 교사는 아동이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하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해 주고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어야 한다.

반면, 반복과 훈련을 자주 사용하는 형식적 교육을 통해 철자, 수, 색, 형태, 다른 학습적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습적 프로그램(academic program)은 아동의 동기와 정서적 안녕감을 손상시킨다. 육아지원기관의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놀이 학습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앉아서 학습문제지를 완성하는 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들은 몸 흔들기와 같은 스트레스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낮아지고, 덜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며, 학령기까지 운동·학습·언어·사회적 기술 발달 정도가 낮다(Marcon, 1999; Stipek et al. 1995). 또한, 반복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취약한 학업 습관과 낮은 성취감의 영향력은 초등학교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urts et al., 1992; Hart et al., 1998, 2003).

다.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교육과정

1) 보육·교육과정의 원칙

아동발달에 적합지 않은 과도한 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영유아들에 대한 제한된 교육과정 목표, 그리고 특별한 요구와 흥미, 관심사 등으로 자연스러운 학습의 기회

를 박탈하는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Bredenkamp & Rosegrant, 1995).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육과정은 발달의 전 영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전인발달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영유아들에게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동시에 개별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의 <표 II-2-2>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 원리를 연구한 NAEYC가 제시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침이다. 또한, 교육과정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내용)와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지(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NAEYC 지침은 교육과정이 아동들에게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지적으로 매력적이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표 II-2-2> NAEYC가 제시한 교육과정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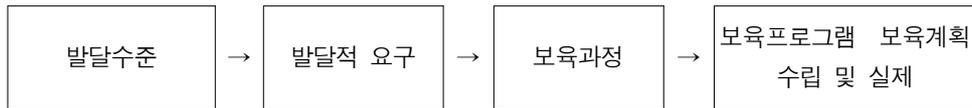
내용
1.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은 아동 발달의 신체, 정서, 언어, 예술, 인지의 전 영역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2. 교육과정은 아동들에게 사회적으로 적합하고, 지적으로 끌리며,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학문의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교육과정은 아동들의 새로운 개념과 기술의 획득을 촉진하고 그들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선행지식을 활성화하는)에 근거하여 구성된다.
4. 효율적인 교육과정 계획은 종종 아동들이 의미 있는 관계를 구성하도록 돕기 위해 그리고 풍부한 개념 발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적인 교과(subject-matter) 영역을 교차하여 통합한다.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두는 것 또한 효과적인 전략이다.
5. 교육과정은 기술을 사용하고, 적용하고, 학습을 계속하는 성향뿐만 아니라, 지식과 이해, 과정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6. 교육과정 내용은 3세에서 8세까지의 유아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방법으로 인정된 학문의 탐구에 관한 주요 개념과 도구를 반영하므로, 인지적 통합성을 가지고 있다. 유아들은 예를 들어, 과학실험하기, 쓰기, 수행, 수학문제풀기,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기,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학문 학습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7. 교육과정은 지역 공동체와 프로그램 속에 공유된 문화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가정 문화와 언어를 지지해 줄 기회를 제공한다.
8. 교육과정 목표는 설계된 연령 범주 안에 있는 대부분의 아동에게 현실적이며 획득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9. 테크놀로지가 사용될 때, 그것은 학급 교육과정과 교수(teaching)를 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자료: Bredenkamp & Copple, eds.,(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 Early Childhood Program. Washington, DC: NAEYC.

이러한 지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좋은 교육과정은 단순한 수업계획과 활동의 모음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목적과 구성 틀은 특정 목적 도달을 향한 활동 및 교수전략과 일치되어야 한다.

종합해서 말하면,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를 기준으로 발달적 요구에 따른 발달과업을 토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대한 초점은 영유아의 연령 외에도 개인의 발달 차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육과정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보육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대상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및 발달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영유아의 연령, 성별, 특성에 따라 발달적 차이와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각 영역에 따라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령에 따른 발달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지니므로 영유아기 보육과정은 연령에 따라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활동, 자극, 영양, 휴식, 섭식 등에 대한 영유아의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이나 경험은 사회, 언어, 인지, 정서, 신체 측면이 상호 연결되어 다차원으로 관련되며 발달한다. 따라서 한 영역의 발달이나 경험만을 강조해서는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 수 없다.



[그림 11-2-1] 보육과정 구성과 운영 과정

2) 보육·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기본 원칙

보육·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보육·교육과정에 어떠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다. 과연 영유아들에게 무엇을,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 무엇, 내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원리 대부분은 영유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한다기 보다는 학습경험 관점에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Bredenkamp와 Rosegrant(1995)는 NAEYC가 제안한 발달이론에 따라 교육 내용 선

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표 II-2-3 참조). 이 근거는 교사가 영유아를 가르치는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점들을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에 질문을 맞춰보면서 재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II-2-3〉 보육·교육과정 내용선정 지침

내용
1. 교육과정이 상호작용적인 학습을 이끌어내며 유아의 지식 구성을 격려하는가?
2. 교육과정이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가?
3.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 나가는 동안 학습에 대해서 유아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며 학습을 하고자 하게 만드는가?
4. 교육과정이 유아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유아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가? 혹은 유아의 개인적인 경험을 쉽게 갖도록 돕는지 등에 관한 것이다.
5. 유아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가? 또는 유아가 성장한 후에 배우는 것이 더 쉽고 효율적인가?
6. 교육과정이 유아와 교사에게 흥미로운가?
7. 교육과정이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잘 반영하며 그 다양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교육과정이 유아의 개인차나 그 개인의 가족의 다양성에 반응할 수 있는가?
8. 유아에게 현재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킬 기회를 주는가?
9. 유아에게 의미있는 상황 속에서 활동을 구성하도록 해줌으로써 개념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는가?
10. 전통적인 교과영역과 충분히 통합되어 있는가?
11. 관련 분야의 기준에 따라 지식이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제시되는가?
12. 그 내용요소가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13. 활동적인 학습을 촉진하며 유아에게 의미있는 선택을 하도록 허락하는가?
14. 유아가 과업을 완수하는 데 정답에만 중점을 두기 보다는 유아의 탐구와 탐색을 촉진하는가?
15. 사고하고 추론하고 문제해결을 수행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을 격려하는가?
16. 유아와 성인 혹은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고 촉진하는가?
17. 활동성, 감각적인 자극, 맑은 공기, 휴식, 영양, 배설에 대한 유아의 생리적 욕구를 존중하는가?
18. 유아의 심리적 안정감, 안전, 소속감 등을 장려하는가?
19. 성공의 느낌, 학습의 즐거움을 장려하는 경험을 제공하는가?
20. 교사와 유아에게 융통성을 허용하는가?

자료: Bredekamp & Rosegrant. T.(Eds.)(1995). Reaching potential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ment, Vol. 2. Washington, DC: NAEYC.

교육과정 내용 선정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영유아 자신이다. 어떠한 내용이나 목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영유아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이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선정 지침이다. 또한 그 내용이 영유아가 특정 능력이나 기술을 획득하는 결과보다 그 내용을 통해 영유아가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영유아 개인의 발달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가 가족 및 타인과 관계를 갖고 사회·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침들이 영유아 교육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제 어떻게 제시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되지는 못하지만, 무엇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3) 표준보육과정의 원리 및 구성

우리나라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기 연령에 따라서 발달수준과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따라 영역별 보육과정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11-2-4〉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

구분	내용
기본생활	기본생활 영역은 전 생애의 기초이며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신체운동	신체운동 영역은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며,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
사회관계	사회관계 영역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족과 또래 및 지역사회와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유능한 사회 구성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의사소통	의사소통 영역은 듣고 말하는 것을 즐기고, 상황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과 읽고 쓰는데 필요한 기초적 능력을 익힐 수 있고 올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자연탐구	자연탐구 영역은 오감을 이용하여 주변 사물과 환경을 지각하고 탐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학적·과학적 기초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예술경험	예술경험 영역은 사물이나 소리, 자연이나 예술 작품에 대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생각이나 느낌을 음악, 동작, 극이나 미술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들을 보고 즐길 줄 알아으로써 풍부한 감성 및 창의성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

자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8

먼저,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보육내용은 영유아의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여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른생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기본생활,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기본운동능력을 기르는 신체운동,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 탐색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자연탐구, 그리고 예술적 요소를 경험하고 즐기는 예술경험 등 6개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6개의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II-2-4>와 같다.

다음은 표준보육과정이 전제하고 있는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에 따른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 영역별 보육과정 목표이다(표 II-2-5 참조).

<표 II-2-5> 연령별 발달수준과 발달적 요구

시기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
발달수준	신체발달 감각운동 초보적 언어발달	신체균형 동작의 정교화 급속한 언어발달 자기주장 초보적 또래 상호작용	신체균형과 운동기술발달 소근육 운동 발달 문장구사 능력 자기조절 또래 상호작용 증가 이차정서발달
발달적 요구	신체운동 주변탐색 언어표현 애착 및 신뢰 형성 정서적 안정감	신체동작과 신체조절 다양한 주변 탐색 언어상호작용 애착안정 자기표현 또래경험 정서공유	신체운동과 표현 인지적 자극 언어 풍부화 및 의사소통 자조능력 및 통제능력 문제해결 정서조절 창조적 활동의 요구 인간관계 놀이의 다양화
보육 과정 보육 목표	기본 생활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길러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바르게 생활한다.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습관을 길러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고 바른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즐겁게 생활한다.
	신체 활동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본적 운동수행능력의 발달을 꾀하여 기초체력을 기른다.	여러 가지 신체활동을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체운동 능력을 증진한다.

(표 II-2-5 계속)

시기	만2세 미만	만2세	만3~5세	
보육 과정 보육 목표 ¹⁾	사회 관계	다른 사람과 분리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고, 양육자와 긍정적으로 애착 관계를 형성하며, 기본 정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주변 환경의 맥락 속에서 느끼고 표현한다.	자이를 정확하게 확립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정서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한다. 또 주변의 어른,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며 이해한다.
	의사 소통	듣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한다.	듣고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익힌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과 기초적인 문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태도와 습관을 형성한다.
	자연 탐구	주변 사물과 자연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등 다양한 감각과 조작으로 지각하고 반복하여 탐색한다.	주변의 사물과 자연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며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수학적, 과학적 경험을 한다.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려는 마음과 탐구과정을 즐기는 태도를 기르고, 기초 탐구 기술과 과학적 기초지식을 확장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예술 경험	자신의 신체와 감각자극에 호기심을 보이며, 소리나 간단한 노래를 즐겨 듣고 점차 소리나 몸 움직임, 굽적거리기 등의 복잡한 반응을 즐긴다.	주변 사물, 환경,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즐기는 경험으로 창의성과 감성이 풍부해지고 발달해 가는 기초를 마련한다.	자연이나 생활, 예술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음악, 움직임, 극놀이, 미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즐겨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며,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자료: 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07-1호(2007) 표준보육과정의 구체적 내용과 및 교사지침.

이와 같은 보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적 발달을 위한 여섯 개 영역은 연령집단별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연령집단은 만 2세 미만, 만 2세, 만 3~5세 영유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연령별 집단은 다시 1-3 수준으로 세분화되어 제시되었다. 수준은 연령, 발달, 개인차를 포함한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보육과정에서 만 2세 미만 보육내용은 1·2·3수준, 만2세 보육내용은 1·2 수준, 만3~5세 보육내용은 1·2·3수준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3. 특별활동 적합성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적합성은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내용과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발달 적합성과 우리나라에서 독특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의 양상을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사회·문화적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특별활동과 발달 적합성

특별활동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은 적어도 활동 내용이 연령에 적절한 발달적 과업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이 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발달시기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1) 특별활동 교육과정 적합성

많은 영유아보육·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특기활동의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특성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아동의 선택권, 발달권, 놀 권리 등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

이정화·정선아·이명조(2003)는 특기활동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특기활동은 성인이 주도하는 하향식, 단계적 학습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는 자신의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또한 특별활동 전담교사가 담임교사와 그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통합보육과정의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단절되는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허명순(2007)은 특기활동이 교육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의 지속성과 상호작용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원칙 하에서 기존 특별활동의 방향성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정한 교육은 질 높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활동이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진정한 의미의 특별활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경험의 지속성과 상호작용의 원리에서 특별활동의 의미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특별활동으로 제공되는 외적환경이 영유아의 개별적 욕구, 능력, 요구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정화·정선아(2004)의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결과는 특별활동이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양한 맛보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활동은 단지 기능습득적인 교육적 측면만 있을 뿐이라고 간주하였다

한편, NAEYC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제공했을 때 영유아는 흥미와 즐거움의 반응을 나타내며,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유아가 특별활동을 좋아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김영명·서영숙, 2006).

또한 표준보육과정이라는 특정의 교육과정만이, 특정의 교육철학이나 아동관에 입각한 경우에만,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다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 영유아가 교육받아야 하는 모든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이 동일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도 있다. 각 보육시설의 특색을 반영하는 보다 더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의 접근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육시설에서 현장견학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던 자연체험이나 생태 학습 등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일상적인 보육 과정에 통합하는 수업내용이라던가 다양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영유아 대상의 특기교육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기교육들이 어떠한 면에서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가를 발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특별활동 연령 적합성

영유아시기에는 발달 연령에 따라서 이루어야 할 주요 발달과업이 있다. 특별활동이 시작되는 만1세부터 미취학 영유아까지의 발달 연령은 36개월을 기준으로 걸음마기와 학령전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걸음마기 즉 18개월~36개월 영아기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얻은 후에 그들의 행동이 자신의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독립이나 자율성에 대한 느낌을 말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의지를 깨닫는 시기이다. 발달과업으로 공격성과 같은 충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만족을 지연할 줄 아는 능력, 옳고 그름이나 깨끗함이나 더러움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구별, 대상 항상성 및 분리 개별화 등 심리적 자아상과 자율성의 확립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는 오감 교육을 통한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고 스킴십과 애착 형성, 즐겁게 놀면서 말을 많이 해주고 충분한 영양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학령전기인 3-6세 유아는 아동들은 그들의 신체, 행동, 장난감,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떠맡도록 요구 받으며, 책임감에 대한 이해 발달은 주도성을 증진시킨다. 부모에 대한 동일시 과정을 통해 성 역할을 습득하고, 사회화 되어 가고, 전통적 관습과 예의범절 등 인간관계 형성에 필요한 덕목을 습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발달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부모나 교사는 동화책 등을 많이 읽게 하고 들려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또래와 노는 법을 익히게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유아의 종합적 사고기능과 인간성이 키워지고, 사고력이 증진되며, 사회적 역할을 습득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며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신흥범, 2007; 정대련, 2007; 천근아, 2007).

따라서,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는 특별활동의 내용이 영유아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발달을 추구하는 활동을 얼마나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특별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이 유아를 위한 질 높은 경험이 될 수 있다.

3) 조기 영어교육의 적합성

특별활동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 영어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서 발달 적합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남희 등(2002)은 만4세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 결과 4세 유아들에 비하여 7세 아동들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놀이와 게임을 통한 영유아들의 영어교육도 적절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4세 유아들이 게임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전조작기에 속한 4세아들은 아직 규칙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게임은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는 인간의 뇌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뇌발달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육적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뇌는 태어나서 3세까지 전체 뇌의 기본 골격과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오감을 통하여 골고루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시각이나 청각을 통한 한 가지 자극만을 주어 교육을 시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하였다. 만3세에서 6세 때까지는 종합적 사고와 인간성, 도덕성

기능을 담당하는 앞 뇌인 전두엽이 집중적으로 발달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는 예절교육과 인성교육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만6세가 지나 12세까지에 이르러서야 언어기능과 청각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 외국어 교육을 비롯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는 조기 영어교육이 3~6세 사이에 실시된다면 전두엽 발달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아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두엽 기능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되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무조건 빨리 영어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뇌 발달에 맞는 단계별 교육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 다른 연구(우남희, 2007)는 어린이집, 유치원, 영어학원 각 1개원에서 선정된 57명의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57명을 대상으로 세 기관에서 받았던 유아들의 영어 교육 경험과 지능점수 간 차이를 분석하여, 영어교육 경험과 유아들의 지능, 창의성 발달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교육 경험에 따른 지능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영어교육의 경험이 많은 기관의 유아일수록 언어창의성 점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조기 영어교육의 주입식 형태의 방법이 유아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도형검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영유아들에게 영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의 내용은 물론 전달하는 방법을 선정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나. 특별활동의 사회·문화적 적합성

1) 사회·문화적 환경과 발달

특별활동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크게 발달 적합성과 이에 새롭게 추가된 사회·문화 적합성에 관련된 것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1987년에 NAEYC에서 제시한 발달에 적합한 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가 소개된 이후로 기본 가정에 많은 이론적, 철학적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1997년의 개정안에서는 발달 적합성 개념에 연령 적합성과 개인적합성 외에 사회·문화 적합성이 추가되었다(Bredenkamp & Copple, 1997, 허명순, 2007 재인용).

한 개인을 이해할 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가족, 학교, 직장 등의 미

시체계로부터 정치적인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한 Bronfenbrenner(1979, 1989)의 주장처럼 개인이 생활하고 있는 문화와 맥락이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부모들의 교육열을 어떻게 해석하는냐는 조기교육과 특별활동의 과열현상에 대한 이해를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떠한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해결 방안도 달라질 것이다.

2) 한국 부모의 교육열과 특별활동

한국사회 전반의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에 대한 원인과 문제해결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별활동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함을 여러 연구자들이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은 특기교육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특기교육에 드는 비용의 부담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굳이 자녀에게 특기활동을 시키는 배경을 한국적인 독특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고찰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모의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와 요구의 저변에 깔려있는 부모의 교육열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여러 학자들은 부모들의 특기활동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과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윤추구 목적의 보육·교육 기관의 운영체제와 사업성을 띠는 조기교육관련 산업이 결합된 산물이라고 보고(양옥승 외, 2001; 이기숙 외, 2002; 이정화 외, 2003) 이 문제해결 방안으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들에게 올바른 유아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이해시키고(이기숙 외, 2002) 더불어서 공보육·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이기숙 외, 2002; 이정화 외, 2003). 양옥승 등(2001)은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유아영어교육이 전체 유아교육과정과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NAEYC에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은 가정의 요구에도 반응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허명순, 2007)하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서 부모는 부모교육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의 파트너로서 존재하며 부모의 요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소수의 부모가 아닌 다수의 부모가 일정한 방향의 요구를 표출했을 때는 과도한 교육열로만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부모가 왜 그러한 요구를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

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기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우리 사회의 제도적 측면과 연결시켜 논의해야 하며(민하영, 2002), 보육시설은 유아교육기관 재정의 근원인 유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관련된 활동의 요구를 강하게 하는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흐름이 특기활동을 부추기게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활동을 설명한 연구로는 조혜선(2004)과 박지연·이숙현·백진아(2005)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조혜선(2004)은 자녀의 성적이 어머니 역할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머니의 계층 유지 혹은 상승을 위한 전략으로 조기교육과 특기활동 이외의 다른 대안들이 많이 없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전략적 행위에서 성공할지라도 그 성공의 수혜자는 자신이 아니라 자녀 혹은 가족인 반면, 실패의 책임자는 어머니 자신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들은 여성의 세력화와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어머니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이나 주위사람들과의 사회관계에서 미시적인 권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가족 혹은 더 큰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의해 어머니의 행위가 제한된다면 어머니의 주체로서 권력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박지연·이숙현·백진아(2005)는 어머니 학력이 높을수록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이에 대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경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생활과 지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의 지위를 자녀를 통해 재생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기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자녀교육은 계층을 막론하고 가족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또는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녀 교육에 매달리는 현상은 어머니 스스로의 가치관에 기초한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특별활동을 양육자인 어머니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를 넘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조기교육을 선택하게 만드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가치지향으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4. 특별활동 관련 선행연구

가. 특별활동 실태

특별활동 실태 연구 중 전국단위의 연구로는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연구(이미화·김은영, 2008)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전국 보육시설 1,003개소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였다.⁶⁾ 조사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시설 중 95.4%가 포괄적으로 정의한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53.0% 보육시설에서는 특별활동비나 교재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 종류는 1가지에서 10가지를 실시하는 시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중 2가지를 실시하는 곳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가지, 4가지, 1가지, 5가지 순이었다. 특별활동 참여 아동 비율은 만5세가 99.4%, 만2세 77.6%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았다. 한편 0세도 14.5%가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활동 참여는 선택보다는 의무로 하는 비율이 64.7%로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 담당자는 외부강사가 60.3%이며, 특별활동을 오전 보육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으며,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에 모두 하는 경우가 31.5%, 오후 보육시간에 하는 경우가 23.3%이었다.

셋째, 특별활동 실시 이유로는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모의 요구 때문으로 27.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 24.4%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특별활동 비용을 추가로 받을 경우 한 과목당 수납비용 평균은 15,591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 3가지 특별활동에 참가하고, 특별활동의 38%에 대해 특별활동비를 수납한다고 할 때,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약 18,000원 가량의 특별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다.

나. 특별활동에 대한 인식

1) 시설장의 인식

특별활동에 대한 학부모 및 시설장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별활동이 필요한가 또는 운영과 이용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시설장 입장에서 특별활동 인식에 대한 연구로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은 시설장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은 유아들에게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시설장들은 과도한 특별활동을 기본적인 학습

6) 이 조사에서는 특별활동을 기본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교육과정 이외의 별도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조사하였음.

태도를 익히기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끈기나 자율성, 문제해결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과도한 특별활동은 아동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의 부정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반면, 학습요령을 잘 습득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는 아동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려서부터 빨리 많은 것을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아들이 조기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이정화·정선아(2004)의 연구에서도 특기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별로 없지만 유치원 경영을 위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만 특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장들은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유치원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없으나 유치원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가시화할 수 있는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즉, 원장들의 유치원 교육에 대한 갈등과 모순이 특별활동 운영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는 특기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별로 없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특기활동을 다시 성찰해 보고 새롭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부모의 인식

박수진(2001)은 조기교육을 시키는 이유로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주위에서 시키니까가 1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습에 도움을 주기위해서가 17.4%, 자녀가 졸라서가 16.4%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순수 목적 중 하나인 아이의 소질개발을 위해 조기·특기 교육을 시키는 비율은 15.1%로 위의 이유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기·특기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은 시작시기가 너무 빠르다가 71.3%, 종류가 너무 많다가 88.8%, 비용이 부담 된다가 91.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이 현재의 조기·특기교육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범정(2005)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사립유치원 어머니들 394명을 대상으로 특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특별활동의 목적에서 유아들의 재능 및 소질 개발이 전체

응답자 중 58.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특별활동 운영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유아들에게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가 74.4%로 가장 많았으며, 그리고 어머니의 46.2%는 부정적 영향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별활동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9.8%로 가장 많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4.6%로 매우 낮았다.

최근 홍순옥·허명순(2007)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 5세 유아의 부모 643명 조사 결과, 하층의 경우 교육과 보육의 연계적 측면에 높은 인식을 나타냈는데 이는 교육과 보육이 연계됨으로써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맞벌이 부모의 경우도 보육의 연계와 교육비 경감의 이유로 특별활동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에서 하원한 후 유아가 부모를 만나는 시간까지 최소 1시간에서 5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유아를 혼자 방치 할 수 없어 학원 등 또 다른 특별활동 기관으로 유아를 보내게 되면 타기관의 높은 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까지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방과 후에도 그대로 남아 특별활동을 하게 되면 무상 또는 타 학원에서 받는 교육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특별활동을 시킬 수 있고 부모가 데려가는 시간까지 담임선생님의 보호아래 있게 되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시설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유아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모들이 특기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학부모들은 특기활동의 실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기활동을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요약된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는 2001년 박수진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특기활동을 시키는 이유가 '주위에서 시키니까'라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응답들에서 아동의 재능 및 소질 계발 혹은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해주기 때문 등의 의견들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들이 실제로는 예술적이고 정서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영어나 한글 등의 인지적인 교육에 치중하는 이중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결국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초등학교 정규수업과 연계되고 학습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겠다.

3) 교사의 인식

조현주(2007)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40곳의 사립유치원 200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특별활동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정과의 연계 속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절대 불가의 입장을 표명한 교사는 없었다. 특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아들을 학원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 유치원 원아모집에 도움이 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특별활동 실시 집단 규모가 크다는 것, 유아개개인의 발달 수준이나 흥미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 타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별활동을 실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유아교육의 통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활동의 내용, 지도교사의 자질 및 지도 방법 순으로 지적하였다. 유치원 특별활동 선택의 바람직한 기준으로는 유아의 발달적 수준이나 흥미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80.4%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특별활동이 실시될 경우 원하는 교육방향은 유치원 정규교육을 보충 및 확장해줄 수 있는 방향이 3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유아의 특기 및 재능 계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향이 36.5%로 나타났다.

다. 특별활동의 영향

특별활동이 유아들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이정화·정선아, 2004, 우남희·백혜정·김현신, 2005)는 조기 사교육이 유치원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조기에 사교육을 많이 받은 유아일수록 학습요령을 잘 습득하였고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주의산만 및 끈기 부족, 이기적 성향,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의식, 자율성 부족 등을 들었다. 즉 원장들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기본적인 학습태도를 익히기 위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끈기나 자율성, 문제해결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유치원 원장들은 유아들이 조기 사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분야의 지식이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고 또래보다 뛰어난 특기나 재능을 보인다고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법정(2005) 연구에서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유아들에게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5. 요약 및 시사점

영유아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보육과정은 무엇이며,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들은 연령단계별로 발달특성이 다르므로 양육자나 교육자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 이상의 것을 강요하기보다는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적 요구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영유아교육관련 전문가들은 특별활동이 영유아시기에 적합한 통합적인 형식으로 제공되지 않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원장과 교사들 모두는 현재의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많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특별활동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면 발달적으로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별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한 운영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강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종희(2002)의 제안처럼 통합보육과정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통합보육과정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보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특별활동의 근원인 부모의 교육열을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 이외에, 한국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유지와 상승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으로 행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별활동에 관하여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의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러 조사 연구들이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계속 실시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들은 보육시설 특별활동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하고, 시설장들도 원아확보 및 운영상 이를 필요불가결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다수가 특

별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한 자녀의 흥미도를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전인적인 교육에 따른 교육수준과 효과보다는 기능적인 교육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에 부담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가중되었다.

Ⅲ. 외국의 보육과정과 특별활동

제3장에서는 외국의 영유아기 보육원칙과 특별활동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일본, 스웨덴,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보육의 역사를 살펴보고 보육과정과 특별활동의 운영 실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특별활동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

가. 보육의 역사

일본의 보육제도는 1875년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면서 아동들이 수업을 받는 동안 그들이 데려온 어린 동생을 돌보아 주는 시설이 생기면서 보육시설이 시작되었고, 산업의 발달로 기혼여성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개설하면서 보육시설이 증가하게 되었다. 1904년에 보육시설을 '보육소'로 개칭하였고, 1947년에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보육시설이 공적인 복지시설로서의 법적으로 정비되어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0년의 1.5쇼크로 소자화에 대한 긴급하고도 실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남녀 공동참여의 사회실현을 위한 정책과의 관련하여 이즈음까지 보육소 억제 정책을 취하고 있던 정부의 방침이 적극적인 육아지원책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1995년 엔젤플랜(Angel Plan), 2000년 '신엔젤플랜(New Angel Plan)'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보육시책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1998년에 유치원과 보육소의 공용화 등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 시설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강민정·이기숙, 2009).

일본의 보육시설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의 최근 보육정책의 주안점은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를 보육해 줌으로써 부모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대기아동제로작전(新待機児童ゼロ作戦)'(厚生労働省, 2009)을 펼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육소에 들어가고자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육시설을 긴급하게 정비하여 만3세 미만 아동의 10년 뒤 보육시설 이용률을 지금의 20%에서 38%까지 높이고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주안점에 따라 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 보육과정 운영

1)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과정

가) 보육목표 및 보육과정

일본의 보육소 보육지침은 보육소를 '아동의 전 인생에 걸친 인간형성에 있어서 극도로 중요한 시기에, 그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지내는 장소'로 정의하고 정서 안정,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 타인에 대한 애정·신뢰와 도덕성, 생명과 자연 및 타인에 대한 관심을 통한 지적 발달 등을 보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즉, 일본 보육은 자연스러운 발달과 관계성 증진, 자아 존중감 및 자율성 등은 아동이 현재의 삶을 가장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희망적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원칙 하에서 실시되고 있다(표 III-1-1 참조).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방법은 보육목표를 구체화시키는 수단이 되는데, 아동 개개인을 존중하는 개별성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물론 개별 아동의 보호, 애정, 리듬과 전체 집단에 각기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가는 보육 서비스의 목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보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방법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아동 개개인의 상황,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아동이 안심과 신뢰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을 주체로 한 생각이나 요구를 수용한다. 둘째, 아동의 생활리듬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자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셋째, 아동의 발달을 이해하고, 개별 아동의 발달과정에 따라 보육하며, 이때 아동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한다. 넷째, 아동이 자발적·의욕적으로 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고, 아동의 주체적인 활동이나 아동 상호간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 특히 유아기에 알맞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육한다. 다섯째, 개별 아동의 보호자 상황이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각각의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생활 등을 배려하며 여러 기회를 통해 적절하게 지원한다.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일본의 보육철학은 개별 아동 자체와 지속적인 발달이라는 연속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보육과정에 있어서도 개별 아동과 발달의 연속성을 파악한 후 각 보육소가 창의적으로 보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동의 심신발달과 활동실태 등과 관련된 개인차를 무시하지 않고 개별 아동의 정서상태를 이해하고 지원할 것 또한 권장하고 있다.

〈표 III-1-1〉 일본의 보육목표

내용
1. 충분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섬세한 환경 아래,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동의 여러 욕구를 충족하고, 생명의 보호 유지 및 정서의 안정을 도모한다.
2. 건강, 안정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과 태도를 기르고, 심신의 건강의 기초를 기른다.
3.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마음을 기르고, 자주자립과 협조의 태도를 길러 도덕성의 기초를 기른다.
4. 생명과 자연, 사회의 여러 일들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기르고, 이것들에 대한 풍부한 감성과 사고력의 기초를 싹트게 한다.
5. 생활 속에서, 언어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기르고, 말하고, 듣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풍성하게 양육한다.
6. 여러 체험을 통하여, 풍성한 감성과 표현력을 기르고, 창조성의 싹을 기른다.

자료: 일본 보육소 보육지침.

따라서 보육소의 보육과정 운영도 개별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발달과정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동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면서 반응적인 접촉과 대화를 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과정이 아동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고, 보육교사 등과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 개별 아동의 주체적 활동과 자발성, 탐색의욕 등을 높임과 동시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 발달특성과 보육지침

일본 보육소보육지침에는 아동발달 특성과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아동 개개인의 심신상태를 파악하여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육소보육지침에는 8단계(7)로 구분하여 각각의 연령 단계에 따라 신체, 언어, 놀이와 정서 및 자아 정체성 관련 기본적인 발달 특성을 정의하고, 발달특성에 따라 연령에 따른 발달과정과 연계된 과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3세를 기준으로 하여 3세 미만아와 3세이상아에 대한 기본적인 보육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달과정에 따라서, 3세 미만아는 아동의 발달과 관련하여 온 몸을 사용하는 놀이, 친구와 관계 맺는 방법, 자발적 활동 등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3세 이상아에 대한 과제는 놀이에 있어서도 신체 모든 기능을 활용할 것, 갈등에 대한 보육교사의 해석, 놀이를 통한 규칙 인식, 언어 발달을 위한 질문과 응

7) 8단계는 6개월 미만, 6개월에서 1년 3개월 미만, 1년 3개월부터 2세 미만, 그리고 2세, 3세, 4세, 5세와 6세로 구분하고 있음.

대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연령으로 구성된 조나 그룹으로 한 보육은 개별 아동의 생활이나 경험, 발달과정 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과 환경 구성이 되도록 배려한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연령별 발달특성에 따른 보육지침

구분	내 용
3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감염증에 걸리기 쉬운 시기이므로, 몸의 상태, 기분, 식욕 등 일상 상태를 충분히 관찰한다. 적절한 판단에 근거한 보건의적인 대응을 하도록 명심한다. B. 식사, 배설, 수면, 의류의 탈착, 주위를 청결히 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에 관해서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하고, 아동이 자신 스스로 하려는 마음을 존중해준다. C. 탐색활동을 충분히 행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하며,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온 몸을 사용하여 노는 놀이 등 여러 놀이를 도입한다. D. 아동 자아의 육성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수용함과 동시에, 보육사 등이 중간역할을 하여, 친구들의 기분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친절하게 전달한다. E. 정서의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촉구한다. F. 담당 보육사가 교체될 경우, 아동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발달과정에 유의하며, 직원 사이에 협력하여 대응한다.
3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습관이나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배려한다. B. 아동의 정서가 안정되고, 자기를 충분히 발휘하며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끝까지 일을 이루어내는 기쁨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다. C. 여러 놀이 중에, 전신을 사용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함을 통하여, 신체의 모든 기능의 발달을 촉구하는 것에 유의하며, 아동의 흥미나 관심이 밖으로(외부) 향하도록 한다. D. 싸움 등 갈등을 경험하면서 점차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E. 생활이나 놀이를 통하여, 규칙이 있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F. 자연과의 접촉에서 아동의 풍부한 감성이나 인식력, 사고력과 표현력이 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자연과의 관계를 심화하도록 연구한다. G. 자신의 기분이나 경험을 자신 나름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유의하여, 아동의 질문에 응대하는 것을 명심한다. 또한 아동이 친구들과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대화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한다. H. 느낀 것이나, 생각하는 것, 상상했던 것 등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육에 필요한 소재나 도구를 비롯해 환경의 설정에 유의한다. I. 보육소의 보육이, 초등학교 이하의 생활이나 학습의 기반을 육성한다는 것에 유의하며, 유아기에 알맞은 생활을 통하여, 창조적인 사고와 주체적인 생활태도 등 기초가 자랄 수 있도록 한다.

자료: 일본 보육소 보육지침.

2) 보육시설 일과운영

보육소는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가정과의 면밀한 연계 하에서, 아동의 상황과 발달과정을 근거로, 보육소의 환경을 통하여, 양호와 교육을 일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특성으로 한다. 보육소의 보육과정 구성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각 보육소의 보육의 방침이나 목표를 바탕으로 앞서 제시한 아동발달과정을 바탕으로 보육소 생활 전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실태, 아동과 가정의 상황, 보육시간 등을 고려하고, 아동의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셋째, 아동 생활의 연속성과 발달의 연속성에 유의하며, 각보육소가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보육할 수 있도록 편성한다.

이와 같은 보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에 따라서, 보육소, 유치원 중심형, 보육소 중심형, 통합형 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일과를 구성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소의 정규 일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이전 및 이후는 연장보육이 행해진다. 맡아주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대체로 만 1세 전의 아동은 오후 5시까지, 나머지 3세까지의 아동은 경우에 따라 1~2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저녁 7~8시 정도면 문을 닫는다. 동경도의 澁谷區 惠比壽의 성마리아보육원(聖マリアン保育園)⁸⁾의 하루일과를 예로 들면 <표 III-1-4>와 같다.

<표 III-1-4> 일본 성마리아 보육원 만 4, 5세반의 일과

시간	활동
8:00	등원
9:50	정리정돈, 화장실가기
10:00	아침모임(노래, 출석확인, 스티커 붙이기 등)
10:20	산책과 실내놀이
12:00	점심식사, 이닦기, 화장실가기, 잠옷 갈아입기, 낮잠
15:00	기상, 화장실가기, 옷 갈아입기
15:15	간식, 설정보육(교구만들기, 요리 등)
17:00	자유놀이, 특별활동(그림그리기, 체육활동 등)
18:00	저녁식사
18:15	간식, 하원

자료: 일본 聖マリアン保育園 <http://www.st-marian.co.jp>.

둘째, 유치원 중심형은 기존의 유치원에 보육 기능을 합한 것으로 단시간아가 대부분이고 소수의 장시간아도 보육한다. 중시간아를 설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오전

8) 자료: <http://www.st-marian.co.jp>

중의 보육시간은 조금 길어서 점심 식사 준비는 일반적인 보육소보다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낮잠시간이 조금 늦어지기도 한다. 유치원 중심형은 오전 중에 보육내용이 집약되어 단시간아가 귀가한 후의 보육은 '부가적인 것'이 되기 쉽다. 오전 보육은 유치원 교육요령으로, 오후 보육은 보육소 보육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셋째, 보육소 중심형은 기존의 보육소에 일부 유치원 어린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장시간아가 대부분이고 단시간아는 소수로 장시간아를 기본으로 하며, 일과는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과 놀이를 통한 보육으로 구성된다.

넷째, 통합형은 모든 어린이에 대하여 보육소 기준의 오후 4시 하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연장보육을 실시한다. 여름방학 등 장기 휴가 중에도 모든 어린이가 보육을 받는다.

다. 특별활동의 실제와 시사점

일본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다양한 교육을 진흥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공립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상당수의 사립보육시설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시설 특성화의 일환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 소도시인 후지오카(藤岡)시의 경우, 총 21개 보육시설 중 3곳의 공립 보육시설에서는 모두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18곳의 사립인 법인 보육시설 중 6곳에서 영어, 음악, 체조, 수영 등의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카라츠(唐津)시의 11개 사립인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도 이 중 9곳에서 특기·적성교육을 주력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다⁹⁾. 그러나 이는 보육프로그램 안의 단체 특별활동으로 학부모들의 별도 비용 부담이 없다. 지도교사는 주로 외부에서 초빙된 전문가이다. 원어민 교사가 실시하는 영어교실이 가장 많고, 그 외에 다도, 음악교실, 체육교실, 일본무용 등이 실시된다. 이러한 교육은 매일 15~20분가량 실시되는 것도 있지만 다도나 체육, 일본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월 2회 실시한다¹⁰⁾.

일본에서 영유아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한 내용(教育研究開發センター, 2005)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체 영유아의 57.5%가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다. 영유아들의

9) 자세한 내용은 http://www.city.fujioka.gunma.jp/f_kids/k_hoikuen.html 참조

10) 자세한 내용은 <http://karatsu-shakyo.or.jp/organ/nursery/index.html> 참조

특기·적성교육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영어회화와 같은 어학교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만 1세~3세의 경우에는 ‘월1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교재를 보내오는 통신교육’과 ‘수영교실’, ‘아동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자체 주최의 교실이나 동아리 활동’의 인기가 높고, 만 4세~6세의 경우에는 ‘월1회 정도로 정기적으로 교재를 보내오는 통신교육’, ‘수영교실’, ‘스포츠클럽·체조교실’, ‘영어회화 등의 어학교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기·적성교육에 있어서 2000년과 2005년의 5년간의 차이를 연령별로 볼 때, 만1세아 23.3%에서 25.1%, 만2세아 26.8%에서 37.3%, 만3세아 42.0%에서 50.9%, 만4세아 47.2%에서 54.9%, 만5세아 68.6%에서 75.1%, 만6세아 75.7%에서 85.5%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영유아 일인당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8,771엔이며 3세 11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한 월비용 분포는 <표 III-1-5>과 같다.

<표 III-1-5> 유아 일인당 특기·적성교육에 지출하는 월 비용: 3세 11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유치원	보육소	미취원
1000엔 미만	13.9	6.5	5.4	14.9
1000엔~5000엔 미만	35.7	19.3	32.2	38.5
5000엔~10000엔 미만	21.2	26.9	27.3	28.3
10000엔~15000엔 미만	11.3	18.3	12.8	7.9
15000엔~20000엔 미만	6.9	12.6	4.7	7.0
20000엔~25000엔 미만	3.4	5.1	5.9	2.2
25000엔~30000엔 미만	2.0	3.4	4.2	0.0
30000엔 이상	3.8	6.8	5.7	0.0
무응답	1.8	1.1	1.8	1.2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http://lifeplan.rokin.net/nfp/life/kyoiku/okeiko.html>

보육소 아동은 월 평균 특기·적성 교육비로 1000엔~5000엔 미만이 32.2%, 5000엔~10000엔 미만이 27.3%인 반면, 유치원 취원 아동은 5000엔~10000엔 미만이 26.9%로 유치원 취원 아동이 더 많은 특기·적성 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가 경험하는 특기·적성교육의 비율이 증가하고, 이를 위한 가계 지출을 하는 가운데 부모들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기관과 특기·적성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원 사이에서 자녀들을 위해 보다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상담·안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2. 스웨덴

가. 보육의 역사

스웨덴 보육은 초기에 부모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성격이 컸으나 지금은 부모의 권리보다는 아동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스웨덴 보육 제도의 역사는 19세기 중반에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 저소득층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생겨난 탁아소(day nursery)와 작업쉼터(work shelter), 유아학교 등에 근간을 두고 있다. 스웨덴 유아학교는 1836년 스톡홀름에서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적 동기 및 교육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1950년대까지 존속하였으며, 후에 탁아소나 유치원으로 전환되었다(신동주·Engdahl, 2006). 이 기관들은 주로 개인이나 자선단체에서 운영하였으며, 1940년대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조성연 외, 2006). 1970년대 들어 여성노동력의 필요성에 따른 보육수요의 급증으로 국가에서 보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육체제를 정비하면서 공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후 출산율이 높아지고 취업여성들도 더 많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동반 상승하면서 1990년대 보육시설이 대폭 증가하였다.

1996년 보육담당부서가 보건사회부에서 교육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보육서비스에 관한 법도 1998년 사회복지법에서 교육법(Education Act)으로 바뀌어 학교법(School Act)에 따라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구분을 없애고, 만1~6세아를 위한 '포르스콜라(forskola: pre-school)'와 만 6~7세를 위한 '유아학급(pre-school class)'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체제 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학교법에 따라 육아 관련 업무가 28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스웨덴의 보육과 유아교육서비스는 민족, 가족, 경제 및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첫 단계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들이 직업이나 학업과 자녀양육을 잘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스웨덴은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급휴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육아를 위해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보육은 공공의 책임이며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일로 여겨 대부분의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주거나 무료화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는 부모가 직업이 없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보육시설을 주당 일정시간 이용할 수 있다.

나. 보육과정 운영¹¹⁾

1)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과정

가) 보육·교육과정 및 보육목표

스웨덴 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1998년 시행된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핵심적으로 ‘아동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소양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려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1998; 한유미 외, 2005에서 재인용).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학습하게 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웨덴의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은 일반적인 보육시설인 피르스콜라에서 가르쳐야 하는 기본 가치(fundamental values), 피르스콜라의 과제(task), 교육목표(goals) 및 지침(guidelines)을 폭넓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Alvestad & Samuelsson, 1999; Skolverket, 2000).¹²⁾ 우리나라 유치원 교과과정과 같이 각 영역별 교육 내용이나 궁극적인 목표만을 제시한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는 아동 개개인의 성과를 진단하거나 평가하지 않는다(Skolverket, 2004a).

그런 점에서 피르스콜라가 표방하는 보육은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어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피르스콜라 보육 목표는 <표 III-2-1>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구체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느슨하고 다소 추상적인 목표 달성은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에 필요한 다섯 가지 체계의 유기적 연관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육 체계를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는, 규범 및 가치, 보호와 학습의 통합, 아동의 능력 배양, 피르스콜라와 가정의 협력, 지역사회 센터와 협력이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1998; 한유미 외, 2005에서 재인용).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규범 및 가치의 문제는 피르스콜라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민주적인 가치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자극해야 한다는 것이다.

11) 스웨덴의 보육과정은 한유미 외(2005)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문무경 편(2006)을 참조함.

12) www.skolverket.se

〈표 III-2-1〉 피르스콜라 보육목표

구분	내용
3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은 피르스콜라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 아동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배운다. - 아동들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한 언어자극을 받는다. - 아동들은 창의적 활동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다. - 아동들과 교사가 함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아동들은 독립된 개체로 발달할 수 있다. - 아동들은 각자의 요구와 흥미에 맞는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3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들은 안정적, 독립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 아동들은 흥미를 유발하는 즐거운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 아동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운다. - 아동들은 개인의 수준에 따라 사회적, 언어적, 신체적, 지적 발달을 할 수 있다. - 아동들은 교육활동에 참여해서 스스로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아동들은 피르스콜라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할 수 있다.

자료: 한유미 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학지사.

두 번째는 아동을 보호하고 기르고 교육하는 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피르스콜라의 교육적 활동들은 놀이, 창의성 및 학습의 즐거움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아동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동의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동의 능력이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능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협동 활동 및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피르스콜라는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 및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도와줘야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 및 피르스콜라의 환경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힘써야 한다. 네 번째는 피르스콜라와 가정간의 협력이다. 부모는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의 범위 안에서 피르스콜라의 활동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피르스콜라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피르스콜라가 지역사회에 있는 레저타임센터와 협력하는 것이다. 협력은 아동의 총체적 발달 및 미래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이상과 같이 취학전 교육과정(Lpfö)의 보육목표는 아동의 발달 영역별로 나뉘어 제시되지 않고, 아동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가치와 덕목, 민주시민 의식을 일상생활 속에서 터득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규

범 및 가치, 보호와 학습의 통합, 아동의 능력 배양은 피르스콜라의 목표이고 가정 및 지역사회 센터와 협력은 활동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나) 보육프로그램의 성격

스웨덴 보육은 아동을 자신의 연령에 맞는 권리와 책임을 가진 전인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아동이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을 수용하는 동시에 스웨덴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고 보존하도록 사회화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에 따라 스웨덴의 여러 피르스콜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성은 비형식적인 활동, 놀이 중심의 활동, 생활중심의 활동, 자연친화적 활동, 부모의 적극적 참여라고 볼 수 있다(한유미 외, 2005). 이 중에서 비형식성, 놀이 중심, 생활중심의 세 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피르스콜라 역시 취학전 교육과정(Lpfö 98)에 따른 목표와 연관되어 미리 계획된 활동을 아동들에게 제공한다. 즉, 교사는 교육목표에 적합한 활동을 계획하지만 아동과 구체적 활동을 할 때에는 최대한 아동의 요구와 흥미 중심으로 하는 비형식적인 활동들을 조직한다. 피르스콜라에서는 아동들에게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구조화된 활동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놀이를 통해서 또는 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거나 아동이 스스로 원하면 글자를 써보게 하는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피르스콜라에서 놀이는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피르스콜라 대부분의 활동이 자연스러운 놀이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난감들이 여러 장소에 있어서 어디서든 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이 스스로 하고 싶은 놀이를 하도록 하며, 가급적 아이들의 놀이가 방해받지 않는 차원에서 활동을 계획하고자 한다. 피르스콜라에서의 놀이는 교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아동 스스로 하는 놀이로, 성인이 구성한 구체적인 활동 안에서 선택하여 노는 우리나라 자유선택놀이와는 다르다. 피르스콜라가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동의 발달 및 학습에 있어서 놀이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때문이다. 13)

세 번째, 생활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통한 스스로 학습이 중심이 된다. 피르스콜라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배우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3) 아동은 다양한 형태의 놀이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문제해결 능력, 상상력, 통찰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상징적 사고 능력을 발달시키고, 타인과 협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음. 또한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요하는 게임을 통해 자신의 경험 및 느낌을 표현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

아동에게 의식주와 관련된 작업을 직접 해보게 한다는 방침 하에 아동에게 설거지를 하게 하거나 적합한 설비를 갖춘 부엌이나 바느질 장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행하면서 학습한다는 것으로, 실생활 교육을 위해서 실물을 준비해 주어야 한다는 몬테소리 철학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번째, 보육활동 중 자연친화적 활동이 주를 이룬다. 유아교사들이 매일 실외활동을 하고 자연을 체험하고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2) 보육시설 일과운영

스웨덴의 노동정책은 개인 단위 중심의 정책으로 모든 남녀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향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피르스콜라는 종일제 보육을 원칙으로 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운영되며, 공립 피르스콜라의 경우 대개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전후 연장보육 등 부모와 아동의 요구에 따라 보육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오전 6시 30분에 문을 여는 피르스콜라도 반 정도 된다.¹⁴⁾

피르스콜라는 전체 정원이 평균 42명 정도이고, 학급 수도 2~3개에 불과하며, 학급당 아동수는 평균 17.4명이고, 어린 아동일수록 학급당 아동수가 더 적다. 수업은 '형제집단(sibling group)'이라 불리는 혼합 연령집단을 구성하여 팀티칭(team teaching)으로 이루어지며, 대체교사나 시간제교사를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피르스콜라의 하루 일과 운영에 대해 예테보리 지자체내의 기관을 예로 들면 <표 III-2-2>와 같다(한유미 외, 2009).

<표 III-2-2> 예테보리시 피르스콜라의 하루 일과

시간	내용
06:30 ~ 08:00	등원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30	오전 실외놀이
10:30 ~ 11:00	대집단 활동
11:00 ~ 11:30	자유선택활동
11:30 ~ 13:00	점심식사
13:00 ~ 14:30	오후 실외놀이
14:30 ~ 15:00	오후 간식
15:00 ~ 16:30	책 읽기 및 조용한 놀이, 낮잠 자기
16:00 ~ 18:00	귀가

자료: 한유미 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14) <http://sirisskolverket.se>

피르스콜라의 하루 일과는 다수의 교사와 함께 자유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과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자연을 즐기는 방식으로 보육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자유선택놀이 활동시간에는 아동들이 여러 방으로 흩어져 다양한 활동을 하며 낮잠 시간에도 조용하게 노는 아동도 있다. 아동들의 귀기는 오후 4시부터 자유롭게 이루어지는데, 늦게까지 남아 있는 아동들은 준비된 공작놀이나 점토활동 같은 미술활동을 하기도 한다.

다. 특별활동의 실제와 시사점

스웨덴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인지지향적인 수업이나 특기교육을 위한 특별활동과 같은 별도의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놀이 중심의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은 전인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과목 형태로 운영되는 특별활동 운영 방식은 아동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피르스콜라의 보육 과정 운영 원칙과 거리가 멀기도 하다. 특히, 보육과정이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갖는다고 할 때, 자녀들이 보육시설에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마음껏 놀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는 스웨덴 부모의 가치관 또한 피르스콜라의 일상적이고 비형식적 보육과정 운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놀이, 일상, 비형식성은 피르스콜라의 양질의 보육환경의 산물이기도 하다. 야외놀이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큰 피르스콜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활동으로 지칭되는 숲체험 활동 등이 이미 일상적인 보육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천연 소재 블록을 이용한 특별활동을 피르스콜라에서는 일상적인 놀이 활동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육과정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에 충분한 것이었을 때, 특별활동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3. 영국

가. 보육의 역사와 철학

영국은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은 어머니의 몫이고, 아버지가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

입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녀양육은 본질적으로 가족문제라고 여긴다. 현대에 이르러 기혼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남성들도 이전보다 자녀를 더 많이 돌봐주고 있지만 여전히 자녀양육은 여성들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 보육서비스는 주로 저소득 가정이나 문제를 겪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취업모들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적인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영국의 보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기관이 주도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아동보육제도가 가장 뒤늦게 발달하고 있는 나라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각각 독자적인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영국 정부의 영유아보육정책 방향은 유아를 가난에서 탈피시키고, 부모의 취업을 위한 보호기관을 확충하며, 조기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초기 학습에 의한 사회적인 소외를 극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교육고용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의 아동국(Minister for Children)에서 총괄하는 등 체제 개편을 단행하고, 영유아기 서비스 증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1998년 5월, 0~14세까지의 아동과 16세까지의 장애아를 위한 '국가수준의 아동보육전략(The National Childcare Strategy Green Paper: Meeting the Childcare Challenge)'을 발표하고 범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60개 극빈지역을 중심으로 1999년 1월 '슈어스타트 지역프로그램(Sure Start Local Programs)'을 시작하였다. 또한 1999년 교육과 보육 및 여타의 관련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기 수월성센터(Centers of Early Years Excellence)'를 설치하였다(문무경, 2007). 이후 2003년 영국정부는 아동을 위한 통합개혁안인 'Every Child Matters'를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 아동법(Children Act 2004)과 2006년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을 개정하였다.

2010년까지 아동빈곤을 퇴치하겠다는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라 2004년 12월에 '아동보육 10개년 계획(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4월 교육기술부, 노동연금부, 재무부, 통사산업부가 공동으로 '부모를 위한 선택, 아동을 위한 최상의 출발(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라는 취지하에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아동 및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보육 10개년 실행계획(Action Plan for the Ten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영국 내 모든 지역에 최소한 1개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로

총 3,500개 이상의 슈어스타트 아동센터 설립이 포함되었으며 기존의 조기 수월성 센터를 슈어스타트 아동센터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

1) 아동 발달과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아동, 특히 빈곤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 건강 및 학습능력을 증진시키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단기적 목표 하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영국 내 하위 20% 계층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임신 중인 부모와 14세(장애가 있을 경우, 16세)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4세 이하 유아 30%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었다.¹⁵⁾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된 67개 아동센터(Children's Centre), 107개 조 기우등센터(Early Excellence Center) 및 기존에 있던 학교, 양육시설, 시민단체들은 524개 '슈어스타트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의 특성은 지역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전국의 모든 아동센터가 유아교육 및 보육, 가족지원, 보건, 정보제공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미취학 아동은 만4세가 될 때까지 조기 유아교육, 가족지원, 영양과 건강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만, 해당 지역의 학교, 양육시설, 시민단체 등의 상황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 방식은 다양하다.

2) 프로그램 운영

슈어스타트 활동은 아동센터와 연관 시설들에 의해서 운영된다. 영유아와 관련해서 2005년 11월 123만여개의 보육시설이 슈어스타트 활동 시설로 등록되어 있다.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모든 3~4세 유아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중에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을 연중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조기교육(Early education)을 위하여 3,4세 유아는 한 주에 12.5시간 동안 무상 교육을 한다.

이 때, 모든 조기 교육기관은 교육 커리큘럼으로 기초단계교육과정(Foundation

15) <http://www.surestart.gov.uk>

Stage Curriculum)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출생부터 3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Birth to Three Matters)과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교육과정인 기초단계 교육과정(Foundation Stage Curriculum)이 있다. 기초단계 교육과정은 2002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는데, 아동의 자발적인 놀이를 발달시키고 확장시킨다는 것과 계획된 놀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을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 밖에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동센터에는 언어치료사(Language & speech therapy)가 상주하고, 발달이 느린 취학 전 아동들에게 가정 방문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는 가정방문 간호사와 교사 등이 활동한다.

다. 특별활동의 실제와 시사점

영국의 대부분의 유아원(nursery school)나 보육시설(creche) 등에서는 별도의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면, 초등학교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위해 특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기관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불어나 독어, 스페인어 등을 수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별활동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 수업이 진행된다. 즉, 다양한 언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한 예로, 영국의 스코틀랜드 주 에딘버러시(Edinburgh)의 한 유아학교(Grassmarket nursery school)에서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1999년부터 매주 아동들에게 간단한 불어수업을 진행하는데 이는 8명의 소집단으로 진행된다.¹⁶⁾ 부모들의 특별한 비용 지불 없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이는 이후의 학교 수업과의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수업내용은 주로 노래와 손가락 동요와 게임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수업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불어만 사용한다. 수업은 1명의 불어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

영국에서의 특별활동은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위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별도의 인지중심이나 언어, 악기,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 등은 수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특별활동은 실시되고 있지 않다. 영국의 외국어 교육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학령전 아동들의 특별한 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활동보다는 초등학교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16) <http://www.grassmarketnursery.co.uk>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요약 및 시사점

각국의 특별활동은 보육의 역사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먼저, 아동기의 접근 방식에 있어 사회문화적 전통의 차이가 있다. 아동기를 그 자체로 누려야 하는 가치 있는 시기로 볼 것인가 이와 반대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전통의 차이는 상이한 보육과정의 목표를 생산한다.

스웨덴에서는 아동기를 아동의 호기심과 자발성 그리고 아동다움이 육성되어야 하는 특별한 시기로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학교생활이나 성인세계를 위한 '준비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반면, 일본, 영국은 개별 아동의 성과를 중요시한다.

물론 성과를 중요시하는 나라와 아동기 자체를 중요시하는 나라 모두 영유아기에 신체 발달, 셈 능력, 인지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되는 내용은 아동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놀이중심 활동과 교육을 중시한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각각의 사회가 영유아기에 부여한 과제에 따라 보육과정과 방법을 구성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각 연령별 발달적 요구와 그에 따른 과업을 설정한 일본은 결과적으로 발달 과업 성취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보육과정이 아동 개인의 개별성에 충실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 성취에 강한 욕구를 가진 부모는 사립 보육소를 중심으로 더 높은 발달 과업 성취를 위한 특별활동을 요청한다. 반면, 민주시민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스웨덴은 놀이 중심의 통합 보육을 표방할 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의 선택과 자율 및 편견없는 관계맺기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일본의 보육과정과 차별적이다. 스웨덴 보육에서 특별활동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아동의 일상이 곧 학습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특별한 과정이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두 나라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의 사회적 적응 및 성취가 주요 과제인 영국에서는 특별활동은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별도의 인지중심이나 언어, 악기, 스포츠 등의 다양한 활동 등은 수업의 일환으로 있다.

IV. 특별활동 운영 현황

본 장에서는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시설조사 원자료와 보육시설장 면접 조사를 통해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와 운영 방법, 원인 및 특별활동 운영 사례 등의 구체적인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1. 특별활동의 실시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다. 2009년 현재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한글, 수학, 과학 등의 인지 영역과 미술, 음악, 체육 등의 예체능 영역, 교구를 이용한 영역 및 외국어 영역 등에서 100여종 이상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인지 능력 또는 창의성 개발 영역으로 한글과 수학, 과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글 프로그램은 한글 글자를 배우는 수준에서, 웅변이나 동화구연 등의 말하기와 책이나 신문 등을 통한 글쓰기 지도 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수학 역시 셈을 하는 방법을 놀이나 주판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도입되었고, 과학은 각종 실험기구를 활용하는 창의력 학습과 동·식물을 직접 키우는 생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예·체능 영역은 미술, 음악,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미술은 그리기와 만들기, 종이접기뿐만 아니라 도자기 공예나 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고 체육은 신체 운동 또는 각종 기구를 활용한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발레나 무용, 댄스스포츠, 요가, 태권도, 검도 등이 운영된다. 드물게 지역의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수영, 인라인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음악도 피아노나 바이올린 또는 장구 등과 같은 전통 악기 한 가지를 배우는 형태뿐만 아니라 각종 리듬 악기들이나 수십 가지의 국내외 악기 등을 모두 체험하고 합주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한다.

외국어 영역은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등의 외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 있고 영어 수업도 게임이나 챗트를 통해 기초 단어를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영어 뮤지컬 학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구 이용 프로그램은 선진국에서 수입한 수십 가지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고, 그 밖에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법이나 비데교육법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예절이나 종교수업과 같은 내용이 특별활동 프로그램화 되어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표 IV-1-1 참조).

〈표 IV-1-1〉 특별활동 영역별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한글	글짓기(논술), 학습지 동화구연, 웅변, 한글 플래시 카드, 독서지도, 말하기 지도 보니또(독후표현활동)
수학	학습지, 수학교수, 놀이수학, 주산
과학	과학 실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창의력 과학, 요리
미술	그리기, 만들기, 종이접기, 점토(칼라믹스 등), 플레이아트, 도자기 공예, 통합미술, 미술치료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국악(장구, 소고, 전래동요), 유아음악 일반, 유리드믹스, 리듬악기, 오르프, 킨더뮤직, 아마테우스 핸드벨
체육	체육 일반, 태권도, 택견, 발레나 무용, 유아체조, 수영, 인라인, 댄스스포츠, 키즈 요가, 검도
과학	과학 실험, 친환경 생태 프로그램, 창의력 과학, 요리
외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교구이용	프뢰벨, 오르다, 레고, 몬테소리, 가베(은물), 텔터 샌드, 시찌다, 하바, 마그네, 버그박사, 몰폰, 큐빅, 색도형, 피타고라스, 바오피스, 피아제, 도트카드놀이, 케이빅스, 도미노
기타	컴퓨터, 다도, 바둑, 한문, 예절, 전래놀이, 베이비 마사지, 종교수업(인성교육), 통합교과형 학습지, 북아트, 브레인 놀이, 팻찌아이, 프로젝트, 주말농장, 덩동댕(창의력), 비데교육, 아기탄생(글레도만) 호크마, 오감발달

자료: 이미화 김은영(2007)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함.

나. 프로그램 개설 현황

1) 특별활동 운영 비율

보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현황은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설은 95.4%, 실시하지 않는 시설은 4.6%에 불과하다. 별도로 비용을 수납하여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시설은 53.0%,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은 42.4%로 나타나, 절반 정도의 보육시설에서 별도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실

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유형별로는 가정보육시설에서만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유료로 운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여부와 비용유무

단위: %(개소)

구분	실시함		실시안함	계	(수)
	유료	무료			
전체	53.0(532)	42.4(425)	4.6(46)	100.0	(1,003)
시설유형					
국공립	72.7(48)	22.7(15)	4.5(3)	100.0	(66)
법인	62.9(44)	35.7(25)	1.4(1)	100.0	(70)
부모협동	-	-	100.0(1)	100.0	(1)
민간개인	63.0(272)	35.0(151)	2.1(9)	100.0	(432)
직장	50.0(6)	50.0(6)	-	100.0	(12)
가정	38.4(162)	54.0(228)	7.6(32)	100.0	(422)
규모					
20명 이하	38.4(179)	53.9(251)	7.7(36)	100.0	(466)
21~39명	60.2(136)	37.2(84)	2.7(6)	100.0	(226)
40~65명	68.7(101)	29.9(44)	1.4(2)	100.0	(147)
66명 이상	70.7(116)	28.0(46)	1.2(2)	100.0	(164)

자료: 이미화 김은영(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시설에서 별도 비용을 받고 실시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응답한 시설당 2.39개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민간보육시설이 2.63개로 가장 많았다. 가정보육시설 2.39, 법인보육시설 2.21, 국공립보육시설 2.06, 직장보육시설이 1.94순으로 나타났다.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IV-1-3>과 <표 IV-1-4>와 같다. 별도 비용을 받고 유료로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보육시설 중, 영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수는 2개인 시설인 34.5%로 가장 많았으며, 3개 25.6%, 1개 25.1%, 4개 9.2%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1개와 2개가,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2개와 3개가 많았다. 시설규모별로는 80명 미만 보육시설은 2개와 3개가 많았고, 80인 이상 보육시설은 1개와 2개가 많았다. 유아 대상 특별활동 프로그램 수를 살펴보면, 3개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2개 23.2%, 4개 18.0%, 5개 10.5% 1개 9.8%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2개와 3개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민간보육시설은 5개 이상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는 80명 이상 보육시설의 5개 이상 운영 비율이 80인 미만 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IV-1-4 참조).

〈표 IV-1-3〉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 - 영아

단위: %(개소)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계	(수)	$\chi^2(df)$
전체	25.1	34.5	25.6	9.2	3.5	2.1	100.0	(1,855)	
시설유형									
국공립	36.3	34.9	19.1	7.4	1.4	0.9	100.0	(215)	
법인	35.0	32.2	19.8	6.8	4.5	1.7	100.0	(177)	
법인외/민간개인 /부모협동	18.4	32.9	29.3	11.7	4.0	3.7	100.0	(656)	92.3(32)***
가정	23.8	34.5	27.9	8.5	4.0	1.3	100.0	(684)	
직장	34.2	45.5	13.0	6.5	0.8	-	100.0	(123)	
규모									
20명 이하	23.8	34.5	28.0	8.3	4.0	1.4	100.0	(701)	
21~39명	20.5	36.7	24.1	12.6	3.6	2.5	100.0	(365)	
40~79명	26.6	34.4	27.5	8.1	2.2	1.2	100.0	(418)	251.6(24)***
80명 이상	30.5	32.3	20.5	8.9	4.0	3.8	100.0	(37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자료 원자료임.

〈표 IV-1-4〉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수 - 유아

단위: %(개소)

구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계	(수)	$\chi^2(df)$
전체	9.8	23.2	30.9	18.0	10.5	7.5	100.0	(1,834)	
시설유형									
국공립	8.9	24.2	33.1	16.7	9.6	7.5	100.0	(281)	
법인	9.9	25.9	27.6	19.4	9.5	7.8	100.0	(232)	
법인외/민간개인 /부모협동	8.0	19.8	30.5	19.7	11.9	10.1	100.0	(874)	80.9(20)***
가정	19.6	28.7	31.3	10.9	7.9	1.5	100.0	(265)	
직장	5.5	26.4	33.0	20.9	10.4	3.8	100.0	(182)	
규모									
20명 이하	19.6	28.8	30.5	10.9	7.7	2.5	100.0	(285)	
21~39명	10.4	25.0	28.4	19.8	9.0	7.4	100.0	(444)	
40~79명	6.7	23.4	32.3	19.0	11.4	7.1	100.0	(563)	80.1(15)***
80명 이상	7.4	18.5	31.7	19.4	12.4	10.7	100.0	(542)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자료 원자료임.

특별활동에는 아동 특성과 시설장의 철학이 영향을 미친다. 보육아동이 영아이거나 시설장의 보육철학이 놀이 중심의 통합적 보육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실시하고자 한다.

자아 개념, 나를 사랑하는 마음, 친구를 배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적응능력, 규칙을 따르고 규칙을 내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 무언가가를

이루어 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유아기에 필수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보다는 통합주제, 놀이 중심이 더 필요하다. (시설장 사례14)

특별활동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갖는 시설장은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또래와의 관계, 뇌 구성능력, 언어표현능력 등등의 복합적인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설 운영이 안정적이어서 보육교사가 통합보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정 개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시설 내에서 수업 연구 학습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등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일부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오후 시간에 주변의 학원버스가 보육시설 앞에 장사진을 이루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2) 특별활동 과목별 운영 비율

특별활동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과목은 영어로 전체의 61.8%의 시설이 영어 특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체육 38.4%, 미술, 36.1%, 음악 33.3%, 기타 21.9%, 교재교구 이용 프로그램 20.9% 순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한다. 과목별 운영비율은 뒤에서 살펴볼 보육시설 취원 아동의 이용률보다는 다소 낮지만 과목을 개설한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시설유형별로 국공립보육시설은 영어 61.9%, 음악과 미술 각각 34.5%,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영어 48.7%, 미술 28.4%, 체육 27.6%, 기타법인 보육시설은 영어 58.7%, 미술 54.3%, 음악 41.3%, 민간 보육시설은 영어 53.8%이고 미술과 체육을 37.1%, 32.7%, 가정보육시설은 98.1%가 영어, 체육 77.0%, 직장보육시설은 영어 61.5% 체육 45.6%, 음악 41.2%를 운영하고 있다.

〈표 IV-1-5〉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과목 운영 비율

단위: %(개소)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수)
전체	36.1	33.3	38.4	8.3	3.1	6.2	0.2	20.9	1.3	61.8	1.7	21.9	(1,814)
국공립	34.5	34.5	23.8	10.3	1.4	3.9	-	11.0	1.8	61.9	1.8	5.7	(281)
법인	28.4	15.1	27.6	6.0	3.4	6.9	1.3	10.8	2.6	48.7	0.9	24.1	(232)
법인의외	54.3	41.3	30.4	19.6	2.2	8.7	-	10.9	-	58.7	2.2	19.6	(46)
민간개인	37.1	27.0	32.7	8.2	3.7	6.2	0.1	22.0	1.4	53.8	2.6	23.9	(808)
가정	37.7	60.4	77.0	5.7	4.9	9.8	-	42.3	0.4	98.1	0.4	32.8	(265)
직장	36.3	41.2	45.6	9.9	-	2.7	-	15.4	-	61.5	0.5	20.3	(18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2. 운영배경 및 이유

가. 경쟁 격화와 원아 모집

미취학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육시설, 유치원 뿐 아니라 학원 등으로 확대되어 왔다. 보육서비스 공급자는 수요자로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택받기 위한 노력은 할 수 밖에 없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동일하게 보육료 및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고 운영 시간도 유사하다. 시설이 위치한 지역 근거리에 종일제를 시행하는 유치원이 있을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특별활동을 원하는 부모들은 유치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기적성교육은 주로 만3~5세에 하는데, 유치원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유치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든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야 보육시설에 대한 호감도가 좀 달라진다. (시설장 포커스그룹)

시설장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운영하며 양질의 교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유치원에 대한 부모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 경쟁을 위해서 특별활동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유치원은 종일제 시행 이후 다양한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요금 수납도 자유롭다는 점, 그리고 종일반 지원금이 특별활동비로 활용된다는 사실이 보육시설장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치원은 정부가 종일반비로 5만원을 지원해 준다. 부모는 이 종일반비로 특별활동비를 낸다. (보육시설)은 가격 경쟁력까지 떨어지게 된다. (시설장 사례7)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눈에 띄는 취원 대상 아동의 감소는 보육시설장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치원에 종일반 비용이 지원된 후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은 경영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 시설장은 “아이들을 정원에 맞췄고 대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시설에 연결시켜 준 상태에서 한꺼번에 5~6명의 아동이 병설 유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학교와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유치원은 보육시설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긴 후에 더 멀리서 아이들을 데려오느라 차량 유지비도 증가되고 시간도 연장하였다. 보육 시간을 1~2시간 연장하면 간식비와 교사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교사들은 또한 1~2명의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수업준비 등을 할 수 없어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시설장 다수는 정원 미달 경향이 높아지면서 원아모집을 위해서 부모의 요구를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진다고 하였다. 아동 수는 줄어드는 반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장들은 특별활동이 원아모집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즉,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원장들은 상담을 온 부모로부터 몇 가지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요?” 또는 “여기는 ○○교육을 뭘로 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 부모의 이런 질문은 원장들에게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곳에 아이를 보내겠다’는 부모의 수요로 해석하게 한다.

부모는 1차로 시설을 보고 75%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부모들이 상담하러 올 때 우리 표준보육과정하고 있다고 딱 제시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버립니다. (시설장 사례13)

경쟁체제에서 다른 기관보다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한가지 요소가 특별활동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많이 배운 부모일수록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교육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사실 프로그램 좋고 좋은 강사진 해놓은 데는 좀 비싸더라도 어머님들이 선호해요. 하지만, 표준보육과정에 들어있는걸 그냥 한다고 하면 저소득은 그냥 보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어머님들은 안 보내거든요. (시설장 사례6)

내 아이를 보낼 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기관에 보내고 싶지 그냥 국가에서 하는 똑같은 기준의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생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설장 사례7)

대기자가 줄어가거나 주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나 학원이 생기는 경우 시설장들의 불안은 가중된다. 특히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별활동에 대한 욕심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부모의 수요에 적합한 특별활동은 원아의 증가를 가져오고, 원아가 많아져야 기본 보육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을 통한 경비 보조도 함께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별활동을 통한 운영비 보충은 수입과 지출간의 차액만큼 이루어진다. 특별활동은 그룹 단위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많은 아동이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액은 동일하지만 특별활동비로 수납하는 절대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몫이 커진다. 그런 점에서 어떤 특별활동을 하느냐가 보육시설의 경쟁력 조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나. 부모 요구 부응

보육시설은 수요자인 부모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만 생존할 수 있다. 표준보육과정 또는 자유놀이 중심, 통합 교과 등은 부모들에게는 ‘고급스럽지 않은’, ‘학식이 높거나 저소득층이 아닌 부모들은 선호하지 않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의견에 따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게 된다.

시설장 스스로 ‘인성지도’나 ‘자유놀이 중심활동’은 보육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와 ‘부모들의 요구 때문’, ‘다양화를 위해서’가 33% 수준으로, 세 가지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그 외 ‘교사들의 업무를 분담해 주기 위해’와 ‘시설 운영에 재정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극히 소수이다(표 IV-2-1 참조).

〈표 IV-2-1〉 특별활동 실시 이유

단위: %(개소)

구분	부모요구 때문	영유아 발달도움	프로그램 다양화위 해	교사업무 분담위해	재정적 도움때문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32.8	32.8	32.3	0.7	0.6	0.8	100.0	(2,581)	
시설유형									
국공립	39.9	26.4	33.3	0.3	-	0.1	100.0	(303)	
법인	41.6	26.0	30.9	1.1	0.4	-	100.0	(262)	
법인외	40.7	24.1	29.6	1.9	-	3.7	100.0	(54)	129.8(25)***
민간개인	36.0	30.8	30.9	0.5	1.2	0.6	100.0	(939)	
가정	20.2	41.7	35.7	1.0	0.5	0.9	100.0	(828)	
직장	46.2	26.7	25.1	0.5	-	1.5	100.0	(195)	
규모									
20명 이하	20.7	41.6	35.3	0.9	0.5	1.0	100.0	(849)	
21~39명 이하	30.3	34.3	32.4	0.6	1.5	0.9	100.0	(531)	132.2(15)***
40~79명 이하	40.1	28.3	30.0	0.5	0.3	0.8	100.0	(621)	
80명 이상	45.0	23.4	30.2	0.9	0.3	0.2	100.0	(580)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가 33.3%로 나타났다. 법인보육시설 역시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41.6%로 가장 많았다. 민간보육시설도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36.0%로 가장 많았으나,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각각 30.8%, 31.0%로 비슷하게 응답하였다. 가정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가 42.1%로 가장 많아 다른 유형과는 달랐으며, '부모들의 요구 때문'은 20.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직장보육시설은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46.9%로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았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부모들의 요구 때문'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의 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80명 이상 시설의 경우 '부모들의 요구 때문'이 45.0%로 가장 많았으며, 20명 이하 시설은 '영유아의 발달에 도움이 되므로'가 41.6%로 가장 많았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면 시설장에게 프로그램 다양화 및 영유아 발달 문제는 부모 요구의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는 조기교육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개발되면 발달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교육이 아동 발달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시설장들이 갖고 있는 믿음 중의 하나가 부모들은 보육시설이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보호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기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는 것과 일치한다.

시설장 스스로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시설장들은 유아 부모들의 요구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을 43.5%, '특별 프로그램'이 26.1%, '인성지도' 15.3%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유형의 시설이든 모든 시설장들은 유아 부모들의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 요구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특히 국공립, 법인, 민간보육시설장이 부모의 인지교육 요구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가정보육시설장과 직장보육시설장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부모가 '특별 프로그램'을 요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장과 민간 시설장은 32.8%와 29.1%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고, 가정보육시설장은 18.0%로 낮게 평가하였다(표 IV-2-2 참조).

이처럼 시설장은 유아의 보육과정에 대하여 유아교육 전공자 또는 전문인으로서 '인성지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보육 수요자인 유아 부모들이 '쓰기·읽기를 강조한

인지교육'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

〈표 IV-2-2〉 보호자 요구 높은 보육내용 - 유아

단위: %(개소)

구분	영유아 신체발달	인성 지도	안전한 보호	자유 놀이 중심 활동	영양식 제공과 건강	쓰기 읽기 인지 교육	부모 자녀 관계	특별 프로 그램	충분한 휴식	기타	계	(수)
전체	1.6	15.3	3.0	3.0	5.7	43.5	0.3	26.1	0.2	1.3	100.0	(2172)
시설유형												
국공립	-	11.3	2.4	4.1	7.2	50.9	-	23.0	-	1.1	100.0	(291)
법인	0.8	19.5	0.8	3.0	1.9	46.2	0.8	25.6	-	1.4	100.0	(266)
법인외	1.8	10.9	1.8	7.3	3.6	47.3	-	27.3	-	-	100.0	(55)
민간	.9	13.3	2.6	1.6	3.9	47.3	0.2	29.1	0.3	0.8	100.0	(953)
가정	4.9	21.9	6.9	2.7	11.6	30.3	0.2	18.0	0.2	3.3	100.0	(406)
직장	1.5	12.9	1.0	7.5	5.5	36.8	0.5	32.8	-	0.9	100.0	(201)
규모												
20명 이하	4.7	20.2	7.2	3.3	11.9	30.5	0.2	18.6	0.2	3.2	100.0	(430)
21~39명 이하	1.2	16.3	2.9	2.5	4.8	44.7	-	26.7	-	0.9	100.0	(521)
40~79명 이하	0.8	12.8	2.4	3.8	4.1	45.1	0.6	28.6	0.5	1.3	100.0	(632)
80명 이상	0.7	13.6	0.7	2.4	3.6	50.3	0.2	28.2	-	0.3	100.0	(89)

주: 경우의 수 분포 특성이 통계적 유의도 검증에 부적절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전인적인 발달은 1~2년 사이에 드러나기 어렵고 교육의 효과인지 아닌지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보육시설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도 생각한다. 오히려 시설장들은 자녀가 뛰어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요구가 다른 아닌 프로그램 다양화와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가시적 프로그램이라고 믿고 있다. 부모의 아동 발달에 대한 기대는 특별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 보육시설은 뒤떨어진 곳”이라는 평판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다.

학기 초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보육과정상 미술 재료를 만지고 놀면서 하는 경험보다 사생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면 더 좋아한다. (시설장 사례9).

부모가 오후 수업에 자율선택 활동 하는 것을 보면, 그 개념을 모르니까 애들이 많이 논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앉아서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잘한다. 오후까지 말기는 게 보람이 있구나 하고 만족한다. (시설장 포커스그룹)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부모들의 특별한 무엇을 '배우는 것'을 선호하고, 좋은 프로그램의 기준이 다양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한 시설장은 부모 요구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표준보육과정 운영은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특별활동을 개설하였다는 의견도 있다. 부모는 자녀가 시설에서 보내는 구체적인 과정보다는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지, 지루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 정해진 대로는 발달이 다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별 활동을 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낀다. (시설장 사례3)

우선, 표준보육과정은 지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지루함이란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교사교육과 기본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재교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교사들이 세부적인 교구를 만들어야만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교구를 만들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잘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자료의 빈곤함이 아이들에게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반면 항상 새로운 교재교구를 가지고 방문하는 특별활동 강사는 아이들의 흥미와 재미를 유발시키고, 이것이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특수적인 원인이지만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에게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해주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3. 영유아 일과와 특별활동

가. 표준보육과정 일과 운영

보육과정의 운영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여야 하며, 발달의 전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보육 영역의 보육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영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 교사는 보육계획을 수립한 후 그대로 수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변화를 주어 실시하여야 한다.

보육과정에서 교사는 개별 유아들의 가정환경, 행동 특성, 현재의 발달 수준, 흥미, 사전경험, 기질 등을 미리 알고 이에 기초하여 유아들의 상호작용 수준이나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육계획안을 기초로 개별 유아의 건강이나 심리 상태, 그날의 날씨, 특별행사, 교실 분위기 등에 따라서 일과를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한다(이미화, 2007).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루 일과 운영의 예는 다음의 <표 IV-3-1>과 같다. 이와 같은 표준보육과정이 하루일과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생활 영역,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보육 영역을 오전, 오후, 실내외 활동에서 연계하고 확장·심화 시키는 활동으로 하루의 일과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루의 일과는 자유선택 활동으로 운영된다.

<표 IV-3-1> 표준보육과정이 제안하는 일과 운영 - 만5세반

시간	활동	내용
07:30~09:00	등원 및 맞이하기	- 유아 맞이하기, 부모와 간단한 대화 나누기 -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 노래 듣기
09:00~10:30	실내자유선택활동	- 쌓기놀이(거북선과 학익진 구성) - 역할(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옷 발표회) - 미술(금속활자 만들기) - 언어(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사진 만들기) - 수·조작(우리나라를 빛낸 사람 짝 맞추기) - 과학(지폐 속의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찾기) - 음률(조수미가 들려주는 우리 가곡)
10:30~10:45	정리정돈 및 전이활동	
10:45~11:10	이야기나누기	-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 내가 좋아하는 우리나라를 빛낸 사람들 이야기 나누기
11:10~11:30	간식 및 휴식	
11:30~12:00	신체표현	- 몸으로 만든 한글 · 한글 자음, 모음, 단어 등을 몸으로 만들어보기
12:00~13:30	점심 및 이담기	
13:30~14:30	휴식 및 낮잠	
14:30~16:30	실내자유선택활동 및 오후간식	- 오전 활동을 연계하거나 확장하는 놀이하기
16:30~16:5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6:50~18:00	실내외 자유선택활동	- 오전활동의 심화 활동, - 특별히 계획된 프로젝트 하기
18:00~	통합 보육 및 귀가	- 통합보육 공간에서 조용한 놀이를 하면서 부모님 오시는 대로 귀가하기

자료: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7). 보육프로그램 개발-만5세 보육프로그램.

자유선택 활동에서 교사는 놀이 및 활동 지도에서는 아동의 놀이에 관심보이기, 칭찬하거나 격려해주기, 소품 및 아이디어 제공하기, 놀이에 참여하기, 결과물을 전시하거나 사진 찍어 주기, 공동 협의하기, 질문하기, 흥미 유도하기 등을 통해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도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의 적절한 개입은 유아의 놀이를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자유선택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이 등원해서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교사의 활동은 교육적 활동과 일상적 양육, 조용하며 정적인 활동과 동적 활동, 개별활동과 대·소집단 활동, 교사주도 활동과 아동-교사, 아동-아동, 아동-교구 상호작용이 강조된 활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개인적인 휴식, 그리고 실내활동과 실외활동 등이 골고루 포함되고 이러한 활동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나. 특별활동에 따른 보육과정 변형 사례

모든 특별활동은 교과목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표준보육과정이 제안하는 활동간 균형과 통합 보육이 적절하게 유지되기는 어렵다. 보육 과정 속에서 특별활동은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보육과정을 변화시킨다.

첫째는 오전부터 오후 2~3시까지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방과후 특별활동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보육과정을 20~30분 단위로 구분하고 특별활동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보육과정은 무시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먼저 첫 번째 형태의 보육과정과 특별활동 과정 운영의 하루 일과표 사례는 다음의 <표 IV-3-2>와 같다. 여기서 하루 일과는 표준보육과정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선택활동을 자발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하루 일과를 기본생활영역,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의 6개 보육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간을 안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두 번째는 보육과정을 20~30분 단위로 구분하고 특별활동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이다. <표 IV-3-3>은 읍면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일과 구성표이다. 이 보육시설은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언어, 수, 한자, 감정, 발표력 신장, 과학 기초, 다도, 전통놀이, 인터넷, 자연생태 교육 등 10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교육을 표방하고 있다. 만1세 3개반, 만2세 3개반, 만3세와 4세 1개반, 만5세 2개반 등 규모가 큰 시설이다.

〈표 IV-3-2〉 A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 만5세반

시간	활동	내용
08:30~10:00	등원 및 맞이하기	- 가방 및 옷정리를 격려. - 흥미영역별 자유선택활동 (언어, 조작, 쌓기, 환경, 역할)
10:00~10:20	정리정돈	- 놀잇감 제자리에 갖다 놓기
10:20~10:30	화장실 및 손씻기	
10:30~10:50	오전간식	
10:50~11:10	대집단 활동	- 이야기 나누기 -소중한 환경 ·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기 ·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물, 공기, 흙이 없다면 · 환경마크를 보며 환경의 소중함 생각해보기
11:10~11:20	화장실, 손씻기	
11:20~11:50	신체활동	- 재활용품 비석치기 게임(실외놀이) · 게임을 하고 재밌는 점, 개선할 점, 약속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11:50~12:00	화장실 및 손씻기	
12:00~12:20	언어활동	- 동화, 인형들의 보물찾기 · 동화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 이야기하기 · 동화 그림 보며 동화내용 기억하기
12:20~13:10	점심	
13:10~13:20	음률활동	- 하나뿐인 지구 · 카세트에서 노래듣고 부르기 · 노랫말에 맞는 손유희 만들어보기
13:20~13:50	미술활동	- 나만의 환경마크 · 나만의 환경마크를 그리고 모둠별로 이야기하기
13:50~14:10	오후간식	
14:10~	방과후 프로그램	- 미술, 가베, 피아노, 영어 발레

자료: A어린이집 홈페이지.

〈표 IV-3-3〉 B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 만5세반

시간	활동	내용
~09:40	등원 및 건강상태 살피기 자유선택활동	- 영역별 자유선택활동 (언어, 미술, 음률, 쌓기, 환경, 역할)
09:40~10:00	오전간식	
10:00~10:30	이야기 나누기	- 이야기 나누기 자리에 앉아 주제에 맞게 이야기 나누기 · 새로운 교구를 소개하고 활동 방법에 대해 이야기
10:30~11:50	자유선택활동	- 주제에 맞게 준비된 각 영역 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여 그룹 활동
11:50~12:0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2:00~13:00	점심식사	

(표 IV-3-3 계속)

시간	활동	내용
13:00~14:00	실외활동	- 바깥 놀이 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이야기 하고 질서를 지켜 안전 하게 놀이.
14:00~14:1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씻기	
14:10~14:50	대그룹 활동	- 이야기 나누기, 작업, 신체 표현, 노래, 율동, 게임, 음악 감상, 동시, 동화, 토의하기 등의 수업 진행을 통해 표현 생활, 탐구 생활 등의 통합 교육
14:50~15:00	화장실 다녀오기 및 손씻기	
15:00~15:20	오후간식	- 책읽기, 그림그리기, 색칠하기 등의 조용한 개별 활동
15:20~15:50	조용한 활동	
15:50~16:00	정리정돈 및 활동평가귀가지도	- 종이 접기, 집현전교육, 엠로드, 가베, 장구, 아마테우스클레스, 음악교실 등 개별화교육
16:00~17:00	방과후 개별화 프로그램	
17:00~17:30	오후간식	
17:30~18:00	정리정돈 및 활동평가귀가지도	

자료: B어린이집 홈페이지.

특별활동은 기본 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한자, 과학 기초나 감수성 교육이 포함되 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영어, 미술, 체육 등의 수업 또한 진행된다. 영어, 미술, 체육은 외부강사가, 가베와 미술은 보육교사가, 다도 교육은 원장이 운영한다. 영어는 주 5회, 미술, 체육, 가베, 미술은 각 주 1회 운영하고 다도교육은 만 4세반과 만 5세반만 주 1회 운영한다. 이와 같은 특별활동은 1차 귀가 이전 보육시간에 이루어진다.

반면, 방과후 개별화 프로그램은 보육시설이 표방하는 특색교육을 실시한다. 특색 교육은 이름이 다를 뿐 다른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과 다르지 않다. 창의력 프로그램 엠로드(MROD), 교구이용 프로그램인 Bamboo로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한다. 아마테우스클레스 음악교실은 감수성 교육으로 피아노와 리듬 율동 학습, 소리 탐구, 음악게임 등으로 진행한다. 동화구연으로 표현력과 낱말의 뜻을 이해시키고, 종이접기를 통해 상상력과 소근육 발달, 가베, 장구 등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운영형태는 보육시설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유아 중심의 운영으로 보육과정은 무시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C보육 시설은 세계화시대에 맞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세계문화 공유와 다양한 언어를 접해 볼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유형의 보육

시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특별활동으로 하루를 구성하고 있다. 특별활동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오전에는 음악(코앰코), 과학, 영어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미술, 한글, 수지도, 가베, 바이올린 등을 한다(표 IV-3-4 참조).

〈표 IV-3-4〉 C 어린이집 일과 구성표

시간	활동	내용
08:40-10:00	등원 및 자유놀이	- 시차등원, 아침간식 - 놀이계획 및 자유선택 활동, 수첩 도장찍기 - 아침독서 활동 오전 영양간식
10:00-10:10	노래부르기와 출석확인	
10:10-10:40	주제별 수업 1	- 이야기나누기(생활주제별, 프로젝트주제별) · 연관된 5개 영역활동(동화, 언어활동, 새노래, 과학활동, 수활동, 탐구활동)
10:40-11:20	영어 수업	- 튠튼영어·내국인(주3회), 원어민(주1회)
11:20-12:10	체험 수업	- 체육(태권도) - 음악(코앰코, 방송댄스) - 튠튼영어 (화, 수, 목, 금)
12:10-12:20	손씻기와 식사 준비	
12:20-13:20	영양식사지도	- 점심식사(유기농 식자재 제공) - 식사 후 후식(과일)
13:20-13:50	주제별 수업 2	- 연관된 5개 영역활동(신체표현, 율동, 만들기, 동극, 그리기, 색종이접기)
13:50-14:20	오후 간식	
14:20-15:30	영재(특강)	- 오후 연장제 영재 프로그램 · 한글(주5회), 놀이수학(주2회), 미술(주2회), 가베(주2회), 영어, 물편(철교)
15:30	1차 귀가	
15:30-18:30	실내외놀이/간식/미술	
18:30	2차 귀가	

자료: C어린이집 홈페이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특별활동이 외부 교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B어린이집은 가베와 미술을 보육교사가 운영하고 있고 동화구연이나 종이 접기 등의 활동도 교사가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베는 ‘가베’라는 교구를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아동들이 늘 놀이하는 일종의 블록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과정 내에서 언어 활동 시간에 동화구연으로 그림책 읽기를 하는 보육교사도 있으며 자유 선택 시간에 종이 접기를 함께 해주는 보육교사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어떤 보육시설에서는 표준보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다른 보육시설에서는 특별 활동 등의 이름으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교사들은 “영어와 예체

능을 제외하고 보육교사가 진행하지 못할 과목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어와 예체능은 장시간의 지속적인 훈련에 의해서 기능을 습득할 수 있지만, 그 밖의 과목들은 단기간의 훈련으로 습득가능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다. 특별활동 운영시간대

이처럼 특별활동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원하는 아동에 대해 실시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조사 결과 오전시간에도 교과목 형태의 특별활동을 상당 수준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46.0%가 오전 보육시간에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보육시간에는 26.1%,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모두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26.5%이다.

〈표 IV-3-5〉 특별활동 운영 시간대

단위: %(개소)

구분	오전	오후	오전오후 모두	기타	계	(수)	χ^2 (df)
전체	46.0	26.1	26.5	1.4	100.0	(2,572)	
시설유형							
국공립	34.1	35.1	29.8	1.0	100.0	(302)	385.1(15)**
법인	39.0	23.9	34.0	3.1	100.0	(259)	
법인외	34.5	36.4	29.1	-	100.0	(55)	
민간개인	34.2	30.9	33.7	1.2	100.0	(938)	
가정	72.5	11.8	14.3	1.4	100.0	(823)	
직장	22.1	49.2	27.2	1.5	100.0	(195)	
규모							
20명 이하	72.0	12.1	14.6	1.3	100.0	(844)	388.1(9)**
21~39명 이하	43.9	28.3	27.2	0.6	100.0	(526)	
40~79명 이하	31.3	34.3	33.2	1.2	100.0	(624)	
80명 이상	26.0	35.6	36.0	2.4	100.0	(578)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은 이 세 가지 시간대의 응답이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오전 보육시간이 72.5%이고, 직장보육시설은 오후 보육시간이 49.2%이다.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규모가 작을수록 오전 보육시간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오후 보육시간과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을 모두 운영하는 비중이 많았다. 특히 20명 이하 시설은 오전 보육시간인 경우가 72.0%로 매우 높았는데, 규모가 작고 영아가 많은 가정보육

시설은 종일반보다는 반일반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오전 보육시간을 주로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80명 이상 시설은 오후 보육시간에 35.6%가 운영하지만 36.0%는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모두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표 IV-3-5 참조).

보육시설이 오전에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외부 강사를 이용하여 특별활동을 운영 하는 경우, 오전에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업체나 시설 편의의 운영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특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여러 반을 순차적으로 수업해야 하는데, 한 명의 강사가 하루에 여러 개의 수업을 담당해야 하므로 규모가 작은 시설은 오전에, 규모가 큰 시설은 오전과 오후에 특별활동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 교과목 결정과정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모든 학습 경험은 아동에게 통합된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교과목의 선별은 대단히 중요하다. 심층면접 결과 교과목 선별 과정은 원장의 주도성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시설장이 각 교과목을 먼저 체험하고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둘째 특별활동 관련 업체의 마케팅이나 주변 시설장의 입소문에 의해 선별하는 경우, 셋째 시설장 자신이나 교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손쉽게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첫째, 시설장의 주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 경향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도시에서는 시설장이 특별활동 트렌드를 파악하고, 고가의 놀이 학교 수업을 참조하여 특별활동 교과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는 주로 특색있는 ‘영어어린이집’, ‘특기어린이집’ 등의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시설장들은 각종 교구 프로그램과 사설 연구소, 때로는 참석 대상이 아닌 유치원 교사 연수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석할 만큼 열의를 보이며, 시장의 변화를 빨리 읽고 각 프로그램별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또한, 스스로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클 뿐만 아니라 부모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시설장이 경영하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특성은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교재를 주로 활용한다.

다음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낮은 연령의 아동이 많이 다니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교육 전문가로서 시설장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채택된다. 부모들이 아동 교육에 열의는 있으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설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시설장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믿고 맡긴다는 입장을 주로 취하고 있다.

둘째, 특별활동 관련 업체의 마케팅이나 주변 시설장의 평판에 의해 선별하는 경우이다. 먼저, 특별활동 강사 과전 또는 교재·교구 판매업체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한다. 이들 업체는 연중 지속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사의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설명한다. 시설장들은 업체 영업을 통해서 다른 시설의 특별활동 관련 정보와 판매하고자 하는 특별활동 과목과 영유아 발달간 연계성에 대한 정보 등을 듣고 선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시설장, 교사, 부모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 및 수업에 대한 정보나 평판을 참고하게 된다.

다음으로 주변 시설장의 권고는 가장 믿을만한 정보이다. 시설장들은 아무리 우수한 교재교구라 할지라도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면 특별활동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시설장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프로그램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부모에게 역시 뒤쳐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주변 시설장의 권고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시설장들 간에 특별활동 운영 현황은 경영상의 문제로 공개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한 네트워크가 아니고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셋째, 시설장 자신이나 교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손쉽게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이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나 농어촌 지역의 일부와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 아이는 시설에서 뭔가를 배워야 한다는 부모들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나 보육교사가 놀이를 통한 일과 보육을 구성할 만한 역량이 떨어지는 경우 일과는 마치 학교 수업처럼 조각조각 교과목들로 이어져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많은 교과목은 부모 자원봉사자, 보육교사, 원장 등이 담당한다.

이 밖에, 시설 운영위원회가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는 국공립이나 직장 보육시설의 경우 몇 개 과목을 어떤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또한, 아동의 부모에게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넘겨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또는 가입학식때 다음해에 진행할 수업 강사를 불러서 영어반, 대근육 활동반, 음률반 등으로 구분하여 시범수업을 한 후 부모가 선택하도록

록 하여 다수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별활동 비용 결정

이렇게 선별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의 비용 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30.9%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시설의 29.4%는 시설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며, 28.8%가 일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V-4-1 참조).

〈표 IV-4-1〉 특별활동비 결정

단위: %(개소)

구분	시설 자체적	운영위원회 심의	일부부모 의견수렴	기타	계	(수)	χ^2 (df)
전체	29.4	30.9	28.8	10.9	100.0	(2,475)	
시설유형							
국공립	13.8	67.4	9.1	9.7	100.0	(298)	626.0(15)**
법인	16.1	64.3	11.2	8.4	100.0	(249)	
법인외	25.9	46.3	13.0	14.8	100.0	(54)	
민간개인	31.7	27.8	31.5	9.1	100.0	(903)	
가정	38.2	6.4	43.8	11.6	100.0	(785)	
직장	25.3	41.9	11.8	21.0	100.0	(186)	
규모							
20명 이하	37.7	6.6	43.4	12.3	100.0	(804)	563.39)**
21~39명 이하	32.5	18.6	36.7	12.2	100.0	(501)	
40~79명 이하	22.5	50.2	15.1	12.3	100.0	(604)	
80명 이상	22.3	55.8	15.5	6.4	100.0	(566)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시설유형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국공립과 법인보육시설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가 각각 67.4%, 64.3%로 가장 높은 반면, 가정보육시설은 일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가 43.8%로 가장 높았고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6.4%로 거의 없었다. 이는 규모가 작은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자체가 없는 시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국공립 보육시설 정도로 높지는 않지만, 기타법인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도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비율이 각각 46.3%와 41.9%로 높은 편이다. 민간보육시설은 세 가지 응답이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시설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비율

이 높았으며 규모가 작을수록 일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는 비중이 크다.

5. 수업 유형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크게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 관련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와 자체에서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외주를 주는 경우에도 보육시설에서 교구를 마련하거나 별도의 교재를 구입하게 하고 강사만 파견하는 경우와 강사가 교구를 함께 가지고 오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체에서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는 특별활동 담당 교사를 채용하거나, 특별활동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외부 업체에서 교재를 지속적으로 구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육교사에게 특별활동 관련 내용을 훈련시켜 주는 경우도 있다.

가. 특별활동 담당자 현황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표 IV-5-1 참조).

〈표 IV-5-1〉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부 강사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유아		전체		χ^2 (df)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미술	54.5	(77)	47.6	(206)	49.5	(283)	1.5(2)
음악	67.1	(82)	73.7	(156)	71.5	(238)	2.2(2)
체육	78.2	(101)	85.8	(246)	83.6	(347)	5.7(2)
과학	52.9	(17)	50.5	(97)	50.9	(114)	0.2(2)
수학	25.0	(16)	28.9	(90)	28.3	(106)	5.9(2)
한글(국어)	46.4	(28)	24.1	(108)	28.7	(136)	5.7(2)
컴퓨터	-	-	100.0	(3)	100.0	(3)	-
교구이용프로그램	50.0	(82)	61.5	(169)	57.8	(251)	5.8(2)
한자	50.0	(2)	41.2	(34)	41.7	(36)	-
영어	88.3	(145)	90.9	(416)	90.2	(561)	5.2(3)
기타 외국어	100.0	(1)	85.7	(14)	86.7	(15)	-
기타	88.9	(9)	73.5	(34)	76.7	(43)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외부 강사 비율이 높은 과목은 영어, 외국어, 체육으로 각각 90.2%, 86.7%, 83.6%이며 수학 28.3%, 한글 28.7%, 한자 41.7%, 미술 49.5%로 비교적 외부강사 비율이 낮다. 시설 유형별로는 외부 강사 비율이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미술, 과학, 한글, 한자 및 기타 프로그램에서는 영아의 외부강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음악, 체육, 수학,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영어 과목은 유아의 외부강사 이용률이 높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표 IV-5-2〉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부강사 이용비율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미술	비율	56.8	51.9	69.2	46.2	61.5	28.6	49.5
	(수)	(37)	(27)	(13)	(186)	(13)	(7)	(283)
음악	비율	75.0	57.1	100.0	70.9	72.2	80.0	71.5
	(수)	(48)	(21)	(6)	(141)	(18)	(5)	(239)
체육	비율	83.8	78.4	90.9	85.1	79.2	80.0	83.6
	(수)	(68)	(37)	(11)	(195)	(24)	(10)	(345)
과학	비율	59.3	68.8	33.3	44.4	50.0	-	50.9
	(수)	(27)	(16)	(6)	(63)	(2)	(1)	(115)
수학	비율	28.6	27.3	-	27.0	50.0	33.3	28.3
	(수)	(14)	(11)	-	(74)	(2)	(3)	(104)
한글(국어)	비율	23.1	15.8	-	30.1	66.7	66.7	28.7
	(수)	(13)	(19)	(4)	(93)	(6)	(3)	(138)
컴퓨터	비율	100.0	100.0	-	100.0	-	-	100.0
	(수)	(1)	(1)	-	(1)	-	-	(3)
교구이용프로그램	비율	57.7	48.0	50.0	61.2	46.7	-	57.8
	(수)	(26)	(25)	(4)	(178)	(15)	(3)	(251)
한자	비율	71.4	-	-	42.9	50.0	-	41.7
	(수)	(7)	(4)	(3)	(21)	(2)	-	(37)
영어	비율	87.6	86.7	94.4	90.8	96.4	88.9	90.2
	(수)	(113)	(45)	(18)	(348)	(28)	(9)	(561)
기타 외국어	비율	100.0	-	-	85.7	-	-	86.7
	(수)	(1)	-	-	(14)	-	-	(15)
기타	비율	60.0	-	-	78.4	100.0	-	76.7
	(수)	(5)	-	-	(37)	(1)	-	(4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보육시설에서 외부 강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설장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외부에서 오는 강사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이제 특기를 선택할 때는 외부강사가 오느냐를 꼭 물어보시더라구요. 왜냐면 부모님들은 저희 선생님이 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부강사가 오는 것이 특기에 마땅한 거구요. (시설장 사례1)

보육교사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여 전문성을 그다지 인정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현재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역량으로는 뭔가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식에 바탕하고 있다.

나. 담당자별 수업 유형

1) 업체 중심 파견 강사

외부 강사가 교재교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은 영어, 체육, 음악이 주류를 이룬다. 특별활동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수업 내용과 운영이 결정되는데, 영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튼튼 영어, 웅진, 천재교육, 동심, 두산 동아, 푸른솔, 참좋은 교육, 행복한 교육, 뮤지컬 잉글리쉬 등등 전국적인 체인망을 소유하거나 교재교구 회사·보육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주로 파견 교사 자격을 '전공 및 경력 무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로 하고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조건은 학습지 교사와 유사하다. 챗트나 게임 등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CD롬과 터치 스크린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주로 이용되며 대집단 활동이다. 시설장이나 부모의 요구에 따라 원어민과 한국인을 번갈아 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교사 관련 일체의 관리는 업체에서 담당한다.

체육 역시 외부 강사 파견은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어와 같이 전국 규모의 기업보다는 지역 중심의 소규모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유아체육 파견강사 역시 '경력 무관, 고졸 또는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를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각종 체육 협회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나 생활체육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파견업체에서 강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보육시설 재롱잔치나 각종 행사를 외주하는 업체들이기도 하다. 주로 차량 소지자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업 당일 매트,

뽕틀, 줄넘기, 각종 놀이 기구 등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한다.

음악은 악기놀이를 주로 하는 각종 오르프 관련 업체, 코앤코 등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업체들은 실로폰, 나팔, 캐스터네츠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악기뿐만 아니라 수습 여종에 이르는 셰이커, 건반타악기, 효과음향을 내는 타악기 등등을 가지고 방문한다. 소빅스, 오르프, 스텔라 등의 음악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센터나 전문음악교육기관에서 진행하던 것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강사 파견업체가 증가하였다. 지금까지 유아대상 음악교육은 대부분 홈뮤직, 달크로즈, 킨더뮤직, 유리드믹스 등 외국 교육프로그램을 1~2년 동안 90~160시간 가량 수업한 후 강사 자격증을 부여했다. 이 중, 학기당 수강료가 60만원으로 가장 낮고 교육시간이 적은 오르프 강사들이 다수 배출되면서 업체를 중심으로 강사 파견업이 활성화된 듯하다. 주로 차량 소지자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업 당일 수업을 하는 아동 수만큼 악기를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은 파견 교사 활용은 시설장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시설에서 채용할 경우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설장들 중에서도 특히 민간보육시설장들은 운영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측면과 영유아 교육자로서의 측면 사이에서 갈등이 크다고 하였다. 시설장이 되고 나면 시설 운영이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 보육료만 받아가지고는 특히 ○○구에서 임대료랑 교사 급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특별활동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장 사례2)

영아는 기본보조금이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유아의 경우 운영이 어려워서... (특별활동비라도 받아야) 다른 선생님들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시설장 사례3)

민간 시설장들은 현재의 보육료로는 기본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입을 모은다. 특히, 건물에 세 들어 살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 개보수비는 보육료로는 엄두를 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모의 수요에 적합한 특별활동은 원아의 증가를 가져오고, 원아가 많아져야 기본 보육료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을 통한 경비보조도 함께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시설장이 많다.

특별활동을 통한 운영비 보충은 수입과 지출간의 차액만큼 이루어진다. 때로는 특별활동 운영 업체에 부모가 직접 특별활동비를 송금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업체

와 시설 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은 아동 수만큼의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한 시설장은 기타 경비의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동 수가 적으면 외부강사에 의해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적자요인이 될 수 있지만 아동 수가 많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미 구비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니 어려움이 없고, 교사가 휴가를 갈 때도 다른 교사를 대체해 주기 때문에 관리상의 어려움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파견강사가 영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강사들이기 때문에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의 경영 방침에 따라 담당 교사가 수업에 함께 참여하거나 주임 교사가 파견 강사들에게 담당 교사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한다. 담당 교사의 모니터링 내용은 주로 파견 강사들이 영유아 교육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아동과의 상호작용의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때로는 파견 강사가 3~4년의 보육시설 경력이 쌓이면 아동과의 상호작용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기도 한다.

부모 입장에서는 한 과목에 4~5만원 또는 예체능은 7~8만원을 내야 하는데 1~2만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2) 개인 외부 강사

외부강사가 보육시설의 교구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경우다. 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위해서 교구 구입을 하는 경우와 시설에서 선정한 교재교구를 가지고 특별활동을 진행할 강사를 섭외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교재교구이용 프로그램은 시설이 업체로부터 교구를 구입하고 강사 또한 파견받는 형태와 시설장이 교재교구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오르다(논리와 수리), 가베(창의력), 프리벨 은물 등은 교구 가격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이상으로 시설에서도 교구를 사고 강사를 파견 받아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활용한다.¹⁷⁾

한편, 주로 영어, 음악 등 수요자인 부모가 한 눈에 강사의 자격을 가늠할 수 있는 교과목이나 시설 특수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특별활동 과목을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개인강사를 찾기도 한다.

영어 교과목의 경우 외국에서 직수입된 영어 교재를 시설장이 선정하고 고학력 영

17) 이들 교구들은 놀이 학교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부모의 수요 또한 높은 교구 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도 교구를 구입한 후 방문 교사를 이용함.

어 전공자나 원어민을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다. 고학력 영어 전공자는 유학을 했거나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내국인이 초빙 대상이 되며, 원어민은 자격이나 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형태의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영어어린이집'을 표방하고 영유아는 연령에 상관없이 매일 1~2시간의 영어 학습을 한다. 영어 학습에는 교재를 이용한 청취형 학습과 영어 비디오 시청, CD를 이용한 챗트, 원어민 선생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그림 그리기, 영어만 이용하는 역할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음악 활동 중 피아노나 바이올린과 같이 부모들이 음악대학 출신의 교사를 선호하거나 장구와 같이 장기간 숙련이 필요한 민속 악기 등도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악기사에서 피아노나 바이올린 대여와 교사 파견을 함께 한다. 시설에서 이미 피아노를 구입했던 경우에는 특별활동 강사만 채용하여 시설에서 수업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를 음률 활동으로 넣었을 때 주 2회 정도 음악활동을 하지만 피아노 학원에 갈 의사가 있는 아동에게 매일 방과후에 50분씩 추가로 수업을 할 경우 음악 교사 1인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형태는 부모에게는 전문 음악 교사가 정규교사로 있다는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시설 입장에서는 특별활동비로 교사 인건비를 충당하는 효과가 있다.

3) 보육교사

보육교사에 의해서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외부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와 특별활동 이름으로 미술이나 외국어, 한글, 한자 등의 수업을 하는 경우이다. 이 때 보육교사는 관련된 교과목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전공자인 경우가 많다.

외부 교재를 활용하여 보육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첫째, 교재 및 교구 회사로부터 교육을 받아 진행하는 형태가 있다. 국내에서 수학이나 창의력 관련 교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들은 방문 교사 시스템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교재를 시설에 판매하고 보육교사에게 사용 방법 등을 교육하여 보육 교사가 직접 특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가베나 프뢰벨 등 외국에 근거를 둔 교구 프로그램은 방문 교사를 위한 강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육 교사가 자격증을 획득하여 직접 특별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장은 특별활동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사를 선호하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특별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해당교사에게 지급한다.

다음으로 각종 미술활동과 일본어나 중국어 등의 외국어는 이 분야를 전공했거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가 특별활동의 명목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보육교사의 특별활동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나 지침은 없으나, 서울시의 특별활동에 대한 규정은 외부 강사에 의해서 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것만이 특별활동이라고 함으로써 보육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특별한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¹⁸⁾ 그러나 일부 시설에서는 보육교사 역시 특별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시설장은 특별활동 담당 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다.

모든 특별활동을 외주로 할 것인지, 방과 후 시간에 보육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가베나 몰폰 등의 자격증을 획득한 보육교사의 특별한 과목 운영을 보육과정운영의 일부로 볼 것인지, 특별한 수당이 필요한 활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기타

업체 중심 파견강사나 개인 외부 강사, 보육교사가 외부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특별활동은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보육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도 있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있는 곳이나 특별활동에 필요한 교재교구가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별활동은 보육시설의 물리적인 환경이 활동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활동을 진행하기에 보육시설보다 특정 장소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재교구 이동이 어렵거나 특별활동과 관련된 해당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될 때도 이에 해당한다. 주로 미술이나 체육과 같은 특별활동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도자기 만들기를 배우는 특별활동의 경우 재료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도자기 굽는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공방으로 직접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장소를 이동하는 특별활동은 매일 경험하는 교실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8) 서울특별시에는 특별활동 기준의 하나가 추가비용이므로 교사가 실시하면서 추가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됨.

6. 특별활동 부모 선택권

가. 특별활동 프로그램 결정과정 부모참여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의 별도의 과정으로, 부모의 요구가 주요한 실시 요인이다. 대개의 보육시설은 연초 또는 연말에 부모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부모 설명회를 개최하여 부모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한다. 부모 설명회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개최시 부모들이 바라는 특별활동 과목과 실시횟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연령별 과목과 강사, 횟수 등에 대한 연간 특별활동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결정과정에 부모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 부모 설명회나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개최시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의견이나 수요를 반영하여 특별활동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대부분 보육시설의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협의 하에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 계획에 따라 아이와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수강에서의 부모 선택권 보장

특별활동은 보육과정 외의 별도의 과정이므로, 부모가 선택에 의하여 수강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보육시설은 연초 또는 연말에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활동 과목을 선정하고, 특별활동 활동 동의서를 받아 희망하는 부모와 영유아에 한해서 실시하며, 동의서에는 과목과 업체, 강사료, 교재비, 1인당 교육비 등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보육시설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50% 이상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수강 비율은 체육 72.1%, 한글 62.5%, 영어 60.1%, 과학 60.5%, 음악 59.7%, 교구이용 프로그램 56.0%, 미술 51.9%, 수학 56.7%로 조사되었다(표 IV-6-1 참조).

대개 의무로 수강하는 경우는 아이들에게 별도의 특별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일과 중에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하나의 활동으로 특별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대체로 부모에게 통지하는 주간보육계획안에 특별활동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특별활동은 일과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원에서는 체육과 영어는 모두 하고 있습니다”라고 취원시부터 안내받아서 매달 그에 해당하는 기타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의무 수강에 대해 부모 면접 조사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거나, “얼마되지 않는 비용부담으로 수용할만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표 IV-6-1〉 특별활동 프로그램 의무 수강 비율

단위: %(개소)

구분	영아		유아		전체		χ ² (df)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미술	61.8	(76)	48.5	(206)	51.9	(282)	3.9(1)*
음악	67.9	(81)	55.1	(156)	59.7	(237)	3.6(1)
체육	69.3	(101)	73.3	(247)	72.1	(348)	0.6(1)
과학	58.8	(17)	62.0	(98)	60.5	(115)	-
수학	73.3	(15)	54.4	(90)	56.7	(105)	1.9(1)
한글(국어)	64.3	(28)	62.0	(108)	62.5	(136)	-
컴퓨터	-	-	50.0	(3)	50.0	(3)	-
교구이용프로그램	63.4	(82)	52.4	(168)	56.0	(250)	2.7(1)
한자	100.0	(2)	82.4	(34)	83.3	(36)	0.4(1)
영어	59.0	(144)	60.6	(416)	60.1	(560)	0.1(1)
기타 외국어	100.0	(1)	35.7	(14)	43.8	(15)	1.6(1)
기타	55.6	(9)	67.6	(34)	66.7	(43)	0.5(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먼저, 공동 생활을 하는 보육시설 내에서 우리 아이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실에 남겨지는 것이 싫어서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지만 특별활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시간대비 할 것이 너무 없으니까 특별활동을 하는 것 같다. 선택사항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은연중에 의무사항으로 넘어가더라구요. 발을 뺄 수 없게.(웃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한바퀴 더 돌면 애한테 더 좋습니다.’ 이러면 부모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시설장 사례10)

특기적성비로 15만원 정도 내거든요. 사실 보육료 지원받는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하지만,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우리 애만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키긴 하지요. (시설장 사례5)

내 아이만 소외되고 기죽을까봐 안 시킬 수 없다는 것이 특별활동비 비용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의 입장이다. 반면, 시설장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한 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에

서 별도 부담하는 특별활동비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삼층으로 지원받는 부모들은 지원받은 돈으로 오히려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겠더라고 이야기 하는 상황이거든요. (시설장 포커스그룹)

부모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기타경비를) 묶어야 된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나는 어렵지만 내 아이들에게는 다 가르치고 싶어하는 마음인거죠. 오히려 어렵다 하는 분들이 (특별활동을) 더 원하시더라구요. (시설장 사례1)

특별활동은 보육과정과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아동이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의무화하였을 때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다.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 활동

특별활동은 선택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의 <표 IV-6-2>를 보면,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다는 시설이 55.1%로 절반이 넘는 시설에서 모든 아동이 특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20.8%는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고 있고 18.3%는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을 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교사 없이 기타 방식으로 아동이 시간을 보낸다는 경우가 5.8%이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국공립과 기타법인보육시설의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는 시설이 각각 72.5%, 70.4%로 높고, 직장과 사회복지법인 시설이 각각 60.7%와 59.7%이다.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들이 국공립과 가정 보육시설은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율활동을 하는 경우가 비슷한 수준이며,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은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타법인과 직장보육시설은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율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없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가 있는 시설들의 경우에는 규모가 클수록 별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운영하는 비중이 더 많았다.

〈표 IV-6-2〉 특별활동 미참여 영유아의 활동

단위: %(개소)

구분	프로그램 없이 교사와 자유활동	별도 프로그램에 따라 활동	특별활동 미참여 비참여자 없음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18.3	20.8	55.1	5.8	100.0	(2,511)	
국공립	10.8	11.9	72.5	4.7	100.0	(295)	85.5(15)**
법인	12.6	23.3	59.7	4.3	100.0	(253)	
법인외	13.0	7.4	70.4	9.3	100.0	(54)	
민간개인	18.9	22.7	53.2	5.1	100.0	(913)	
가정	22.4	23.9	47.0	6.8	100.0	(805)	
직장	18.8	13.1	60.7	7.3	100.0	(191)	
규모							
20명 이하	21.9	23.5	47.7	6.9	100.0	(826)	44.2(9)**
21~39명 이하	20.5	18.9	54.2	6.3	100.0	(507)	
40~79명 이하	16.9	17.4	61.0	4.7	100.0	(615)	
80명 이상	12.6	22.2	60.2	5.0	100.0	(563)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7. 비용

가. 수납 비용

보육시설 특별활동으로 아동 1명당 비용으로 최대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을 산출하였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개설한 특별활동을 모두 수강한다고 가정했을 때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산출결과, 전체적으로는 월 평균은 50,910원이다. 시설유형별로 민간시설이 아동 1인당 수납 가능 비용이 가장 높고 국공립 시설이 가장 낮다. 1인당 최대 특별활동 수납액은 민간보육시설이 65,221원, 직장보육시설 48,407원, 법인의 보육시설 48,187원, 법인보육시설 47,145원, 가정보육시설 42,664원, 국공립보육시설이 35,289원 순으로 차이가 있다(표 IV-7-1 참조).

법인외 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80명 이상 대형 시설이 작은 규모의 시설보다 1인당 특별활동 비용을 많이 받고 있다.

〈표 IV-7-1〉 아동 1명당 최대 특별활동 수납액

단위: 원(개소)

구분	국공립	법인	법인의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F
전체	35,289	47,145	48,187	65,221	42,664	48,407	50,910	
20명 이하	15,000		-	27,222	42,660	24,000	42,132	
21~39명 이하	26,492	13,875	54,428	59,323	35,000	58,791	56,362	
40~79명 이하	30,956	39,313	50,193	62,003	-	48,954	49,192	15.6***
80명 이상	42,193	52,136	40,767	83,997	60,000	45,599	59,855	
(수)	(288)	(236)	(51)	(822)	(703)	(175)	(2,275)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다음의 <표 IV-7-2>는 한 어린이집의 이와 같은 특별활동비 수납과 지출 사례를 나타낸다. 이 어린이집의 과목별로 1인당 교육비는 유아체육 5,000원, 독서논술 13,000원, 유아영어 11,500원, 음악 9,000원이다. 각 연령별 특별활동을 모두 할 경우 특별활동비는 아동 1명당 만 2~3세 14,000원, 만 4~5세 29,500원이다.

〈표 IV-7-2〉 D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 수입 지출 사례

과목	1인당 교육비	연령	강사료	교재비	파견업체
유아체육	5,000원	만2, 3, 4, 5세	350,000원	-	점프키즈
독서논술	13,000원	만4, 5세	300,000원	월1회 동화책+워크북 6,000원	한샘
유아영어	11,500원	만4, 5세	300,000원	월1회 노래테이프+책 4,500원	동심
음악 (악기&신체)	9,000원	만1, 2, 3세	300,000원 (100,000원/1반)	연2회 CD배부+안내책 8,000원	코엔코

나. 비용 관리

다음으로 특별활동 운영비를 일반 보육재정과 혼합하여 관리하는지 별도로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전체 보육시설의 48.8%는 혼합하여 관리, 별도 관리 27.8%, 기타 방식이 14.0%, 일부 혼합, 일부 별도 관리가 9.4%이다.

〈표 IV-7-3〉 특별활동 운영비 관리 방식

단위: %(개소)

구분	혼합하여 관리	별도 관리	일부 혼합, 일부 별도	기타	계	(수)	$\chi^2(df)$
전체	48.8	27.8	9.4	14.0	100.0	(2,619)	
시설유형							
국공립	66.3	19.2	3.7	10.8	100.0	(297)	125.1(15)**
법인	54.2	27.7	9.1	9.0	100.0	(264)	
법인외	55.6	22.2	13.0	9.2	100.0	(54)	
민간	46.7	31.4	12.4	9.5	100.0	(934)	
가정	45.6	25.1	8.7	20.6	100.0	(878)	
직장	37.5	37.5	6.3	18.7	100.0	(192)	
규모							
20명 이하	45.5	24.8	8.6	21.1	100.0	(902)	63.8(9)**
21~39명 이하	48.1	30.7	9.1	12.1	100.0	(540)	
40~79명 이하	50.6	27.8	10.2	11.4	100.0	(619)	
80명 이상	52.9	29.6	10.0	7.5	100.0	(558)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시설조사 원자료임.

이러한 관리방식은 시설유형과 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시설유형별로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보육시설 순으로 혼합하여 관리한다는 비율이 높다. 시설규모별에서는 규모가 커질수록 특별활동 운영비와 일반 보육 재정을 혼합하여 관리한다는 비율이 점차 높다.

다. 특별활동 비용 제한 관련 요구

특별활동 비용 제한과 관련한 시설장의 의견은 특별활동비를 자율화하지는 입장과 수납한도액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두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

먼저 특별활동비 상한선 제한을 풀고 자율화해야 한다는 시설장 대부분은 특별활동비를 자율화하여도 부모나 정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현재의 한도액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수납한도액을 정함으로써 오히려 한도액까지 받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보고, 이는 비용 제한을 둬으로써 오히려 부작용 낳고 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정해진 금액을 정하면 오히려 그 금액이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정해진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원장님들이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

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장 사례1)

한편, 특별활동 비용 제한을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별활동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화할 경우 일부 보육시설에 한하는 경우이겠지만 특별활동을 보육시설의 이윤추구 방법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마인드가 정확하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제가 더듬어 보면, 특기수업 쪽으로 해가지고 영리를 너무 많이 이윤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한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장 사례12)

8. 특별활동 관찰 사례

특별활동 수업이 운영되는 형태와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중랑구 한 어린이집에서 외부 강사에 의해 실시하는 영어, 음악, 독서논술 수업을 관찰하였다. 특별활동 강사에 양해를 얻고 보육교사의 협조 하에 특별활동 수업이 시작하기 이전 수업 준비에서부터 수업이 끝난 후 마무리 과정까지 관찰하였다.

가. 영어수업

다음의 <표 IV-8-1>은 만4세반에서 오후2시에서 2시30분까지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유아 영어 특별활동 수업의 과정이다.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담당교사는 함께 참여하여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도 하고 특별활동 교사를 도와 특별활동 진행을 함께 하기도 한다.

유아영어를 지도할 특별활동 교사가 오기 전 아동들은 담임교사와 함께 반원으로 둘러앉아 정돈된 상태에서 영어교사를 맞이한다. 아동들은 울동과 함께 How do you feel?로 그날 아동의 기분을 묻는 영어로 시작하였고, 곧이어 How's the weather?로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특별활동 교사가 질문하고 아동이 영어로 대답하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sunny, cloudy, snowy, rainy 등의 영어 단어가 적힌 코팅된 종이를 넘겨주면서 따라하도록 한다. 그런 직후 Bubble gum 이란 영어 노래를 울동과 함께 다 같이 부른다. 이 세 가지 활동은 매주 반복되는 활동으로 대체적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표 IV-8-1〉 영어 특별활동 수업 구성

내용
1. 담임교사와 함께 반원으로 둘러앉아 영어 교사를 기다림
2. 매주 반복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율동과 함께 How do you feel? How's the weather? 묻고 답하기 - 대답시 교사는 sunny, cloudy, 등의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줌 - 영어 노래와 율동(Bubble gum)
3. 3개의 문장 배우기(Storybook과 녹음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그림책 읽으며 사용가능한 단어나 문장 소개와 따라하기 - 율동과 함께 녹음기 영어 따라하기
4. 새노래 배우기(New song)
5. 그림책 보며 배운 문장 반복하기
6. 게임 하면서 배운 문장 반복하기
7. 노래와 율동(Bye Bye~)

다음으로 이야기 책(Storybook)을 꺼내어 그 내용을 특별활동 교사가 영어로 읽어 간다. 여기서 교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영어 문장은 전화 통화에서 사용되는 말로 "Come to my house," "Don't be late," "See you then"이란 문장으로, 영어 그림책을 읽어가면서 사용가능한 모든 단어들이나 문장들도 소개한다. 예를 들면, 전화할 때 사용되는 문장으로, "May I speak to Fox? Who's calling? Speaking"과 같은 문장들을 소개하고, present, delicious food, fried egg, pizza, soup, enjoy your food 등과 같은 단어들도 함께 알려준다. 특별활동 교사는 이러한 단어들이 제시되고 있는 이야기책을 넘기면서 아동들에게 대답해보게 하고 따라하도록 한다.

이야기 책의 내용이 소개된 후 교사는 녹음기를 틀어주면서, 율동과 함께 녹음기에서 들려지는 원어민의 영어를 따라하도록 한다. 녹음기를 통해서 들려진 영어 문장은 "Come to my house," "Don't be late," "See you then"이다.

문장 배우기가 끝나면, 새 노래 배우기(New song) 시간으로 율동과 더불어 새로운 영어노래를 소개하면서 따라하도록 한다.

새 노래 배우기로 주위를 환기한 후, 배운 문장을 반복, 기억할 수 있는 활동이 진행된다. 이야기 책(Storybook)과 다른 동화책의 한 면을 펼쳐 미로 그림을 보여준다. 교사는 미로의 한쪽 끝에서 어머니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 아동이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려는 상황을 설정하고 교사가 미로를 이리저리로 다니는 것을 아동에게 보여준다. 미로가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don't be late”를 따라하도록 한다.

동화책 활동이 끝난 후, 아동들과 동일한 문장을 반복할 수 있는 게임을 한다. 이 때 아동들에게 "stand up", "move back"과 같은 영어로 행동을 지시한다. 게임은 아동이 출발선에서 교사의 출발신호에 맞추어 출발하여 슬리퍼(slipper)가 있는 곳까지 가서 슬리퍼를 신고서 출발선까지 다시 돌아와서 교사의 손을 먼저 만지는 경우 이기는 게임이다. 두 팀으로 나뉘서, 교사는 "ready," "set," "go" 등의 규칙을 사용하고 "Let's have a race" "touch my hand" 라는 문장으로 행동을 지시한다.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모든 아동들은 "don't be late"을 외쳐서 배운 문장을 반복하도록 한다.

게임이 종료된 후 교사는 녹음기를 다시 틀어서 헤어질 때 하는 영어노래(Bye Bye~)를 울동과 함께 하면서 영어시간을 종료하였다.

특별활동 교사는 지정된 30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영어단어와 문장에 아동들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들은 3개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말한다. 특별활동 교사는 30분 동안 울동, Storybook, 노래부르기, 그림책 활동,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재미있고 빠르게 수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개별아동의 영어 학습정도를 일일이 점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간 도전 과제를 제안하는 수준은 아니다.

특별활동 시간 동안 교사의 역할은 특별활동 교사가 입실하기 전 아이들을 모여 앉게 하여 주의집중을 시키고, 모여 앉은 아이들이 흐트러지면 담당교사가 아이들을 불러 다시 정리하고 모여 앉을 수 있도록 주의시키는 정도의 활동을 하는 수준이다.

아동들은 대체적으로 신나는 표정으로 교사의 지시를 잘 따랐으나 제시되는 모든 영어를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아동들이 큰 소리로 노래와 울동을 따라 하였으므로 몇몇의 잘 따라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영어에 대해서는 모든 아동들이 큰소리로 신나하며 잘 따라하였다.

나. 음악수업

코앤코는 악기를 이용한 음악활동으로 매주 다른 악기를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매 시간마다 새로운 악기를 소개하지만 활동이 시간마다 연결될 수 있도록 특정 이야기를 이용하여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악기가 소개될 수 있게 활동을 한다.

특별활동 교사는 자리에 앉은 후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던 이야기를 이어나가며 새로운 악기를 소개한다. 악기의 이름을 알려준 후, 악기 소리 내는 방법은 특별활

동 교사가 직접 알려주지 않고 아이들이 생각·추측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단순히 악기를 소개하고 소리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지시적, 일방적 교육을 하기보다는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소리 내는 방법을 말하고, 자신이 말한 방법이 맞을 경우 좋아하거나 뿌듯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소리 내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도록 한 후에, 아이들을 한 명씩 불러 직접 악기를 만지고 소리 내어 보도록 한다. 교사가 소리 내는 박자를 그대로 따라 아이들이 소리 내어 보기로 하며, 이 역시 아이들 한명씩 모두 참여하도록 한다. 특별활동 교사는 잘 하는 아이에게는 조금 빠른 박자를 만들어 보게 하고 잘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는 조금 느린 박자를 만들어 보게 하여 아이들의 발달이나 능력수준에 따라 다르게 실시하였다.

잘 하지 못하는 아이는 아이 스스로 자신이 못한다는 실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담임 교사가 도와주어 함께 박자를 만들 수 있게 진행한다.

연령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운영된다. 특별활동 교사가 소리 내는 박자를 따라하는 활동의 경우, 만2세반에서는 만3세반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느린 박자를 따라하도록 하여 아이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또한 만3세반에서는 아이들 각각 모두 다른 박자를 주어졌으나, 만2세반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조금 느린 한 종류의 박자를 주어 따라할 수 있게 하였다. 만2세 영아들의 경우 아직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워 천천히 길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 특별활동 교사는 아이의 말을 끊거나 제지하지 않고 아이가 말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어 아이의 발달과 개개인의 성향을 고려해 주었다.

특별활동 교사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말을 건넬 때에도 말에 음과 리듬을 넣어 수업 전체적으로 음률과 음약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도록 진행하였다.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음악을 틀어서 활동 진행에 도움을 얻기도 하였다.

평소 접해 보지 못하는 악기를 접해 본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큰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였다. 일상생활이나 보육시설에서는 보기 드문 악기를 보고 소리 내어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흥미롭게 수업에 임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였다. 직접 소리를 내어보고 들어보고 하는 등의 신체 감각기관을 이

용하여 활동하고 경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였다. 한편 모든 아이들이 한 번씩 경험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해 보고 다음 친구에게 악기를 전달해야 할 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자신이 악기를 지니기를 원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 독서논술

문장만들기 프로그램을 하는 만5세반 독서논술 시간은 주 1회 50분간 매달 한 권의 책과 워크북으로 활동이 진행된다.

문장 만들기 수업에서는 ‘○○를 가요’ 형식의 목적어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 아이들 한명 한명 어디를 가는지 목적어를 만들어 보기로 한다. ‘○○를’의 목적어가 아닌 ‘○○에’라는 부사를 만드는 아이들도 있으나 특별활동 교사는 잘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갔다. ‘○○소리가 나요’라는 문장 만들기에서 아이가 “뽀족뽀족한 소리가 나요”라고 답해도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고, “뽀족뽀족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라고 물으며 아이의 창의력이나 표현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사와 아이가 모여 앉아 문장 만들기 이야기 나누기를 한 후, 특별활동 교사는 워크북을 이용하여 각자 할 활동을 알려준다. 아동은 자리에 앉아 각자 워크북을 이용하여 문장만들기를 하였다. 특별활동 교사와 담임 교사는 자리를 이동하며 아이들 한 명씩 문장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개인 활동을 먼저 마친 아동은 독서대에서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자리에 앉아 독서를 하였다.

만5세반과 4세반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만4세반은 워크북에 제시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도형과 같은 모양의 도형을 워크북에 있는 그림에서 찾은 후, 교실에서도 같은 모양의 도형찾기 활동을 하여 특별활동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결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만5세와 마찬가지로 워크북을 이용한 개인활동을 모두 마친 아이는 독서대에서 읽고 싶은 골라 책을 보았다.

모든 아이들의 개인활동이 끝나면 특별활동 교사와 담임 교사는 아이들을 불러 모은 후, 머리에서부터 배꼽까지 각각의 신체부위를 표현하는 형용사를 이용하여 노랫말을 만들고 배꼽까지 내려오면 배꼽인사로 연결시켜 인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독서논술은 50분 동안 이야기나누기 형태의 활동과 개인활동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워크북을 이용한 개인활동은 교사와 아이들간의 상호작용이나 단체활동으로 진

행되기 보다는 아이들 개개인이 학습지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어 단어를 생각하고 만드는 활동을 할 때에는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는 반면, 어려워하거나 소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단어를 생각해서 말해야 하는 데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다른 친구가 말한 단어를 따라 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소극적으로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자리에 앉아 워크북으로 개인활동을 해야 할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별활동 강사나 담임교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으며, 워크북 활동 마무리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았다. 또한 처음에는 집중을 잘 하던 아이들도 후반부로 갈수록 지루하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 50분이라는 시간은 만 4~5세 아이들이 집중하여 활동하기에는 긴 시간인 것 같았다.

9. 요약 및 시사점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 중에서는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정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보육시설의 95.4%가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절반가량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영아 대상으로 5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5.6%이며, 유아 대상은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별활동 실시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의 존재보다는 시설장의 현실적 요구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러한 점은 경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수의 시설장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이유는 부모 요구 이외에 기관 경쟁력, 원아모집조건, 교사에 대한 자극, 가시적 교육효과, 운영비 보충과 같은 실제적인 필요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시설장들은 특별 활동을 실시하고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부모의 요구 수용'을 꼽았다. 즉, 경쟁적으로 보육시설 및 유아 보육기관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특기활동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이 운영상 수입 지출 구조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활동을 선택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보육시설의 48.8%가 특별활동비를 보육재정과 혼합하여 관리하는 반면, 27.8%는 별도 관리하고 있고 9.4%는 일부는 혼합하지만 일부는 별도

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기타 다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경우가 14.1%이다.

셋째, 소수이지만 시설장이 전인 교육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활동이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시설장들도 소수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문화적 경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시설의 경우이다. 이는 표준보육과정으로 충족시키기 못하는 요구 충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보완적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넷째, 특별활동이 일과 보육과정 운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특별활동을 방과후 특별활동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육과정을 20~30분 단위로 구분하고 한 두개의 보육과정에 요일별로 특별활동을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보육과정은 무시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보육시설의 46.0%가 오전 보육시간에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후 보육시간에는 26.1%, 오전과 오후 보육시간 모두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도 26.5%이다. 이와 같은 운영 방식은 시설에서 개설한 특별활동의 수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은 수의 특별활동을 하는 시설들은 이러한 운영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영역별 연계나 통합적 일과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아동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다섯째, 특별활동 프로그램 선별은 주로 시설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부모의 영향은 미약하다. 물론 부모 설문조사를 거치기도 하지만 설문 조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할지에 대한 목록을 만드는 것은 주로 시설장이다. 선별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별도의 비용 결정 방법도 29.4% 시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30.9%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28.8%가 일부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외부 파견 전문업체에 의한 것이거나 개별적 강사 채용으로 추진되는데, 이 경우 외부 프로그램이나 강사에 대한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 외부 특별활동 관련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와 자체에서 교사나 교구 등을 조달하여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시설장의 운영측면이 주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는 아동 발달 관점에서 이들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보육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없는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 교사의 부담이 크고, 또한 특별활동 운영을 위하여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을 따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자격증을 갖춘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질이 충분하게 좋은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일곱째, 특별활동이 아동에게 강요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보육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대개가 일과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수강해야 하는 비율이 55.1%이다. 이 경우에 아동의 흥미를 갖지 못하는 과목들을 무조건 수강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따른다. 한편, 선택적으로 특별활동을 운영할 이를 선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에게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사결과,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보육시설 20.8%는 별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8.3%는 교사와 자유활동, 5.8%는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사 없이 시간을 보낸다.

여덟째, 특별활동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가장 유의해야 한다. 상호작용이란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놀이 활동 속에서 스스로 환경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다. 자극을 위해서는 아동 개개인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과 관찰이 필요한데, 외부인에 의한 특별활동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

아홉째,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시 보육교사의 역할을 명시하고 교사교육이나 지침을 통하여 이를 교육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외부인에 의한 특별활동시 보육교사는 보조인의 역할에 머물고, 이런 상태의 축적은 사회적으로나 보육시설 내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는 결코 아동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외부인과 아동간의 간극을 메우고 통합적 일과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열째, 아동의 연령별 차이에 따른 수준별 수업이 어렵다. 또한 외부 강사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다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V. 특별활동 이용 현황

본 장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특별활동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가구조사 원자료와 부모 면접 조사를 통해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와 비용, 이용 이유와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기대 등을 분석하였다.

1. 특별활동 이용 비율

가. 제 특성별 이용률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 특별활동 이용률은 60.6%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률이 높아진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 중소도시와 대도시의 이용률이 높고 소득계층별로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 이용률은 만 0세 13.3%, 만 1세 28.7%, 만2세 56.3%, 만 3세 65.2%, 만4세 75.9%, 만5세는 80.2%로 상당수의 아동이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표 V-1-1〉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이용	86.7	71.3	43.7	34.8	24.1	19.8	39.4
1개	13.3	11.2	15.4	15.8	16.7	17.0	15.3
2개	-	8.6	16.0	19.6	17.5	24.1	16.8
3개	-	6.7	14.2	14.6	19.5	18.9	14.4
4개	-	2.2	7.7	8.5	11.7	8.0	7.7
5개	-	-	1.8	3.8	5.4	6.1	3.4
6개	-	-	0.6	1.6	0.8	2.4	1.0
7개	-	-	0.3	0.6	1.6	1.9	0.9
8개	-	-	-	0.6	1.6	0.9	0.7
9개	-	-	-	-	1.2	0.9	0.3
11개	-	-	0.3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5)	(178)	(325)	(316)	(257)	(212)	(1,33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이용하는 특별활동 개수를 보면, 0세는 13.3%가 1개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고, 만1세는 최대 4개의 특별활동까지 하며 만2세는 최대 11개의 특별활동을 하는 등 특별

활동은 영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만5세의 경우 2개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이 24.1%, 3개가 18.9%, 1개가 17.0%로 60%의 아동이 1~3개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표 V-1-1 참조).

〈표 V-1-2〉 가구소득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단위: %(명)

구분	9만원 이하	10-19만원 이하	15-19만원 이하	20-29만원 이하	25-29만원 이하	30-39만원 이하	35-39만원 이하	40-49만원 이하	50-59만원 이하	60만원 이상	전체
미이용	36.1	37.1	46.0	42.9	39.4	41.3	39.5	30.6	35.2	24.2	39.4
1개	22.9	17.6	13.9	12.6	19.4	9.7	15.8	14.4	15.5	18.2	15.3
2개	14.5	17.1	12.3	13.1	16.3	18.1	27.6	24.3	16.9	22.7	16.8
3개	14.5	15.3	15.9	18.7	11.3	11.6	5.3	16.2	16.9	15.2	14.4
4개	4.8	7.1	7.5	5.1	6.3	11.0	7.9	7.2	8.5	15.2	7.7
5개	6.0	2.9	2.0	3.5	3.8	4.5	1.3	6.3	2.8	1.5	3.4
6개	-	1.2	1.2	1.0	0.6	0.6	-	0.9	2.8	1.5	1.0
7개	1.2	0.6	0.4	1.0	1.9	1.9	-	-	1.4	-	0.9
8개	-	-	0.8	1.5	1.3	0.6	-	-	-	1.5	0.7
9개	-	1.2	-	-	-	0.6	2.6	-	-	-	0.3
11개	-	-	-	0.5	-	-	-	-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3)	(170)	(252)	(198)	(160)	(155)	(76)	(111)	(71)	(66)	(1,34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1-3〉 제 특성별 특별활동 이용 및 종류 수

단위: %(명)

구분	지역			모취업			모학력			전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모취업	미취업	모부재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이상	
미이용	34.1	41.9	43.3	38.3	39.5	44.0	41.4	42.2	32.7	39.4
1개	15.9	15.0	15.5	13.8	16.6	16.0	14.2	16.0	17.0	15.3
2개	19.4	16.3	13.1	16.4	17.2	18.0	16.1	15.6	18.8	16.8
3개	15.7	14.1	12.7	15.3	13.5	16.0	15.0	10.9	15.9	14.4
4개	8.6	6.5	9.0	8.7	7.0	6.0	7.4	6.9	8.8	7.7
5개	4.7	2.8	2.4	4.5	2.8	-	3.1	4.7	3.4	3.4
6개	0.8	1.2	1.2	1.4	0.8	-	1.2	1.1	0.9	1.0
7개	0.2	1.2	1.2	0.5	1.3	-	0.7	0.7	1.4	0.9
8개	0.2	0.8	0.2	0.5	0.8	-	0.4	1.5	0.6	0.7
9개	0.2	0.3	0.4	0.5	0.3	-	0.3	0.4	0.6	0.3
11개	0.2	-	-	-	0.1	-	0.1	-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490)	(602)	(245)	(574)	(716)	(50)	(678)	(275)	(353)	(1,34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소득수준별로 특별활동 이용률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150만원~4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5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은 100~199만원 이하 계층과 600만원 이상 계층이 4~5%로 낮은 수준이고, 그 밖에는 7~8%정도의 수준으로 소득계층별 차이는 크지 않다(표 V-1-2 참조).

<표 V-1-3>은 특성별 이용률 차이를 나타낸다. 먼저 지역별 이용률은 대도시 65.9%, 중소도시 58.1%, 읍면지역 56.7%의 순서이지만, 1~2개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의 비율 역시 대도시 35.3% 중소도시 31.3%, 읍면지역 28.6%로 특별활동 이용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은 아동 비율은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더 많고 5개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 지역 모두 6% 수준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 부모들은 문화적 자극 기회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육 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이 아이에게는 큰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골고루 음식을 먹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특별활동이) 좋아요. (부모 사례9)

다음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근소한 차이지만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특별활동을 더 많이 이용한다. 취업모의 경우 1~2개 이용률이 30.2%인 반면 3~4개 이용률은 24.0%, 5~6개 5.9%이지만 미취업모는 1~2개 이용률이 33.8%, 3~4개 이용률 20.5%, 5~6개 3.6%로 취업모의 아동이 다수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취업모는 정규 보육과정이 끝나는 3시 이후에 아이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보육 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을 이용한다.

직장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한 원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 좋다. (부모 사례1)

취업모들은 아이에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할 수 있고,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 어머니가 자녀 특별활동은 더 많이 시킨다. 대졸 이상 어머니는 3개 이상 이용률이 31.6%로 고졸이하 28.2%나 초대졸 26.2%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프로그램별 이용률

보육시설 이용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특별활동은 체육과 영어 과목이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미술 21.1%, 음악 17.6%, 체육 25.9%, 과학 8.5%, 수학 7.8%, 한글 10.1%, 교구이용 프로그램 18.6%, 한자 2.7%, 영어 41.8%, 외국어 1.1%,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3.1%가 이용하고 있다.

아동 연령별 개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률은 <표 V-1-4>와 같다. 연령별 프로그램 이용률을 보면, 주로 만2세부터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만 0세와 1세는 주로 체육 활동을 하고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음악, 미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영어는 만 1세부터 시작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도 높아진다.

<표 V-1-4> 연령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2.2	6.7	19.6	23.7	25.4	31.5	21.1
음악	1종	4.3	11.8	18.3	12.7	19.1	17.5
	2종	-	-	-	-	0.8	0.1
체육	1종	2.2	11.8	23.9	31.6	34.0	25.7
	2종	-	-	0.3	-	.4	0.2
과학	-	1.7	4.3	10.8	14.8	12.2	8.5
수학	1종	-	0.6	4.0	5.1	14.8	7.6
	2종	-	-	-	-	0.8	0.2
한글(국어)	-	0.6	8.3	9.8	17.1	15.5	10.1
컴퓨터	-	-	-	-	0.4	0.5	0.1
교구 이용 프로그램	1종	6.7	8.4	18.3	21.8	19.5	17.4
	2종	-	-	0.6	0.6	1.2	1.0
	3종 이상	-	-	0.6	-	0.8	0.2
한자	-	-	0.6	2.2	5.1	6.1	2.7
영어	-	14.7	36.4	47.5	57.4	55.9	41.8
기타 외국어	-	-	0.3	1.6	2.0	1.9	1.1
기타	1종	-	0.6	2.4	3.2	2.3	3.0
	2종	-	-	-	0.3	0.4	0.1
(수)	(46)	(178)	(327)	(316)	(256)	(213)	(1,33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특별활동 이용 과목은 영어를 제외하고 체육, 미술, 음악 등 예체능 관련 교과목과 교구이용 프로그램의 이용비율이 높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아지나 특이하게도 만 5세에 한글, 영어, 과학, 교구이용 프로그램 비율

은 다소 줄어든다. 이와 같은 현상은 아동의 취학 준비를 위하여 별도의 학습지 또는 보육시설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모 인터뷰 결과와 같이, “7살을 둔 엄마니깐 아무래도 공부 같은 것을 신경 써서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학습지’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V-1-5>는 시설유형별로 특별활동 이용률을 나타낸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영어 53.3%, 체육 32.1% 음악 22.2%, 미술 17.4%, 교구이용 프로그램 12.6%이다.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아동은 영어 38.8%, 체육 31.3%, 미술 22.4%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기타법인 보육시설에서 전체 아동의 33.3%가 영어, 25.5%가 미술, 22.0%가 체육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표 V-1-5> 시설유형별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률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기타법인	민간	가정	직장	
미술	17.4	22.4	25.5	23.3	10.2	25.9	
음악	1종	22.2	16.1	11.5	13.8	14.2	18.5
	2종	-	1.7	-	1.2	-	-
체육	1종	32.1	31.3	22.0	24.0	19.7	40.7
	2종	-	-	-	0.4	-	-
과학	13.1	14.5	11.8	7.7	1.6	3.7	
수학	1종	6.6	10.3	-	9.0	1.6	11.1
	2종	-	-	-	0.2	-	-
한글(국어)	6.1	16.4	6.0	11.6	4.7	10.7	
컴퓨터	0.5	0.9	-	0.1	-	-	
교구 이용 프로그램	1종	11.7	20.0	7.8	20.6	11.0	14.3
	2종	0.9	0.9	-	1.2	0.8	-
	3종 이상	-	-	-	0.5	0.8	-
한자	2.8	4.3	5.9	2.6	1.6	-	
영어	53.3	38.8	33.3	43.4	21.4	37.0	
기타 외국어	0.5	-	-	1.6	0.8	0.8	
기타	1종	1.9	-	-	4.5	-	-
	2종	-	-	-	0.2	-	-
(수)	(214)	(117)	(51)	(802)	(127)	(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일반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은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보다 많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동 1명이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특별히 많기 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2종류의 음악 및 교구이용 프로그램 이용률이 1.2%이며 2종의 체육, 수학과 기타 프로그

램 이용률이 0.2%이다. 과목별로 프로그램 이용률은 영어 프로그램을 43.4%가 이용하고 있고, 체육 24.0%, 미술 23.3%, 교구이용 프로그램 20.6%가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만 0세에서는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없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빈도 분포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에는 부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다른 유형 보육시설에 비해서 연령별 이용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영아 비율이 높은 가정보육시설에서는 다른 보육시설 유형에 비하여 만2세 이하 영아의 프로그램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뿐만 아니라, 만 0세아동도 미술,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을 4.2% 이용하고 있다(부표 V-1-5 참조). 직장보육시설 아동은 체육 프로그램을 40.7%가 이용하므로 영어 37.0%보다 이용률이 높다. 그 밖에 미술 25.9%도 전체 연령에 걸쳐 이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한자,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이용하는 아동은 없다(부표 V-1-6 참조).

다.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 이용률 비교

1) 제 특성별 특별활동 이용률

미취학 영유아 중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중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은 영아 43.3%, 유아 65.4%로 전체 59.1%이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63.2%, 중소도시 57.2%, 읍·면 54.9%로, 대도시 지역 보육시설에 다니는 유아가 상대적으로 특별활동 이용률이 높다.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60.6%, 유치원 이용 아동은 55.6%가 1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1~2개의 특별활동을 하는 유아의 이용률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반해 3개 이상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련 규정은 특별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보육시설은 평가인증 과정에서 부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3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25.4%이다. 보육시설 이용아의 28.5%와 유치원 취원아의 18.4%가 3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고, 영아는 17.5%, 유아는 28.6%가 3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표 V-1-6 참조).

〈표 V-1-6〉 제 특성별 특별활동 개수

단위: %(명)

구분	연령		지역			기관		전체
	영아	유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보육시설	유치원	
미이용	56.7	34.6	36.8	42.8	45.1	39.4	44.4	40.9
1개	13.8	18.1	17.4	16.2	17.5	15.3	20.3	16.9
2개	12.2	18.8	18.6	16.9	13.2	16.8	16.9	16.9
3개	10.4	14.1	14.1	12.7	11.3	14.4	9.8	13.0
4개	5.2	6.9	7.0	5.9	6.8	7.7	3.6	6.4
5개	1.1	3.5	4.0	2.3	1.7	3.4	1.5	2.8
6개	0.4	1.4	1.0	1.3	0.8	1.0	1.3	1.1
7개	0.2	0.9	0.3	0.9	0.8	0.9	0.3	0.7
8개	-	1.0	0.7	0.6	0.8	0.7	0.8	0.7
9개	-	0.8	0.1	0.3	2.0	0.3	1.1	0.6
11개	0.2	-	0.1	-	-	0.1	-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559)	(1,391)	(731)	(864)	(355)	(1,341)	(611)	(1,95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1-7〉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의 개인서비스 이용 종류 및 수

단위: %(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전체
교재교구			
1개	92.9	89.2	90.8
2개	7.1	8.1	7.7
3개	-	2.7	1.5
계(수)	100.0(28)	100.0(37)	100.0(65)
예체능			
1개	66.7	80.0	76.9
2개	33.3	10.0	15.4
3개	-	10.0	7.7
계(수)	100.0(3)	100.0(10)	100.0(13)
교과목과외			
1개	100.0	87.5	91.7
2개	-	12.5	8.3
계(수)	100.0(4)	100.0(8)	100.0(12)
학습지			
1개	62.5	46.5	55.4
2개	29.6	34.8	31.9
3개	5.4	15.7	10.0
4개	1.1	2.3	1.6
5개	1.1	0.7	0.9
6개	0.3	-	0.1
계(수)	100.0(371)	100.0(299)	100.0(67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보육시설과 유치원 취원 아동은 4명중 1명이 육아지원 기관에서 3개 이상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재교구를 이용한 방문서비스, 예체능 교습, 국어·수학 등의 교과목 과외와 각종 학습지 등도 이용하고 있다(표 V-1-6 참조).

특히, 학습지 방문 서비스는 보육 아동의 27.7%와 유치원 취원아동의 48.9%가 이용하고 있다. 교재교구를 이용한 교육 서비스 또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1%와 유치원 이용아동의 6.1%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예체능 교습과 교과목 과외를 하는 아동은 소수이다(표 V-1-7 참조).

2) 특별활동 프로그램별 이용률

<표 V-1-8>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특별활동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이용프로그램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용 현황은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12개 영역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여부의 결정방법이 의무적인지,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강사가 외부에서 파견된 강사인지, 이용시 별도의 비용을 기관에 내야하는지, 그리고 별도의 비용을 내야한다면 월 평균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이 더 높은 비율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영어,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음악을 제외하고 유치원 아동과 이용률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월평균 비용에 있어서 유치원 이용 아동이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지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 점에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유치원이용 아동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프로그램별 이용률은 보육시설 아동이 영어 41.8%, 체육 25.9%, 미술 21.1%, 교구이용 프로그램 18.6%, 음악 17.6%를 이용하고 있고 유치원 아동 역시 영어 33.6%, 미술 21.1%, 체육 16.8%, 교구이용 프로그램 11.8%, 음악 11.6%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한글, 과학, 수학을 10% 내외가 이용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와 한자, 컴퓨터 등의 이용률은 대단히 낮다.

두 번째, 이들이 이용하는 특별활동은 전반적으로 부모가 가계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을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비율이 높다.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비율은 유치원보다는 보육시설이 높은 편이다. 아동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영어의 경우 보육시설 60.1%, 유치원

55.3%가 의무이용이다. 음악,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 등도 두 기관 모두에서 절반 이상이 기관 등록시 무조건 이용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V-1-8〉 시설유형 및 특별활동 종류별 실시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미술	음악	체육	과학	수학	한글	컴퓨터	교구 프로그램	한자	영어	외국어	기타
이용률												
보육시설	21.1	17.6	25.9	8.5	7.8	10.1	0.1	18.6	2.7	41.8	1.1	3.1
유치원	21.1	11.6	16.8	10.5	7.7	10.5	1.5	11.8	2.1	33.6	1.1	2.1
의무이용률												
보육시설	51.9	59.7	72.1	60.5	56.7	62.5	50.0	56.0	83.3	60.1	43.8	66.7
유치원	41.9	69.4	62.1	76.6	57.4	51.6	88.9	48.6	100.0	55.3	85.7	61.5
외부교사 비율												
보육시설	49.5	71.4	83.6	50.4	27.6	28.5	100.0	57.8	41.7	90.2	87.5	76.7
유치원	55.4	63.9	78.6	35.9	23.4	23.4	11.1	43.1	25.0	88.8	100.0	76.9
별도비용지불 비율												
보육시설	78.8	79.4	78.1	81.7	67.3	72.8	100.0	75.7	47.2	88.1	93.3	81.4
유치원	70.5	59.7	52.4	59.4	55.3	64.1	12.5	65.3	23.1	85.4	42.9	76.9
월평균비용 평균												
보육시설	15.8	15.7	12.0	10.7	12.7	12.8	14.4	16.0	5.4	18.6	16.8	13.7
유치원	25.9	17.7	15.4	11.6	12.0	14.8	4.4	19.1	4.5	34.0	3.9	17.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세 번째, 이렇게 운영되는 특별활동은 외부 강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영어, 외국어, 체육과 음악 과목의 외부 강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수학과 한글 또는 한자 등은 외부 강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특히 영어는 보육시설에서는 90.2%, 유치원은 88.8%가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보육교사나 원장 이외의 외부 강사의 출강과 별도 비용 지불여부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보육료에 포함시켜서 특별활동 비용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표 V-1-8 참조).

네 번째, 별도 비용 지불 비율은 유치원보다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보육료는 상한선 제한이 있고, 이외 추가 비용도 시·군·구가 해마다 상한선을 제시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밖에 없으나, 유아교육비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비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별활동비로 지불하는 월평균 비용은 한 두 과목을 제외하고 보육시설 아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내고 있다.

2. 이용배경 및 이유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은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기초 학습 준비에 만족하는 경우에서부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가. 미래 경쟁력

1) 앞서가는 아동에 대한 기대

많은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점진적으로 아동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 현재의 특별활동을 통한 능력개발이 자녀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한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기활동 참여하는 것이 발전이 되겠죠? 생각이라든가. 발음 하나하나 막 이런 게 익숙해지잖아요. 미래에도 뭘 하더라도 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 사례6)

아동의 경쟁력에 비중을 두는 부모는 특별활동 중에 예체능이나 놀이중심의 학습 방법보다는 영어, 수학, 한글 등의 인지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수학을 안 하는 데가 대개 많잖아요. 그런 어린이집에 비해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한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많이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사례1)

안 해주면 뒤처질 것 같고, 또 그것까지 다 쫓아가려니 경제적인 것들이 안 받쳐주고. (부모 사례4)

자녀들이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더 많은 학습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보육시설에서 과목별 집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습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학습 같은 것두 영어든, 체육이든 뭐든.. 특기로 해서 일주일에 한 가지씩. 영어를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내 한 가지만 이라도 영어를 해준다던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거의 다 생각하는 게 그래요. 얘기하다 보면은.. 그걸 참 아쉽게 생각해요. 엄마

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델 찾게 돼요.(부모 사례6)

또한, 학습에 대한 요구를 보육시설이 해소해 주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의무의 일부를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위하여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이 부모가 투자해야 할 시간을 대신 지원해주고 있다는 인식은 보육시설장이 원하는 특별활동을 믿고 따르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기비가 4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어느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엄마들은요.. 그걸 부담..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든요. 솔직히요. 그거 원에서 해주면 고마운 거.. (부모 사례2)

보육시설에서 그렇게 한글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못해주는 거 해주시니깐, 저야 뭐 좋죠. 일단 돈은 들어도... (부모 사례5)

어린이집에서 같이 이끌어준다 하시니깐 그냥 믿고, 어차피 같은 것이니깐 그냥 믿고. (부모 사례4)

2) 다양한 경험

부모들은 경험의 차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세계를 접해볼 수 있도록 특별활동을 이용하게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어머니들은 놀이중심의 교육방법이 필요하다는 점과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이 놀이 방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선호한다고 밝혔다.

영어교육을 놀이식으로 영어교육을 해요. 애들이 충분히... 놀이 위주로. 그러니까,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재밌게..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부모 사례3)

애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거.. 코앤코 뮤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악기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아이들이 재밌어해요. 재미있어하고, 음감도 익히면서 다양한 악기들을 접하니깐, 그것도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 다 특기교육에 들어가잖아요. 특기활동은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 사례2)

이처럼 놀이 활동이 현재 내 아이의 연령에 적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 균형 잡힌 발달을 촉진시킬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부모와 더불어, 다른 한 편의 부모들은 좀 다른 이유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특별활동을 선호했다. 즉, 현재의 경

험이 향후에 자녀의 자기 개발, 또는 잠재력의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강한 부모들이다.

5살이니까 전문적인 것보다는 맛보기 경험. 그렇게 하다보면 7살 되고 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정말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구요. (부모 사례3)

특히, 문화 센터나 각종 학원이 있는 서울 이외의 지역 부모들 또는 자녀를 위해서 그만큼 시간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부모들은 보육시설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센터나 이런 게 있으면 어린이집을 2시까지나(보내고 싶지는 않지요).. 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으로 따지자면 골고루 음식을 먹는 거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활동이) 좋은 것 같아요. (부모 사례9)

집에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문화센터라던가 다른 데를 찾아가면서 해야돼요. 그런 것을 원에서 해주니깐 애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니깐. (부모 사례2)

아동에게 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각종 매체나 육아 지식의 영향으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으로 특별활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나. 초등학교 준비

부모들이 초등학교 준비를 기대하고 준비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 선행학습의 이점을 특별활동 이유로 생각하고 있다. 초등학교 준비를 직접 해줄 수 없어서 인지 발달 중심의 특별활동을 요구하기도 하고, 선행학습에 특별활동이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만 5세 아이라서 공부에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해요. 집에서 해줄 수 없어서 한글을 빨리 띄게 해달라고 했지요. (부모 사례4)

가베를 접해본 애들은 3학년부턴 도형이 나올 때 도형을 맞추는 감각이 틀려져요. 그래서 애가 하기 싫다고 그래도 시켰어요. (부모 사례5)

더불어 이른 나이에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어, 수학, 한글 등의 인지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수학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접한 거라 많이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사례1)

사교육을 받게 될 경우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거나 권유하는 각종 특별활동들은 선행학습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

다. 효율성

1) 비용 대비 서비스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아이의 흥미 또는 잠재력 개발에 대한 요구로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 기초 학습 준비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내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다. 수적 찬성 52.1%와 반대 43.9%로 찬성이 10%가량 많으나 반대하는 부모도 상당하다.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찬성한다는 부모는 대도시 보다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다.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43.8%가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38.2%가 보육시설 한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17.8%가 일반학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 조사에 응한 부모들은 특별활동을 하고 나서 아동들이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졌고, 눈에 띄게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예를 들어, 한글 수업을 하고 나서 말의 의미를 알아듣게 되었다거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색종이를 접는 방식이 달라지고 아는 것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동이 새로운 것을 배워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줬을 때, 부모의 특별활동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한다는 확신을 강화시키게 된다. 영유아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부모는 놀이 활동 중심의 특별활동을 선호하고, 내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 활동이 균형 잡힌 발달과 다양한 경험 기회가 된다고 확신하였다.

재미있는 놀이 위주의 특기활동을 해요. 애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음감도 익히면서 다양한 악기들을 접하니 유익한 프로그램이지요. (부모 사례2)

다양한 경험에 대한 욕구는 대도시 지역보다는 보육시설 이외에 별달리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는 읍·면지역에서 더 크다.

2) 이동 없는 서비스

또한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여기저기 다녀야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선호도가 있다. 특히, 취업모들은 통계적으로는 발달에 도움된다는 점을 더 많이 지지했으나, 면접조사에서는 ‘여러 군대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 상당히 좋다’는 반응이었다.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보육시설에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하였다. 즉, 한 자리에서 시설장이 한차례 걸러서 가지고 온 특별활동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아이 혼자 학원을 옮겨가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다. 아동이 이동하는 시간, 위험 등의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라.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찬반 이유

1) 찬성 이유

보육시설에서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부모들의 대한 찬반의견은 찬성 52.0%, 반대 44.1%로 반대보다는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다. 이 경우 각각의 이유를 조사하였다.

<표 V-2-1>는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부모들의 찬성이유를 나타내는데, 가장 많은 44.1%가 아동발달에 도움이 되어서, 38.1%가 다니고 있는 보육·교육기관에서 이동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그리고 17.7%가 일반학원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많다.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한다는 부모도 다수이다.

1학년 들어가려면 따로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끼고 학습지를 해주니까 좋지요. 집에서 하려면 따로따로 선생님을 불러야하니 까요. (부모 사례12)

특기비가 4만원이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고, 4만원으로 이

것저것 시켜주니 고맙지요. (부모 사례2)

학원에서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원하는 아이들만 따로 집중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니까요. 해주고 싶은 것을 내가 다 못 해주니깐 어린이집에 의지하게 되지요. 비용 문제가 제일 커요. (부모 사례4)

〈표 V-2-1〉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발달 도움	저렴한 비용	다양한 교육	기타	전체 수	$\chi^2(df)$
전체 연령	44.1	17.7	38.1	0.1	(698)	
영아	43.5	16.5	40.0	-	(260)	1.3(3)
유아	44.1	18.5	37.2	0.2	(438)	
모취업여부						
취업모	43.7	18.0	38.0	0.3	(316)	
미취업	44.3	17.8	38.0	-	(366)	3.0(6)
모부채	44.0	17.6	38.3	0.1	(16)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5.7	28.6	25.7	-	(35)	
100~149만원 이하	50.6	12.0	37.3	-	(83)	
150~199만원 이하	52.0	19.2	28.8	-	(125)	
200~249만원 이하	37.9	22.3	39.8	-	(103)	
250~299만원 이하	49.3	11.0	39.7	-	(73)	39.6(27)
300~349만원 이하	32.9	25.0	42.1	-	(76)	
350~399만원 이하	37.3	13.7	47.1	2.0	(51)	
400~499만원 이하	45.8	16.7	37.5	-	(72)	
500~599만원 이하	36.8	21.1	42.1	-	(38)	
600만원 이상	39.5	9.3	51.2	-	(4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2) 반대 이유

다음으로 추가 비용을 받고 특별활동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부모들의 이유는 다음의 <표 V-2-2>와 같다. 이들 부모의 가장 큰 이유로 64.9%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고 17.0%가 교육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리고 17.1%가 아동에게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기관 유형별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대한다는 전체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설유형별로는 기타법인 보육시설 부모는 아동에게 부담 주어서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큰 반면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는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

에 대해서도 31.0%가 반대하였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민간과 가정시설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비교적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특별활동이 아동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고, 중간계층에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았다.

〈표 V-2-2〉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반대 이유

단위: %(명)

구분	아동에 부담	경제적 부담	교육수준 낮음	기타	전체 수	$\chi^2(df)$
전체	17.1	64.9	17.0	1.0	100.0 (585)	
시설유형						
국공립	22.6	61.3	16.1	-	100.0 (93)	22.2(15)
사회복지법인	9.5	57.1	31.0	2.4	100.0 (42)	
기타법인	31.3	56.3	12.5	-	100.0 (16)	
민간	14.2	67.6	17.3	0.9	100.0 (352)	
가정	20.9	70.1	7.5	1.5	100.0 (67)	
직장	26.7	46.7	26.7	-	100.0 (15)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2.5	90.0	7.5	-	100.0 (40)	67.2(23)**
100~149만원 이하	10.8	82.4	6.8	-	100.0 (74)	
150~199만원 이하	14.7	71.6	11.2	2.6	100.0 (116)	
200~249만원 이하	19.3	64.8	15.9	-	100.0 (88)	
250~299만원 이하	12.7	58.2	27.8	1.3	100.0 (79)	
300~349만원 이하	16.7	56.9	25.0	1.4	100.0 (72)	
350~399만원 이하	18.5	66.7	14.8	-	100.0 (27)	
400~499만원 이하	18.9	48.6	32.4	-	100.0 (37)	
500~599만원 이하	38.7	41.9	19.4	-	100.0 (31)	
600만원 이상	38.1	42.9	19.0	-	100.0 (2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3. 이용시간

일주일간 특별활동 이용시간은 과목별로는 미술이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81.1분으로 가장 오랜 시간 수업을 하고, 한글, 기타 외국어, 수학, 영어가 평균 70분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수업 시간이 길다. 반면, 과학, 컴퓨터, 한자는 주당 평균 이용시간이 50분 이하이다. 한 주일에 미술은 최소 20분에서 최대 800분까지 운영되고 있고, 영

어는 최소 10분에서 300분, 한글(국어)은 최소 10분에서 540분까지 운영되고 있다. 영어와 미술, 수학은 주당 60분 수업이 가장 많고, 음악, 체육, 한자 등은 주당 30분 수업이 가장 많다(표 V-3-1 참조).

〈표 V-3-1〉 특별활동 과목별 주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분(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빈	최소	최대	(수)
미술	81.1	73.9	60	20	800	(282)
음악	60.2	51.9	30	15	300	(236)
체육	52.2	35.6	30	10	300	(346)
과학	46.7	31.0	30	20	200	(113)
수학	74.8	63.9	60	10	300	(104)
한글(국어)	79.9	73.6	40	10	540	(135)
컴퓨터	40.7	19.6	30	30	60	(2)
교구이용프로그램	61.2	40.7	40	20	300	(250)
한자	46.2	28.2	30	20	160	(36)
영어	70.4	48.9	60	10	300	(559)
기타 외국어	75.4	75.0	60	30	300	(15)
기타	48.2	30.8	30	20	180	(4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3-2〉 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평균 이용 시간

단위: 분(명)

구분	영아			유아			t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미술	71.5	53.1	(76)	84.6	80.1	(205)	1.8
음악	48.5	40.7	(82)	66.4	56.1	(154)	6.5**
체육	55.7	44.3	(100)	50.8	31.4	(246)	1.3
과학	38.2	22.8	(17)	48.2	32.1	(97)	1.5
수학	62.5	35.4	(15)	76.9	67.4	(89)	0.6
한글(국어)	71.9	47.7	(28)	82.0	79.0	(107)	0.4
컴퓨터	-	-	-	40.7	19.6	(2)	-
교구이용프로그램	57.6	40.5	(82)	62.9	40.8	(168)	0.9
한자	86.0	76.3	(2)	43.8	23.4	(67)	4.9*
영어	61.6	48.9	(145)	73.5	48.6	(415)	6.4*
기타 외국어	60.0	-	(1)	77.0	78.9	(14)	-
기타	41.8	20.5	(9)	49.9	33.1	(33)	0.5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는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아동 연령 구분에 따른 주당 평균이용 시간은 <표 V-3-2>와 같다. 먼저, 음악, 한

자, 영어는 영·유아간 주당 평균 이용 시간이 차이가 난다. 음악의 경우, 영어는 평균 48.5분간 이용하는 데 반해 유아는 66.4분을 이용한다. 영어는 영아가 평균 61.6분, 유아는 평균 73.5분 이용하고 있다. 그 밖에 체육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유아의 특별활동 과목별 평균이용시간은 영아의 이용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한편 <표 V-3-3>은 아동 1인당 일주일 동안 특별활동 이용시간 분포를 나타낸다.

<표 V-3-3> 아동 1인당 특별활동 총 이용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9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수)
전체	12.1	25.8	26.6	12.8	8.1	5.5	6.0	3.1	100.0	(812)
연령										
만0세	33.3	66.7	-	-	-	-	-	-	100.0	(6)
만1세	37.3	21.5	25.5	5.9	3.9		2.0	3.9	100.0	(51)
만2세	15.1	32.2	29.0	8.1	4.3	2.7	5.9	2.7	100.0	(186)
만3세	10.7	24.3	29.1	15.0	7.3	5.8	4.9	2.9	100.0	(206)
만4세	9.3	23.1	22.2	16.0	12.4	5.7	6.7	4.6	100.0	(194)
만5세	5.2	23.4	27.3	14.5	9.3	9.9	8.1	2.3	100.0	(172)
모취업여부										
모취업	12.1	21.7	30.4	12.4	9.6	3.1	8.2	2.5	100.0	(355)
미취업	12.3	29.1	23.4	13.0	6.7	7.2	4.6	3.7	100.0	(431)
모부재	11.1	26.0	25.9	18.5	11.1	7.4	-	-	100.0	(27)
시설유형										
국공립	10.9	22.5	30.4	19.6	4.3	5.8	4.3	2.2	100.0	(138)
법인	14.3	27.2	19.5	14.3	13.0	2.6	3.9	5.2	100.0	(77)
법인외	4.0	32.0	32.0	20.0	12.0	-	-	-	100.0	(25)
민간개인	11.5	24.7	26.4	11.9	9.0	6.6	7.4	2.5	100.0	(512)
가정	22.9	39.5	25.0	2.1	2.1	-	2.1	6.3	100.0	(48)
직장	7.1	28.7	35.7	-	7.1	-	7.1	14.3	100.0	(14)
특별활동개수										
1개	40.3	28.7	18.9	5.8	2.9	2.9	-	0.5	100.0	(206)
2개	6.7	40.8	24.0	11.6	11.1	2.7	2.7	0.4	100.0	(225)
3개	-	23.4	39.5	19.0	6.2	2.1	7.2	2.6	100.0	(195)
4개	-	5.8	40.4	14.4	8.7	11.5	14.4	4.8	100.0	(104)
5개	-	11.0	13.0	26.1	15.2	17.4	13.0	4.3	100.0	(46)
6개	-	-	-	7.1	28.7	7.1	35.7	21.4	100.0	(14)
7개	-	-	-	9.1	27.2	27.3	9.1	27.3	100.0	(11)
8개	-	-	-	10.0	-	40.0	10.0	40.0	100.0	(10)
9개	-	25.0	-	-	25.0	-	50.0	-	100.0	(4)
11개	-	-	-	-	-	-	-	100.0	100.0	(1)

주: 빈도수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증이 적절치 않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이를 보면, 1시간 미만 12.1%, 1~2시간미만 25.8%, 2~3시간미만 26.6%, 3~4시간 미만 12.8%, 4~5시간미만 8.1%, 5~6시간미만 5.5%, 6~9시간미만 6.0%, 10시간이상 3.1%이다.

<표 V-3-4>는 실제로 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이 어린이집에서 하는 특별활동은 유아체육, 독서논술, 유아영어, 음악(악기·신체)이다. 연령별 실시 과목은 만1세 음악(악기·신체) 1개, 만2세와 3세는 유아체육, 음악(악기·신체) 2개, 만4세와 5세는 유아체육, 독서논술, 유아영어 3개를 하고 있다. 모두 일주일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음악(악기·신체)과 영어는 30분, 독서논술은 50분 동안 이루어진다. 유아체육은 연령별로 아이들의 신체발달 수준과 활동가능시간을 고려하여 만2세 15분, 만3세 30분, 만4세 35분, 만5세 40분으로 연령별로 다르게 이루어진다.

<표 V-3-4> K어린이집 특별활동 시간 사례

구분	과목	시간대	1회 시간	횟수
만1세	음악	오전	30분	주1회
만2세	유아체육	오전	15분	주1회
	음악	오전	30분	주1회
만3세	유아체육	오전	30분	주1회
	음악	오전	30분	주1회
만4세	유아체육	오전	35분	주1회
	독서논술	오전	50분	주1회
	유아영어	오후	30분	주1회
만5세	유아체육	오전	40분	주1회
	독서논술	오전	50분	주1회
	유아영어	오후	30분	주1회

4. 비용

가. 특별활동비

1) 수납비율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모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유형별 비율은 다음의 <표 V-4-1>과 같다. 전반적으로 시설유형에 따라서 별도 비용지불여부의 차이를 보이는 과목은 음악, 체육, 한글 프로그램이다. 이들 음악과 체육 프로그램에서 가정 보육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별도 비용 지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시설의 별도 비용 지불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상대적으로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미술, 음악, 체육, 영어 등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은 영어가 가장 높아서 기타법인 시설에서는 94.4%, 국공립 시설에서는 90.4%, 민간시설에서 88.2%, 사회복지법인 시설 84.4%, 직장보육시설 80.0%, 가정보육시설 78.6%이다. 보육교사에 의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글 수업에 대해서도 전체의 73.3%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표 V-4-1> 시설운영·특별활동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χ^2 (df)
미술	비율	84.2	76.9	92.9	79.6	53.8	57.1	78.8	9.3(5)
	(수)	(38)	(26)	(14)	(186)	(13)	(7)	(284)	
음악	비율	89.6	70.0	100.0	80.7	44.4	80.0	79.4	19.2(5)**
	(수)	(48)	(20)	(6)	(140)	(18)	(5)	(237)	
체육	비율	82.4	86.5	100.0	76.9	52.0	72.7	78.1	15.8(5)**
	(수)	(68)	(37)	(12)	(195)	(25)	(11)	(348)	
과학	비율	89.3	75.0	83.3	80.6	100.0	-	81.7	6.5(5)
	(수)	(28)	(16)	(6)	(62)	(2)	(1)	(115)	
수학	비율	73.3	45.5	-	71.2	50.0	33.3	67.3	-
	(수)	(15)	(11)	-	(73)	(2)	(3)	(104)	
한글(국어)	비율	76.9	42.1	100.0	78.3	60.0	100.0	72.8	13.3(5)*
	(수)	(13)	(19)	(4)	(92)	(5)	(2)	(135)	
컴퓨터	비율	100.0	100.0	-	100.0	-	-	100.0	-
	(수)	(1)	(1)	-	(1)	-	-	(3)	
교구이용 프로그램	비율	92.6	66.7	100.0	74.2	75.0	50.0	75.7	8.2(5)
	(수)	(27)	(24)	(4)	(178)	(16)	(4)	(253)	
한자	비율	66.7	20.0	50.0	47.6	50.0	-	47.2	-
	(수)	(6)	(5)	(2)	(21)	(2)	-	(36)	
영어	비율	90.4	84.4	94.4	88.2	78.6	80.0	88.1	4.8(5)
	(수)	(114)	(45)	(18)	(348)	(28)	(10)	(563)	
기타 외국어	비율	100.0	-	-	92.3	-	-	93.3	-
	(수)	(1)	-	-	(13)	-	-	(14)	
기타	비율	60.0	-	-	83.8	100.0	-	81.4	-
	(수)	(5)	-	-	(37)	(1)	-	(43)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하고, **는 $p<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4-2>는 연령 구분별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지불 비율이다. 연령 구분별로 체육과 미술, 영어 지불 비율이 차이가 나는데, 세 과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영아보다는 유아의 경우가 별도로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높다. 그 밖에 음악, 수학, 교구이용 프로그램 역시 근소하게나마 영아보다는 유아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높다.

〈표 V-4-2〉 연령별·특별활동 프로그램 별도 비용 지불 비율

단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χ^2 (df)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미술	68.8	(77)	82.5	(206)	78.8	(283)	6.3(1)*
음악	75.6	(82)	81.4	(156)	79.4	(238)	1.1(1)
체육	68.3	(101)	81.8	(247)	78.1	(348)	7.5(1)**
과학	94.1	(17)	79.6	(98)	81.7	(115)	2.0(1)
수학	64.3	(14)	67.8	(90)	67.3	(104)	-
한글(국어)	78.6	(28)	71.3	(108)	72.8	(136)	0.6(1)
컴퓨터	-	-	100.0	(3)	100.0	(3)	-
교구이용프로그램	71.6	(81)	78.0	(168)	75.7	(249)	1.2(1)
한자	50.0	(2)	47.1	(34)	47.2	(36)	-
영어	82.8	(145)	89.9	(416)	88.1	(561)	5.2(1)*
기타 외국어	100.0	(1)	92.3	(13)	93.3	(14)	0.1(1)
기타	88.9	(9)	79.4	(34)	81.4	(43)	0.4(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0.05$ 를 의미하고, **는 $p<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2) 수납시 비용

〈표 V-4-3〉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 과목별로 월평균 지불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제시하였다. 과목별로는 영어,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미술 과목은 월 평균 2만원 이상이다. 영어과목은 2만원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작게는 월 2천원에서 많게는 월 12만원까지 비용 편차가 크다. 체육은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이며, 교구이용 프로그램 역시 최소 3천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특별활동비를 내고 있다.

이용률이 높은 영어, 미술, 음악, 체육, 교구이용 프로그램 중 교구 이용 프로그램을 제외한 과목들은 보육시설 유형별 월평균 비용의 차이가 있다. 대체로 국공립과 사회복지 법인이 상대적인 비용이 적은 반면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은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표 V-4-4 참조).

〈표 V-4-3〉 특별활동 프로그램 과목별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수)
미술	20.2	12.9	3	70	(222)
음악	19.6	13.1	3	70	(186)
체육	15.4	12.2	5	120	(268)
과학	13.2	9.2	2	50	(91)
수학	19.2	13.6	2	70	(67)
한글(국어)	17.5	11.3	3	70	(97)
컴퓨터	14.4	14.7	6	30	(2)
교구이용프로그램	21.0	15.1	3	100	(185)
한자	11.6	5.9	2	30	(18)
영어	21.2	12.9	2	120	(487)
기타 외국어	18.6	11.3	7	40	(14)
기타	16.6	9.1	5	50	(3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4-4〉 특별활동 프로그램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비용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기타 법인	민간	가정	직장	전체	F
미술	비용 (수)	13.7 (32)	19.9 (20)	21.6 (13)	21.6 (148)	19.3 (7)	11.0 (4)	20.1 (223)	2.5*
음악	비용 (수)	13.2 (48)	19.5 (14)	14.1 (6)	22.4 (113)	21.1 (8)	23.4 (4)	19.8 (189)	3.6**
체육	비용 (수)	11.5 (56)	19.5 (32)	14.1 (12)	22.4 (150)	21.1 (13)	23.4 (8)	19.8 (271)	4.1*
과학	비용 (수)	11.2 (25)	11.1 (12)	7.1 (5)	14.9 (50)	19.8 (2)	- (94)	13.1 (94)	1.7
수학	비용 (수)	11.9 (11)	19.0 (5)	- (52)	19.8 (52)	41.7 (1)	10.0 (1)	18.9 (70)	2.0
한글(국어)	비용 (수)	13.4 (10)	14.1 (8)	11.2 (4)	18.1 (72)	22.6 (3)	29.5 (2)	17.5 (99)	1.4
컴퓨터	비용 (수)	30.0 (1)	8.0 (1)	- (1)	6.0 (1)	- (1)	- (2)	14.4 (2)	-
교구이용 프로그램	비용 (수)	14.0 (25)	19.9 (16)	10.2 (4)	23.0 (132)	21.3 (12)	10.0 (2)	21.1 (190)	2.1
한자	비용 (수)	14.9 (4)	2.0 (1)	10.0 (1)	10.49 (10)	15.0 (1)	- (17)	11.4 (17)	0.9
영어	비용 (수)	16.4 (103)	16.7 (38)	18.9 (17)	23.2 (307)	24.4 (22)	21.4 (8)	21.1 (494)	5.8**
기타 외국어	비용 (수)	7.0 (1)	- (1)	- (1)	19.9 (12)	- (1)	- (1)	18.6 (14)	1.7
기타	비용 (수)	6.6 (3)	- (3)	- (3)	18.0 (31)	6.0 (1)	- (35)	16.8 (35)	2.8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하고, **는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먼저, 영어 과목의 경우 평균 비용은 월 21,100원이나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보육 시설은 각각 16,400원과 16,700원이다.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23,200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술, 음악, 체육 교과목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월평균 비용은 아동의 연령 구분에 따라 큰 차이는 없다. 음악 과목은 영아 월 평균 17,000원, 유아는 21,200원을 지불하여 월 평균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한자 과목은 영아 15,000원, 유아 11,300원으로 4,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밖의 과목은 1천원 내외이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영아가 월 평균 21,500원, 유아는 월 평균 21,000원이고 체육 역시 영아 15,800원, 유아는 15,200원이다. 영아보다는 유아가 각 과목별 월 평균액의 편차가 크다(표 V-4-5 참조).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자의 월 평균 비용은 3,000원에서 200,000원까지 다양하며, 전체적으로 월평균 비용은 44,400원이다. 개수별로는 1개 이용시 월평균 비용 29,800원, 2개 41,300원, 3개 48,600원, 4개 56,800원, 5개 61,600원, 6개 61,400원, 7개 79,200원, 8개 54,300원, 9개 58,400원, 11개 65,000원이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다르므로 개수가 늘어난다고 비용이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표 V-4-6 참조).

〈표 V-4-5〉 연령별·특별활동 프로그램 주당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영아			유아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미술	19.0	12.2	(53)	20.4	13.1	(170)
음악	17.0	10.7	(62)	21.2	14.1	(127)
체육	15.8	10.1	(69)	15.2	12.9	(202)
과학	13.5	7.8	(16)	13.0	9.4	(78)
수학	18.7	12.6	(9)	18.9	13.5	(61)
한글(국어)	18.5	11.3	(22)	17.2	11.2	(77)
컴퓨터	-	-	-	14.4	14.7	(2)
교구이용프로그램	20.8	13.4	(58)	21.2	16.2	(131)
한자	15.0	-	(1)	11.3	6.1	(16)
영어	21.5	12.4	(120)	21.0	13.1	(374)
기타 외국어	20.9	17.3	(1)	18.3	11.5	(12)
기타	15.6	6.8	(8)	17.2	9.9	(2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표 V-4-6〉 특별활동 이용 개수별 월 평균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평균	(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44.4	(725)	26.3	3.0	200.0
1개	29.8	(175)	16.9	3.0	100.0
2개	41.3	(211)	21.4	10.0	150.0
3개	48.6	(176)	28.8	5.0	198.0
4개	56.8	(95)	29.4	10.0	200.0
5개	61.6	(37)	22.1	17.0	112.0
6개	61.4	(10)	25.9	26.0	110.0
7개	79.2	(10)	43.7	25.0	158.0
8개	54.3	(7)	19.5	25.0	80.0
9개	58.4	(4)	24.4	30.0	90.0
11개	65.0	(1)	-	65.0	65.0
F	16.1**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1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도 3,000원에서 100,000원까지 비용 차이가 있고 3개 이용의 최소값이 5,000원인 반면 4개 이용의 최대값이 200,000원으로 월 평균 비용의 분포는 넓다. 전체 아동 중 가장 많은 수인 11개를 이용하는 아동의 월평균 특별활동 비용도 평균 65,000원으로 7개 이용시 보다 오히려 비용이 적다.

나.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찬반

보육시설에서 추가비용을 받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모의 의견을 알아보면 <표 V-4-7>과 같다.

전체적으로 부모의 52.0%는 추가비용을 내고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44.1%는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3.9%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다. 거주지역, 아동의 연령 및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 분포가 차이가 있다. 읍·면지역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중소도시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비율이다. 아동의 연령별로 아동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르겠다는 입장이 줄고 찬성하는 경향이 높아진다. 소득 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소득층이 찬성하는 부모가 많다. 기타법인 보육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및 민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의 찬성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반면, 가정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 이용 아동 부모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

〈표 V-4-7〉 보육시설 이용 부모의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잘모름	전체	수	χ^2 (df)
전체	52.0	44.1	3.9	100.0	(1,342)	
시설유형						
국공립	51.9	43.5	4.7	100.0	(214)	16.4(10)
사회복지법인	57.3	36.8	6.0	100.0	(117)	
기타법인	67.9	30.2	1.9	100.0	(53)	
민간	52.4	44.1	3.5	100.0	(801)	
가정	42.1	53.2	4.8	100.0	(126)	
직장	38.5	57.7	3.8	100.0	(26)	
지역구분						
대도시	53.4	42.8	3.8	100.0	(697)	17.8(4)**
중소도시	46.7	48.7	4.6	100.0	(591)	
읍면	62.1	35.5	2.4	100.0	(53)	
연령						
만0세	43.5	45.7	10.9	100.0	(46)	27.8(10)**
만1세	41.8	53.1	5.1	100.0	(177)	
만2세	50.8	44.0	5.2	100.0	(327)	
만3세	51.7	44.5	3.8	100.0	(317)	
만4세	61.3	37.5	1.2	100.0	(256)	
만5세	53.5	43.7	2.8	100.0	(213)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41.2	49.4	9.4	100.0	(85)	36.4(18)**
100~149만원 이하	49.1	44.4	6.5	100.0	(169)	
150~199만원 이하	49.6	46.4	4.0	100.0	(252)	
200~249만원 이하	52.3	45.2	2.5	100.0	(197)	
250~299만원 이하	46.0	49.1	4.9	100.0	(161)	
300~349만원 이하	49.4	46.8	3.8	100.0	(154)	
350~399만원 이하	64.9	35.1	-	100.0	(117)	
400~499만원 이하	64.3	34.8	0.9	100.0	(188)	
500~599만원 이하	52.9	44.3	2.8	100.0	(125)	
600만원 이상	65.2	31.8	3.0	100.0	(137)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다. 적정 비용

부모들이 생각하는 특별활동 적정비용은 3~5만원에 약 1/3이 분포하고 2만원~7만원 미만 사이에 70%가 넘게 몰려있으나, 지역, 모취업, 가구소득, 보육료 지원,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있다(표 V-48 참조).

먼저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 10만원 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읍·면 지역 부모는 43.1%가 3만원~5만원 미만을 선호하였다.

어머니의 취업 여부별로 취업모와 미취업 모는 10만원 이상 이용 부담에 대해 각각 9.6%, 5.7%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수준별로 10만원 이상 높은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태도 차이가 있다. 200만원 미만은 1~2%, 250만원~499만원 계층은 10% 내외, 600만원 이상 소득 계층은 2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 계층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특별활동비는 3만원~5만원미만이었다.

보육료 지원 여부에 따라서도 추가비용 부담 액수의 차이가 있다.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인 만큼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부모의 추가부담 비용 액수가 상대적으로 큰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전액 지원을 받는 부모들 역시 3만원~5만원 미만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가 32.2%, 10만원 이상도 7.4%이다. 차등 지원을 받는 부모 역시 26.8%가 5만원~10만원 미만, 29.6%가 3만원~5만원 미만의 추가 부담 의사가 있었다.

〈표 V-4-8〉 제 특성별 특별활동 추가비용 실시 찬성 부모의 적정 추가 부담액
단위: %(명)

구분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전체 수	$\chi^2(df)$
전체	1.9	11.6	22.0	32.1	22.3	2.7	7.4	100.0 (700)	
지역구분									
대도시	0.4	10.7	23.3	29.8	26.3	3.0	6.5	100.0 (262)	
중소도시	2.5	12.8	20.6	28.4	24.4	2.4	8.9	100.0 (282)	25.7(12)*
읍면	3.3	10.5	22.9	43.1	11.7	2.0	6.5	100.0 (153)	
모취업여부									
취업모	2.9	14.3	19.1	29.9	22.3	1.9	9.6	100.0 (314)	
미취업모	0.8	9.6	23.2	34.7	22.7	3.3	5.7	100.0 (366)	27.0(12)**
모부재	-	-	60.0	20.0	13.3	-	6.7	100.0 (15)	

(표 V-48 계속)

구분	1만원 미만	1~2만원 미만	2~3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5~7만원 미만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전체 수	$\chi^2(df)$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	17.1	22.9	34.3	25.7	-	-	100.0 (35)	107.6(54)**
100~149만원 이하	2.4	13.1	31.0	33.3	16.7	1.2	2.4	100.0 (84)	
150~199만원 이하	5.6	12.8	22.4	29.6	25.6	2.4	1.6	100.0 (125)	
200~249만원 이하	1.0	5.8	19.2	41.3	22.2	3.8	6.7	100.0 (104)	
250~299만원 이하	1.4	6.8	23.0	37.8	18.8	-	12.2	100.0 (74)	
300~349만원 이하	2.6	21.1	19.7	21.1	15.8	10.5	9.2	100.0 (76)	
350~399만원 이하	-	14.0	20.0	28.0	28.0	-	10.0	100.0 (50)	
400~499만원 이하	-	9.6	21.9	28.8	30.1	1.4	8.2	100.0 (73)	
500~599만원 이하	-	2.8	16.7	47.2	11.0	5.6	16.7	100.0 (36)	
600만원 이상	-	7.0	18.6	20.9	30.3	2.3	20.9	100.0 (43)	
보육료지원									
전액면제	2.5	12.0	24.4	32.2	19.0	2.5	7.4	100.0 (314)	31.5(12)**
일부감면	2.3	12.8	25.7	29.6	24.1	2.7	2.7	100.0 (365)	
혜택없음	0.5	9.6	14.6	34.8	23.7	3.0	13.6	100.0 (15)	
시설유형									
국공립	0.9	9.0	18.1	47.7	16.2	3.6	4.5	100.0 (111)	69.6(36)**
사회복지법인	5.9	13.2	17.6	44.1	16.2	1.5	1.5	100.0 (68)	
기타법인	-	30.6	36.1	11.0	16.7	-	5.6	100.0 (36)	
민간	1.7	10.0	22.0	29.9	24.9	3.1	8.5	100.0 (422)	
가정	1.9	11.5	28.8	19.2	23.2	1.9	13.5	100.0 (52)	
직장	-	30.0	10.0	10.0	40.0	-	10.0	100.0 (10)	

주: *은 통계적 유의도 $p < 0.05$ 를 의미하고, **는 $p < 0.01$ 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시설 유형별로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시설 이용 부모는 3만원~5만원 미만에 각각 47.7%, 44.1%이고 민간보육시설 부모는 3만원~5만원 미만이 29.9%, 2만원~3만원 미만 22.0%, 5만원~7만원 미만 24.9%로 선호하는 비용의 분포가 넓다. 가정 보육시설은 2만원~3만원 미만이 28.8%로 가장 많고 10만원 이상도 13.5%가 되었다.

5. 만족도 및 요구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과목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V-5-1>과 같다. 과목별 만족도는 대체로 5점 만점에 2.4~4.0점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과목을 제외하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컴퓨터 3.9점이

다. 기관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영어 과목에서 보육시설 3.6점, 유치원 3.7점, 반일제이상 학원 3.3점, 기타 2.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의 과목별 만족도는 3.6~3.9점 사이에 대체적으로 분포하며 기타가 3.9점, 미술과 한글이 3.8점으로 비교적 높고 영어와 기타 외국어가 3.6점으로 미미한 차이이지만 가장 낮다(표 V-5-1 참조).

〈표 V-5-1〉 특별활동 만족도(5점 평균)

단위: 점(명)

구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이상 학원	기타	전체	F	(수)
미술	3.8	3.7	3.9	4.0	3.7	0.9	(433)
음악	3.7	3.7	3.8	3.0	3.8	1.1	(324)
체육	3.7	3.8	3.7	3.3	3.7	0.4	(474)
과학	3.7	3.7	3.7	-	3.7	0.1	(189)
수학	3.7	3.7	3.6	4.0	3.7	0.1	(165)
한글(국어)	3.8	3.7	3.8	-	3.8	0.5	(213)
컴퓨터	3.7	3.9	-	-	3.9	0.8	(11)
교구이용프로그램	3.7	3.8	3.5	3.0	3.7	1.3	(332)
한자	3.7	3.7	3.3	-	3.7	0.4	(52)
영어	3.6	3.7	3.3	2.4	3.6	3.7*	(795)
기타 외국어	3.6	3.9	4.0	-	3.7	0.4	(24)
기타	3.9	3.8	3.6	-	3.9	0.6	(57)

주: *는 통계적 유의도 $p < .05$ 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임.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만족하는 부분은 매일 함께 생활하는 담임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수업을 한다거나 평소 접하지 못하였던 활동과 교재·교구를 이용하여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새로운 경험과 호기심을 자극시켜 아동들이 흥미로워하게 되고, 아동들의 이러한 반응을 통해 부모가 그러한 특별활동에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아동들의 이러한 흥미나 관심은 그냥 일반적인 반응일 뿐이고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는 것은 부족하다는 반응도 있다. 특별활동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대해 회의적인 부모 경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경향이 있다.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는 비용 지원 요구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중일반 비용 지원을 많이 거론하였다.

6. 요약 및 시사점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주로 10분에서 30분 단위의 시간에 주 1~2회 진행된다.

특별활동 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과목당 월 평균 1~2만원 선으로 아동 1인이 특별활동을 위해 내는 비용은 월평균 4만 4천원 정도이나 이용하는 개수에 따라서 3,000원에서 200,000원까지 그 분포는 다양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영어이다. 영어 수업의 경우 1주일에 2~3회에 걸쳐서 60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최소 10분에서 300분까지 진행된다. 영어 프로그램의 90% 이상이 외부 강사가 보육 시설을 방문하고 부모는 매월 약 2만원의 수강료를 낸다. 물론, 영어 비용은 월 2천원에서 12만원까지 수강료의 편차가 대단히 큰 과목이다.

이와 같은 영유아의 보육시설 특별활동 이용 분석에 따른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의 실시나 수강은 매우 보편적인 일으로, 이렇게 보편적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어가 가장 많고, 체육이나 미술 음악 등의 예체능 과목이 채택되고 있다. 수강 아동수를 2008년 12월 보육아동 현황과 대비시켜 환산하면, 영어 약 47만 여명, 체육 29만 여명, 미술 24만 여명, 교구이용 프로그램 21만 여명, 음악 20만 여명, 한글 11만 여명, 과학 9만 5천 여명, 수학 8만 8천 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둘째, 부모 입장에서 보면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매우 효율적 교육상품으로 활성화 될 요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한 정책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부모들이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이유는 크게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 집 한 곳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있음을 들었다. 이 외에도 특별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가 따로 학원을 알아봐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에 특별활동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소수의 부모들은 특별활동으로 하는 교과목을 자녀가 좋아하고,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이리저리 옮겨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적은 비용으로 특별활동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는 가족이나 주변에 자랑거리가 되고 장기적으로 자녀가 앞서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므로, 가능한 한도에서 특별활동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셋째, 일부 부모들의 요구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을 나타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질적

수준이 높지 않아 이를 반대한다는 부모도 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충족되지 않는 활동을 보충하기 위해 학습지를 하거나 태권도 등의 다른 학원에 아동들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취학을 앞 둔 만5세아 부모들에게서 두드러졌다.

넷째,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요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을 반대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유였으며, 일부 부모가 아동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비용 징수가 부담스러운 부모들은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특별활동 관련 부모 교육과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부모들은 특별활동에 대하여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들의 특별활동 관련 선택권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아 주관적으로 어떤 특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시설장의 제안과 제한된 네트워크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얻은 특별활동 목록들 중에서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VI. 특별활동 관련 정책제언

앞에서 살펴본 보육시설 특별활동 실시와 이용 실태를 토대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1절에서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긍정과 부정적 양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정책방향의 기본원칙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특별활동의 영향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아동, 부모, 보육과정, 시설장, 교사, 일자리 및 보육관련 기업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 발달 촉진과 부담

특별활동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일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호기심 자극으로 인한 발달 촉진과 부적절한 활동으로 인한 부담의 양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발달이론에서 아동은 신체적·사회적 경험과 문화적으로 전달된 지식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그들 자신만의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정의되어 왔고, 아동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은 놀이라고 정의되었다. “놀이는 아동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사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정서를 표현하거나 조절하고 또 그들의 상징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NAEYC, 1997)는 입장은 발달을 위해 아동 주도적(child-initiated)이고 교사 지원적인(teacher-supported) 놀이에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이론에 근거한 전인교육, 아동 중심 혹은 놀이중심 교육, 통합보육과정 등은 현실에서 교육적 효과를 바로바로 검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아동의 발달은 연속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별 아동들에 대한 주의깊은 관찰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 발달 기회가 주어진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자신감과 유능감의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자신감과 유능감은 유아기를 지나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아기 이후의 사회적 관계에도 또한 영향을 미친다.

특별활동 역시 아동활동을 촉진시키는 자극이라면 적절한 자극과 그렇지 못한 자극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를 것이다. 대체로 특별활동은 새로운 선생님이 평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재·교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매우 즐겁게 활동에 참여하는 편이라고 한다. 보육시설에서 매일 함께 하는 보육교사는 아동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자극을 주는 사람이지만, 새로 오는 실습교사나 특별활동 선생님은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으로, 아동들이 무척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 대부분이 여성인 보육교사와 비교하여 남자교사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남자 선생님들은 목소리도 우렁차고, 활발하게 진행하므로 생동감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환기와 호기심 자극은 영유아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 교사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특별활동 시간에 활동 집중력으로 연결되며, 결국 더 높은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특별활동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동들은 대단히 차별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특별활동에서의 활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연결될 수 있고, 특별활동 교사가 활동 방법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아동들이 생각·추측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거나, 단순한 반복학습이 아니라 잘 따라 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에게 다른 과제를 줄 수 있다면 특별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잘 하지 못하는 아동은 아동 스스로 자신이 못한다는 실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지 못한다면 특별활동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로 남는다.

또한 특별활동이 선택적으로 제공되고 미참여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때 특별활동에서 제외된 아동의 소외감과 스트레스 또한 부정적 요인이 된다.

그런 점에서 특별활동이 아동 발달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의 문제는 한 마디로 답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 안에 놓여 있다.

나. 부모의 교육열 충족과 경제적 부담

부모 관점에서는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의 교육열을 충족시키고 부모역할을 다 한다는 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 반면에, 경제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

특별활동의 발달 효과에 대한 부모의 판단 기준은 자녀 교육관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다. 우선, 학업성취 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는 특별활동을 자녀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다익선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인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는 과도한 특별활동이 아동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다른 한편의 부모들은 특별활동과 자녀의 능력개발 문제를 꼼꼼히 따지기 보다는 관행을 따라가는 선에 머문다.

면접에 응한 부모들은 전문가적인 수준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아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보육시설에서 자녀의 일과를 세세히 알지 못하였다.

먼저, 학업성취 지향적인 교육관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특별활동 선생님을 모방해서 흉내 내고, '종이 접기', '영어 단어 말하기', '도형의 이름 말하기' 등과 같은 수많은 기술적 능력을 키웠다는 점에서 발달에 대단히 도움을 줬다고 믿었다. 적어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특별활동은 단시간 내에 기능 습득의 효과가 입증된다는 점에서 부모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특별활동을 통해서 자녀가 할 줄 아는 것이 많아졌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경제 상황에 비추어 여러 기관들을 비교해 볼 때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 비용 부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만족감은 더 커진다. 피아노나 발레와 같은 특별활동을 사설 학원에서 수강할 경우 과목당 월 7~8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보육시설에서는 월 1~2만원에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하고 특히 흥미로워하거나 잘 따라하는 경우 자녀에게 그 분야에 대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보육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특별활동은 아동의 잠재력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특별활동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부모들은 막연하게 "뭘 하더라도 안하는 것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전인적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게 아동 양육에 있어서 '놀이 및 다양한 경험 제공'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교육 위주의 특별 활동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너무 일찍 영어 등의 학습을 시키는 것이 공부에 대한 흥미나 창의성 등에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였다. 이들 부모는 특별활동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교육 위주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고 아동이 흥미를 느끼는 생태 활동이나 견학과 같은 특별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관행을 따라가는 부모들은 특별활동이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발달문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아동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아이들 다 하기 때문에 나만 시키지 않을 수 없어서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특별활동에 대해서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라는 공동생활에서 내 자녀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의 교육비만큼은 지원해야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부모는 추가 경비 자체가 부담이 된다고 하면서도 비용 대비 발달에의 효율성을 따지지는 않는다.

최근 수년간 특별활동이 증가한 배경에는 보육료 지원의 확대가 있다. 보육료 지원으로 가계지출을 줄이기보다는 특별활동비로 지불하는 가정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보육과정 보완 및 훼손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이 제공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여 이를 보완한다는 입장과 반대로 보육과정 운영을 훼손한다는 견해로 정리할 수 있다.

시설장의 입장에서 특별활동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이자 전문가에 의해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되고 있다. 전자는 주로 농어촌 지역 시설장의 의견이고 후자는 대도시 지역 시설장의 입장을 대변한다.

먼저, 농어촌의 경우 마을 근거리에는 다양한 문화 자원이 빈약하다. 학교나 보육시설의 놀이터가 가장 큰 놀이거리이고 피아노나 미술 학원에의 접근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문화적인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을 하는데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중요하다. 시설장들은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 있기 때문에 놀이를 통한 학습도 중요하지만 특별활동을 통하여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해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이 아니고서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악기나 댄스 같은 체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것을 접하게 함으로서 영유아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동에 비해서 특기나 재능이 떨어지면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그 차이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특별활동 강사에 의해서 영유아의 경험폭이 넓어졌다는 견해이다. 물론 아동 발달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은 쉽사리 측정되지 않는다. 아동 발달은 연속적이고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받고 장시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보육과 놀이 중심의 활동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성인의 교육과정에

서 보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과는 다르다. 그러나 시설장의 입장에서 30분 단위의 수업 매뉴얼에 따라서 수업을 운영하는 특별활동 강사의 수업은 전문적이어서 아동의 능력 신장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시설장들은 보육교사들이 특별활동 강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전문적이고 깊이있는 수업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보육과정에서도 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교사의 수업방식을 응용한다면 전반적으로 보육과정의 전문성 또한 신장되어 교과과정이 내실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동기부여는 양가적이다. 아동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찰과 교재교구의 준비로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교과목 단위로 일과를 세분화시켜 아동의 경험을 파편화시킬 수도 있다. 특히, 특별활동 교사의 전문성으로부터 자극 받고 보육교사가 모방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동의 발달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육 과정의 전문성이 취학 후 학습과 같은 형태의 전문성으로 왜곡될 여지도 있다.

한편,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특별활동이 분절적으로 일과 운영과 관계없이 공급자 시간표에 맞추어 오전, 오후 아무 때나 실시되고 프로그램이나 강사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하지 않을 때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라. 보육시설의 위상 정립과 운영 안정

특별활동은 시설마다 다양하게 선별·운영되기 때문에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든 시설의 차별화 수단으로서 부모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시설장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더불어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시설 운영자의 입장에서 경영상의 이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육시설이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투자해야 할 시간을 대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인식은 보육시설장이 원하는 특별활동을 믿고 따르게 하는 요인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시설장의 지식은 부모에게 주도권을 갖게 하는 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즉 어떤 교육을 어떤 시기에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걱정한 지침은 없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특별활동 전문학원이 생기고 유치원에서 조차 특목고반을 개설하는 현실에서 이것저것 발달의 효과와 접목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운영하는 시설장은 부모에게는 교육 전문가로 인식된다.

적정한 지침의 부재는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막연하게 따라가게 되거나 또는 자신들보다는 전문성에 있어서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보육시설장의 견해를 쫓아가는 경향을 낳게 한다.

전문가로서의 시설장의 입지는 값비싼 특별활동을 많이 하는 시설장뿐만 아니라 특별활동의 역효과를 주장하며 놀이방식의 보육과정을 고집하는 시설장에게도 해당된다. 이들 역시 특별활동이 아동에게 부적합하다거나 현재 해당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보육과정이 아동 발달에 최적이라는 등의 의견을 통해서 부모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특별활동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경영상의 이점이 있다. '특별활동의 트렌드'에 민감한 부모들이 많을 경우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은 경영여건을 호조시키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즉, 특별활동 트렌드에 충실한 과목 개설은 부모의 마음을 잡아서 영유아의 장기적인 재원과 이용을 촉진하고, 소문이나 부모의 평판에 따라서 충분한 대기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보육시설은 명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획득한다. 또한, 특별활동 잘하는 기관이라는 명성은 고가의 특별활동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모들의 취원과 재원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원활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재원 구조의 안정성은 교재 교구의 구입과 같은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급간식과 교사 수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 교사의 휴식과 소외감

일과 시간 중에 특별활동을 할 경우 특별활동 시간동안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 외부 강사에 비하여 전문성의 부재로 소외당하는 측면이 있다.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으로 교사들과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장시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하는 보육교사들이 '잠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자, 특별활동에 보조교사로 참여하면서 반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특별활동 시간은 일과 중 여유를 준다는 의견이 많다.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보조교사나 공동 담임제 등을 실시할 수 없는 보육시설에서 담임선생님들은 아동이 귀가할 때까지 일과 시간 중 공식적인 휴식시간은 없다. 그런 점에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가량의 여유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휴식시간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휴식시간은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벗어나 완전히 쉰다는 의미가 아닌, 반을 전담하는 역할에서 참관이나 보조의 역할을 하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더불어 특별활동에 참관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반 아동들과의 친교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시설 전체의 친밀도가 높아진다고도 생각하고 있다.

한편, 특별활동 시에 보육교사가 소외되는 문제가 있다. 특별활동 외부강사의 전문성이 부각됨에 따라 보육교사는 보조교사의 형태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 이는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바. 영유아 관련 산업과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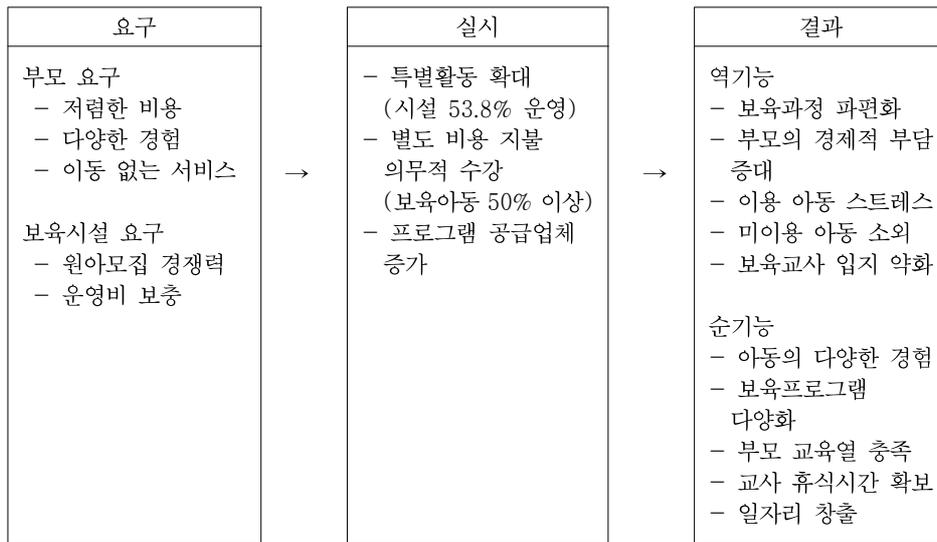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일자리와 기업 활성화 측면이 있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협의로 보면 외부강사에 의하여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보육시설 조사에서 특별활동이라고 보고한 경우에도 모두 외부강사가 하는 것은 아니어서 개념상의 불일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영어, 외국어, 체육은 각각 90.2%, 86.7%, 83.8%가 외부강사에 의하여 실시되며, 한자와 미술은 45% 내외, 수학과 한글 등도 20% 이상이 외부강사에 의하여 진행된다. 시설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강사 비율은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특별활동은 외부강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겠다.

또한 보육관련 기업체를 확충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외부강사는 시설장이 개별적으로 섭외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에는 특별활동 관련 업체가 중심이 되어 수업 내용과 운영을 결정한다. 영어의 경우, 튠튼 영어, 웅진, 천재교육, 동심, 두산 동아, 푸른솔, 참좋은 교육, 행복한 교육, 뮤지컬 잉글리쉬 등등 전국적인 체인망을 소유하거나 교재교구 회사·보육사를 중심으로 지역별 거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체육 역시 보육시설 재롱잔치나 각종 행사를 외주하는 업체들이 주로 차량 소지자들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업 당일 매트, 뽀뽀, 줄넘기, 각종 놀이 기구 등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진행한다. 음악은 악기놀이를 주로 하는 각종 오르프 관련 업체, 코앤코 등의 업체가 전국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현재 이들 사업체의 전체적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보육아동 중 약 50% 정도인 50만명이 월 평균 44,000원을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2. 특별활동 정책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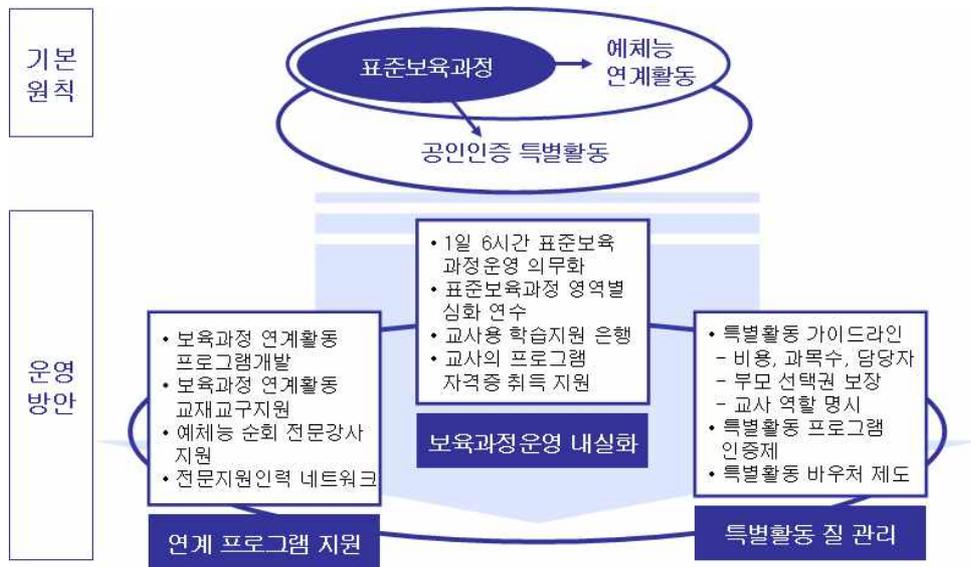
영유아 발달은 초기 경험 및 학습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양육자나 교육자는 신체, 언어, 사회, 정서, 인지 발달 등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 수준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보육이 이루어지는 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활동이기 보다는 외부로부터 별도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과목 수업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표준보육과정의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

모든 부모가 특별활동 이용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동하지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아동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존재한다. 시설은 원아 모집 및 유지를 위하여 종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경쟁이 불가피하여 차별적인 학습과정을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 및 역량상의 이유로 시설 자체적으로 다양하고도 차별적인 보육과정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여력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보육시설은 지역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활동이 아동의 유일한 문화 체험임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림 VI-2-1] 특별활동 요구, 실시 및 결과

이와 같은 현실에서 특별활동의 전면 금지는 실효성을 찾기 힘들다. 오히려 특별 활동이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특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을 중심으로 통합 및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표준보육과정을 내실화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고른 발달을 도모하고 질적으로 관리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특별활동은 아동의 발달단계 및 표준보육과정의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과와 연계된 특별한 활동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2-2] 특별활동 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안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특별활동에 대한 정책방안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표준보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요소를 지원하고 일과운영 방침을 제시한다. 적어도 오전시간 또는 일정 시간은 통합된 일과 활동과 분리된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정규 보육과정 이외의 자유놀이활동 시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과와 연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시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시행하여 특별활동이 보육과정과 연계되고 일과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3. 특별활동 관련 정책 제언

가. 보육과정 운영 내실화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기 연령에 따라서 발달수준과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연령단계별로 구성된 보육과정이다. 발달 적합성이 떨어지는 과도한 교육과정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은 ‘보육시설의 장은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육시설 중 일부는 일과의 통합을 지향하는 표준보육과정과 다르게 특별활동 교과목으로 일과를 구성하고 있거나 특별활동 파견 교사의 일정에 따라 보육과정 흐름과 무관하게 특별활동 교과를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만큼은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게 일과 통합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표준보육과정 운영 지침 강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 수립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1일 6시간, 1주 30시간은 보육교사가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한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규 보육과정을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정규 보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활동은 제한한다.

2) 시설장과 보육교사 교육 강화

가) 표준보육과정 및 영역별 심화 과정 연수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표준보육과정 활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보육교사가 보육계획안에 따라 보육과정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사는 개별 유아의

상태와 기질, 건강이나 심리 상태 및 교실 분위기에 따라 융통성있게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랜 보육 경험과 아동 및 활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문 인력 자원이 풍부한 관련 전공 대학교와 대학부설 보육교사 교육원 등에 표준보육과정 연수 과정 및 영역별 심화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각 과정은 보육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방법의 개선을 목표로 실습과 개별 평가 중심의 방법으로 운영한다.

나) 교사용 학습지원 은행 운영

역량 있는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 보육정보센터에 보육교사 학습지원 은행을 개설한다. 보육교사는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별 프로그램 또는 일과 통합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신이 개발하였거나 기존의 보육과정 안을 응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학습지원 은행에 등록한다. 등록된 프로그램을 모든 보육교사가 열람하거나 프로그램의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현장 적용성 높은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통시킨다.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교사의 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경우에 교사 연수나 교재교구 우선 대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 과정 비용 지원

보육교사가 보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과정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고용보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프로그램 지원 네트워크 운영

1) 표준보육과정 및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현재 표준보육과정은 프로그램의 활용이 어려워져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먼저 표준보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외에 오후 자유놀이활동시간에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실내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보육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시·도교육청에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일제 프로그램 관련 장학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에듀케어 프로그램도 지역 교육청별로 다양한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의 교사 활용도 및 연령별 발달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범 운영하고 교사의 활동을 매뉴얼화하여 제공한다. 매뉴얼에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교수 전략과 상호작용방법, 관찰 일지 등도 수록하여 시간에 쫓기는 보육교사들의 보육과정 운영 역량을 제고한다.

2) 교재교구 및 보육과정 운영지원

표준보육과정이나 연계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지원한다. 시·도,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표준보육과정 및 새로 개발된 표준보육과정 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재교구를 구비하고 일정 기간 보육시설에 대여한다. 보육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구이용 프로그램과 음악 활동은 보육시설이 자체 구입하기 어려운 교구와 악기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쌓기놀이영역과 음률영역과 연계하여 개발된 활동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교재교구 대여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수업 지도 방법을 문서 또는 동영상의 형태로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육전문요원이 방문지도하여 보육교사의 질 높은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3) 보육시설 순회 전문강사 지원체계 구축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육교사가 단기간에 획득하기 어려운 예·체능 영역의 보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순회 전문강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한다.

보육시설 순회 강사는 영유아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해당 분야의 전문적 역량을 겸비한 자로 자격심사와 소정의 교육 후에 전문강사 풀 등록 과정을 거친 후, 보육시설 예능 활동을 위한 순회 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강사 자격은 2년제 대졸이상자로 음률, 미술, 신체 관련 영역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1년 이상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40시간 영유아 발달특성 및 상호작용 방식에 대한 이론과 실무, 영유아 발달 및 학습에 적합한 교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한다. 보육시설 순회 강사로 활동시 2년 단위마다 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순회 강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순회 전문강사 자격 부여 및 관리, 파견 등 업무는 보육정보센터가 담당한다. 자격을 획득한 강사를 보육프로그램 활동 지원 강사풀에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강사 프로필과 수업 내용 개요 등을 수록한다.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강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예능활동 지원 강사 풀에서 강사가 지원될 경우 소정의 강사료를 지원하며, 보육시설은 강사 활동 이후에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체계화한다.

4) 전문 지원인력 네트워크 구성

보육정보센터는 아동 심리, 발달 관련 전문가와 과학기술인, 예술가 등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전문강사 풀 운영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기관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순회강사로 활동하도록 한다.

전문인력과 보육시설 순회 강사 및 보육교사 간 공동 워크숍을 통해 교사 및 강사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유아교육의 경우, 2009년 현재 약 1,000여개의 유치원에서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지원으로 세대간 지혜나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를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성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다문화(영어), 과학, 예·체능 등 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문 교육 분야를 우선 개발하고, 전문분야의 중·고령 인력풀을 구축하여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한다. 과학창의재단,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기관을 활용하며, 또한 학부모 및 현장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전문가 자원봉사 풀을 구축하여 종일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 지원하고 있다.

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1) 특별활동에 대한 지침 제시

특별활동의 근원인 부모의 교육열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유지와 상승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별활동에 관하여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의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조사 연구들이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계속 실시될 것임을 시사하였다. 부모들은 보육 시설 특별활동에 대하여 많은 요구를 하고, 시설장들도 원아확보 및 운영상 이를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부모들은 전인적인 교육에 따른 교육수준과 효과보다는 기능적인 교육자체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인증 항목을 통하여 특별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평가인증상태별로 특별활동 과목수 등에 차이가 없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특별활동을 지방정부가 주로 수납 상한선인 과목수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곳도 상당수이다. 특별활동의 금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중앙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보육사업안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첫째, 특별(특기)활동의 개념을 정립한다. 특별(특기)활동은 외부 전문 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보육료 이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정리한다.

둘째, 특별활동 비용은 현재와 같이 상한선을 두고, 아동 1인당 하루에 1과목 30분이 넘지 않도록 지침을 제시한다. 아동 1인당 평일 하루에 1과목 이상 특별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특별활동은 반드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모의 자발적 요청(동의서 징구)에 의하여야 한다. 강제적인 의무 수강은 제한한다.

넷째,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은 아동에게는 별도의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특별활동을 원하지 않는 아동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다섯째, 특별활동시에는 보육교사가 반드시 함께 참여하여 특별활동 강사의 활동과 아동의 반응을 모니터링하여 외부강사의 활동이 아동발달에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아울러 특별활동과 일과운영이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상당수가 영유아 관련 업체 고용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현재 보육시설 특별활동 강사 위탁 사업체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수없이 많다. 이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우선 시설장의 선택과정을 거쳐서 보육시설에서 실시되고, 또한 아동의 선호도나 보육교사의 평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보육시설에서 합리적 선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활동 강사도 유아교육 전공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채용자격에 전공과 경력 여부를 명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명시한다 하여도 대체로 해당분야 전문가이므로 아동에 대한 이해 정도는 낮다.

영유아 발달특성에 적합하고 일과와 통합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공급 업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파견강사에게 일정한 아동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업체 인증은 첫째 업체의 자산, 운영 요건 등을 평가하여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고, 둘째는 전문가에 의한 프로그램의 영유아 발달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별 프로그램을 인증한다.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게는 소정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보육시설 특별활동 프로그램 인증 업무 기관은 인증을 획득한 업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보육시설에 제공하며 업체 및 강사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재인증시 인증여부에 반영한다. 또한 프로그램 교육비 및 연령별 교육시간을 산출하여 평가하고 표준화한다.

3) 저소득층 특별활동 소외 문제 해소

보육시설 비용이 보편화되어 저소득층의 기본적 보육 욕구는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 특별활동의 보편화는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주며, 소외될 경우 아동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육시설에서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 아동들이 특별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인지능력개발 사업 바우처의 사용을 특별활동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II. 맺는 말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활동의 실태를 아동, 부모, 보육시설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아동 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현실 적합한 특별활동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원자료를 분석하고 시설장과 부모 심층면접과 관계자 집담회 등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특별활동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그 이유는 아동의 일상이 곧 학습이기 때문에 아동에게 특별한 과정이 학습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육아지원기관의 특별교육은 보편화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 특별활동이 아동발달이나 연령 적합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그 근원이 되는 과도한 조기교육열을 부모교육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보육시설에서 오전에도 특별활동을 실시하며, 심지어는 보육과정은 무시하고 특별활동 프로그램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동발달이나 연령 적합성, 영역간 연계와 통합이라는 기본 과정의 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관련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교사나 교구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어떠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이나 강사의 질이 아동발달에 적합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대개가 부모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수강해야 하는데, 영유아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 프로그램이나 교사 없이 시간을 보내는 아동도 있다. 강제로 수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선택 수강시 선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미비 또한 아동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자녀가 이동 부담없이 한 자리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가 선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자녀에게 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를 만족할만한 교육상품으로 인식한다. 부모의 조기교육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면서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느낌도 갖도록 해 준다.

보육시설 입장에서 특별활동은 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기관 경쟁력 확보와 원아모집 조건이며, 아울러 운영비 보충과 같은 경영 관련 문제 또한 중요한 이유이다. 아동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줌으로써 전인 교육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한다는 시설도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특별활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특별활동을 보편화시키는 부모의 교육열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구조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한 신분 유지와 상승이라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의 가치관으로 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NAEYC에서도 1987년에 제시한 발달에 적합한 실제(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를 1997년 개정하면서 발달 적합성 개념에 연령 적합성과 개인적합성 외에 사회·문화 적합성을 추가하였다. 한 개인을 이해할 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가족, 학교, 직장 등의 미시체계로부터 정치적인 제도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특별활동에 관하여 무조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보다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해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의 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들은 연령단계별로 발달특성이 다르므로 보육·교육과정은 영유아 발달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각 보육·교육과정은 통합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국가가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에 충실한 운영 범위에서 특별활동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방안을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표준보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오전 시간 또는 일정 시간에 통합된 일과 활동과 분리된 특별활동을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교육이나 교재교구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정규 보육과정 이외의 자유놀이활동 시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통합보육과정으로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 제공하고,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예체능 등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교과목명 및 수, 실시시간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 및 프로그램 자체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시행하고, 강사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연수 등으로 영유아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교사의 중재를 통하여 외부인에 의한 특별활동도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연계되고 일과와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제시된 방안들이 보육시설의 특별활동이 표준보육과정을 보완하여 아동, 부모, 교사, 시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결정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민정·이기숙(2009). 일본의 「인정어린이원」에 대한 교원의 인식. 유아교육연구, 29(3), 253-277.
- 공인숙·한미현·김영주(2002). 영유아 보육론. 교육과학사.
- 김법정(2005).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에 대한 어머니 요구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정(2006).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의 차원에서 본 스웨덴 가족정책.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54-358.
- 김영명·서영숙(2006). 보육시설과 유치원 특별활동의 현안과 쟁점: 발달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2), 115-136.
- 김유경·최현·임진(2001). 2001 LG 21세기 선발대 사회·교육분야 - 성공적인 보육정책 육성방안 연구(탐방국가: 스웨덴). 2001년 LG Global Challenger 탐방 보고서.
- 김지은·김정희·김현주·김혜금·김혜연(2006). 보육과정. 창지사
- 문무경 편역(2006). 스웨덴의 육아정책: 유아교육과 보육, 학교교육의 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2007). 영국의 육아정책.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문무경 외(2009).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방안연구.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민하영(2002). 조기교육에 대한 부모 인식.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169-171.
- 박성연(2006). 아동발달. 교문사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특기교육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지연·이숙현·백진아(2005). 어머니 특성에 따른 유아기 자녀의 조기교육.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157-179.
-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서문희·김은기·김명순 외(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행의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울시(2009). 2009년도 서울시보육사업지침.
- 신동주·Engdahl, I.(2006). 스웨덴의 유아교육제도. 유아교육연구, 26(5), 79-92.
- 양옥승·김진영·김현희·김영실(2001). 한국 사립 유치원 영어교육의 실태. 한국아동학회지, 22(4), 299-313.
- 우남희(2007). 유아의 영어교육 경험과 지능, 창의성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453~474.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0), 5-24.
- 우남희·서유현·김명희(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 정책연구과제 2002-16.
- 이기숙·장영희·정미라·홍용희(2002). 유치원에서의 특별활동 실시 및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학회지, 23(4), 153-171.
- 이미화·김은영(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007-09. 서울: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정화·정선아(2004). 사립 유치원 원장이 바라보는 특별활동 운영의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8(4), 69-87.
- 이정화·정선아·이명조(2003).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실태와 문제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0(2), 85-118.
- 이종희(2007). 유아교육의 실태. 2002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 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155-158.
- 이현섭·조옥희·정정숙·박현숙·석은조(2007). 보육학개론. 서울: 학지사.
- 정대련(2007). 보육시설 특별활동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육아정책개발센터 육아정책 세미나 자료집 52-71.
- 정정옥·김광자(2009). 보육학개론. 서울: 교육아카데미.
- 조성연·김선영·Donn, G. (2006). 영국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학제. 유아교육연구, 26(4), 51-73.

- 조성연·이정희·김은기·제경숙·황혜정·나유미 외(2006). 영유아보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현주(2007). 사립유치원 특별활동의 실태 및 교사의 인식과 요구에 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혜선(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 역할. 한국여성학, 20(1), 123-161.
- 평가인증사무국(2009).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침서.
- 한유미(2009). 보육바우처 도입의 과제: 미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3(1), 33-56.
-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울: 학지사.
- 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순옥·허명순(2007). 유아교육기관의 특별활동에 대한 사회계층별 부모 인식.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 215-236.
- 教育研究開發センター(2005). 第三回 幼児の生活アンケート.
- 森上史朗(2005). わが国における保育制度の展望—「幼稚園と保育所の関係」を中心に—. 保育學研究, 43(1), 92-103.
- 榊原博美(2006). 戦後の幼児教育政策と認定子ども園の問題点. ??岡崎女子短大, 89-93.
- 大阪保育研究所(2006). 幼保一元化と認定こども園. 京都: かもがわ出版.
- 厚生労働省(2009). 政策レポート—待機児童対策について.
- 日本 保育所 保育指針.
- Alvestad, M. & Samuelsson, I. P.(1999). A comparison of the national preschool curricula in Norway and Sweden. *Early Childhood Research and Practice*, 1(2).
- Berk, L. E.(2007).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 Bredenkamp, S., & Copple, C.(Eds.)(1997).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 Early Childhood Program*(rev. ed.). Washington, DC: NAEYC.
- Bredenkamp, S., & Rosegrant, T.(Eds.)(1995). *Reaching potentials: Transforming early childhood curriculum and assesment*, Vol. 2. Washington, DC:

NAEYC.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Greenwich, CT: JAI Press.
- Bruer, J. T.(1999). *The myth of first three years*. New York: Free Press.
- Burts, D. C. et al(1992). Observed activities and stress behaviors in developmentally appropriate and inappropriate kindergarten classroom.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297-318.
- Han, W. J. & Waldfogel, J. (2003). Parental leave: The impact of recent legislation on parents' leave taking. *Demography*, 40(1), 191-200.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s. *Development psychology*, 34, 687-697.
- Hart. C. H., Newell, L. D., & Olsen, S. F.(2003). Parenting skills and social/communicative competence in childhood. In J. O. Green & B. R. Burleson(Eds.), *Handbook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ve skill*. NJ: Erlbaum.
- Hirsh-Pasek, K., & Golinkoff, R. M.(2003). *Einstein never used flash card*. New York: Rodale.
- Huttenlocher, P. R.(2002). *Neural plasticity: The effects of environ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cerebral cortex*.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ammerman, S. B.(2000).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An overview of developments in the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33(1).
- Marcon(1999). Differential impact of preschool models on development and early learning of inner-city children: A three-cohort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58-375.

- Nacka Kommun(2004b). The right to choose childcare. [Brochure]. Nacka, Sweden.
- NAEYC(2009).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in Early Childhood Programs Serving Children from Birth through Age 8. Position Statement of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Retrieve from <http://www.naeyc.org>
- OECD(1999). OECD country note: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Sweden. Paris: OECD.
- Shonkoff, J., & Phillips, D.(Eds.)(2001). Neurons to neighborhoods: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Skolverket(2000). Childcare in Sweden. Stockholm, 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Skolverket(2004a). Pre-school in transition: National evaluation of the Swedish pre-school. Stockholm, Sweden: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 SOEID(1999). A Curriculum Framework for Children 3 to 5, Scottish CCC.
- Stephen, C., Dunlop, A., & Trevarthe, C.(2003). Meeting the Needs of Children from Birth to Three: Research Evidence and Implications for Out-of-Home Provision. *Insight* 6.
- Stipek, D. J., Feiler, R., Daniels, D., & Milburn, S.(1995). Effects of different instructional approaches on young children's achievement and motivation. *Child Development*, 66, 209-223.
- U.S. department of Labor(2008).
- <http://karatsu-shakyo.or.jp/organ/nursery/index.html>
- <http://lifeplan.rokin.net/nfp/life/kyoiku/okeiko.html>
- <http://sirsis.skolverket.se>
- <http://www.acf.hhs.gov/programs/ohs>
- http://www.city.fujioka.gunma.jp/f_kids/k_hoikuen.htm
- <http://www.grassmarketnursery.co.uk>
- http://www.nccic.org/poptopics.ece_structure.html

<http://www.skolverket.se>

<http://www.st-marian.co.jp>

<http://www.surestart.gov.uk>

<http://www.theclaytonfoundation.org>

부 록

1. 부록 표
2. 심층면접조사 결과
3. 심층면접조사지 3종

부록 1. 부록 표

〈부표 V-1-1〉 국공립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	-	7.5	22.4	19.6	24.5	17.4
음악	-	12.5	10.0	24.1	21.7	34.7	22.2
체육	-	-	17.5	44.8	37.0	37.5	32.1
과학	-	-	2.5	20.7	17.4	14.3	13.1
수학	-	-	5.0	6.9	6.5	10.2	6.6
한글(국어)	-	-	5.0	3.4	8.7	10.2	6.1
컴퓨터	-	-	-	-	-	2.0	0.5
교구이용 1종	-	-	5.0	20.3	17.0	6.3	11.7
프로그램 2종	-	-	2.5	-	-	2.1	0.9
한자	-	-	-	-	4.3	8.2	2.8
영어	-	11.8	20.0	74.6	58.7	67.3	53.3
기타 외국어	-	-	-	-	-	2.1	0.5
기타	-	-	-	1.7	2.2	4.1	1.9
(수)	(3)	(17)	(40)	(59)	(47)	(48)	(214)

〈부표 V-1-2〉 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	-	16.7	21.9	32.3	22.7	22.4
음악 1종	-	-	12.5	15.2	21.9	18.2	16.1
2종	-	-	-	-	6.3	-	1.7
체육	-	-	20.8	37.5	50.0	18.2	31.3
과학	-	-	.0	15.2	25.8	18.2	14.5
수학	-	-	.0	12.1	16.1	13.6	10.3
한글(국어)	-	-	8.3	18.8	25.8	13.6	16.4
컴퓨터	-	-	-	-	-	4.5	0.9
교구이용 1종	66.7	-	20.8	18.8	20.0	18.2	20.0
프로그램 2종	-	-	-	-	-	4.5	0.9
한자	-	-	-	3.0	9.7	4.5	4.3
영어	-	-	20.8	42.4	63.3	31.8	38.8
(수)	(3)	(4)	(24)	(33)	(31)	(22)	(117)

〈부표 V-1-3〉 기타법인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	-	12.5	14.3	55.6	44.4	25.5
음악	-	-	12.5	4.8	10.0	33.3	11.5
체육	-	-	12.5	20.0	44.4	22.2	22.0
과학	-	-	12.5	4.8	33.3	11.1	11.8
한글(국어)	-	-	-	10.0	11.1	-	6.0
교구이용프로그램	-	-	-	5.0	30.0	-	7.8
한자	-	-	-	4.8	22.2	-	5.9
영어	-	-	11.1	35.0	88.9	11.1	33.3
(수)	-	(4)	(8)	(20)	(10)	(9)	(51)

〈부표 V-1-4〉 민간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	8.5	22.0	26.6	24.5	33.8	23.3
음악 1종	-	-	12.5	9.6	17.5	21.9	13.8
2종	-	-	-	-	5.0	-	1.2
체육 1종	-	15.2	23.5	28.3	28.2	22.9	24.0
2종	-	-	0.5	-	.6	0.8	0.4
과학	-	1.9	5.5	8.5	11.7	10.8	7.7
수학 1종	-	0.9	4.0	4.3	18.4	19.2	9.0
2종	-	-	-	-	1.2	-	0.2
한글(국어)	-	0.9	9.0	10.2	18.5	19.1	11.6
컴퓨터	-	-	-	-	.6	-	0.1
교구이용프로그램 1종	-	11.3	21.9	25.7	20.2	21.5	20.6
2종	-	-	0.5	1.1	1.8	3.1	1.2
3종	-	-	0.5	-	0.6	0.8	0.4
4종	-	-	-	-	0.6	-	0.1
한자	-	-	0.5	2.7	3.7	6.9	2.6
영어	-	16.0	42.7	43.3	54.0	58.5	43.4
기타 외국어	-	-	0.5	2.7	3.1	1.5	1.6
기타 1종	-	1.0	3.5	4.8	3.1	10.7	4.5
2종	-	-	-	0.5	0.6	-	0.2
(수)	(15)	(106)	(201)	(187)	(163)	(130)	(802)

〈부표 V-1-5〉 가정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4.2	7.1	15.6	8.3	-	100.0	10.2
음악	-	14.0	20.0	18.2	-	100.0	14.2
체육	4.2	9.5	31.1	33.3	33.3	100.0	19.7
과학	-	2.3	2.2	-	-	-	1.6
수학	-	2.3	2.3	-	-	-	1.6
한글(국어)	-	-	9.1	16.7	-	-	4.7
교구이용	4.2	7.1	17.8	16.7	-	-	11.0
프로그램	-	-	2.2	-	-	-	0.8
	-	-	2.2	-	-	-	0.8
한자	-	-	2.2	8.3	-	-	1.6
영어	-	16.7	35.6	27.3	33.3	-	21.4
기타	-	-	2.2	-	-	-	0.8
(수)	(24)	(43)	(44)	(12)	(3)	(1)	(127)

〈부표 V-1-6〉 직장보육시설 연령별 특별활동 이용 과목 및 수

단위: %(명)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전체
미술	-	-	40.0	16.7	25.0	50.0	25.9
음악	-	-	20.0	-	50.0	50.0	18.5
체육	-	-	50.0	16.7	75.0	100.0	40.7
과학	-	-	-	-	-	50.0	3.7
수학	-	-	20.0	-	-	50.0	11.1
한글(국어)	-	-	18.2	-	-	50.0	10.7
교구이용프로그램	-	-	18.2	-	25.0	50.0	14.3
영어	-	-	40.0	16.7	75.0	100.0	37.0
기타	-	-	2.2	-	-	-	0.8
(수)	-	(5)	(10)	(6)	(4)	(2)	(27)

부록 2. 심층면접조사 결과

1. 시설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 원장의 운영 철학

-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사실 지금은 부모님들이 보육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프로그램을 많이 차별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거는 어린이집은 이제 보육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는 거나 노는 거 많이 신경쓰고 있어요. (사례 1)
- 저희는 ‘교사가 행복해야지 아동이 행복하다.’라는 지론이 지배적이예요. 세시 반에 정규반 프로그램이 끝나면 수요일날 해피데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한 분씩 가요. 그리고 선생님들 연가를 주고요. 연차별로. 선생님끼리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차 선생님은 연 몇 회, 3년차 선생님은 연 몇 회. 저희 원에 오는 경력으로. 교사가 여유로워야 아이들이 행복해요. (사례 2)
-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도 서울 아이들 못지않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아이들이 별로 기회가 없잖아요. 산과 들 뿐이라서. 도시에 서는 산과 들이 특별하지만 여기 아이들은 문화적인 것이 특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은 자연하고 같이 하는 생태활동 위주의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례 7)
- 지역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을 찾았어요. 어린 아이들이 밭 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활동은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역 아이들에게 그래도 여러 가지 체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도서관 가거나 악기를 하거나 지역에 있는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사례 9)

나.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

1) 기관입장의 장단점

- 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타필요경비로 해서 다 그대로 받고 다 그대로 털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성이 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원 운영에 좀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례 1)
- 어려운 점이라면 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유난히 인원이 적다 이러면 강사분 조차 안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이 또 작으면 작을수록 안할 수는 없고 비교가 되니까. 어머님들이 특기는 원하는데 작으니까 두세명 가지고 특기를 하면 강사비도 안나오고, 그렇다고 안하면 다른 원은 하나까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정원이 적으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가 피아노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례 1)
- 사실대로 말하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그냥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저는 한 가지를 하면 좀 오래해요. 한 선생님하고도 오래해요. 레고닥터도 오래했고, 오래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해진 프로그램은 쭉욱 가는 게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예요. 영어라 그러면 저희가 한솔영어를 하고 있는데 쪽 해요. 코앤코 뮤직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은 음악이라는 것을 원에서 선생님들이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좋더라구요 아이들한테. (사례 2)
- 외부기관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원에서 수업하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로 가거나 왔다갔다 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 같거고 아이들도 힘들거고. 그런데 원 내에서 하게 되면 비용도 사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 이동거리가 없기 때문에 좋지요. (사례 7)
- 객관적으로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유아과학을 한번 수업을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 너무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유아과학을 공부를 해서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수업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정말 올바른 과학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사례 6)

2) 보육시설에서 특기활동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아이들이 지금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다양한 교육이라는 것은 보육교사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교사들을 이렇게 보면 또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육교사들한테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미술 잘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보면 전문적인 교사한테 아이들이 지도를 받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이 아이들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특히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특성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례 1)
-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전에 대한 장점이 있고요. 동시에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전문성에서 외부에서 하는 거나 저희가 하는 거나 외부에 대해서 나쁘다 할 수 없고 전문성은 다 마찬가지로 인 것 같고요. 전문성은 제가 볼 때 다 마찬가지로인 것 같구요. 좋은 점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유아기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특기를 할 때 그것은 당연히 학원을 가고 하지만, 유아기 때는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사례 1)
- 외부기관에서 선생님이 오면 아이들이 많은 선생님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색다른 감정을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은 것 같구요. 단점은 특기활동에 과부하가 걸리면 선생님들이 수업준비를 할게 별로 없어진다는 단점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 수업이 자꾸 어린이집에서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게 시간적인 투자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 2)
- 특기활동비가 특기활동비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보육료만 받아가지고는 특히 임대료랑 교사 급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특별활동비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특별활동비라기 보다도 기본보육비라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명칭을. 기본보육료 더하기 국가에서 요만큼. 국가에서는 나라 전체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해줄 수 없지만 현실상 기본보육비라는 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특별활동비가 아니라고. (사례 2)

-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에게 특별활동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왜 다 같이 해야 되는걸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7)
- 쉽게 말하면 도서관 가면 일단 걸어가잖아요. 산책을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많이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제가 가끔 태워주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산책하고 같이 해요. 가면서 꽃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외부에서 하는 것도 아이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례 7)
- 저는 특기 수업은 그 대신에 전문적인 어떤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만약 영어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발음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선생님들이 다른 수업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수준도 있고.. 만약에 체육수업을 한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은 그 체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그냥 신체표현, 대근육활동.. 한마디로 간단한 것 밖에 실제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시면 뭔가 좀 깊이있게.. 만약 과학 수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과학 수업은 정말 간단하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는 수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심도있는 수업은 우리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근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재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영어도 만약 선생님들이 해주고 싶지만.. 선생님들이 수업을 받지 않으면.. 영어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아과학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자꾸 방통.. 편입을 하라고 하거든요.. 거의 2년 3년 수업을 한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방통을 많이 가라고 합니다. (사례 12)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장점이 없는 것은 없다. 오물닥 조물닥 하면 소근육, 느낌, 촉감, 애가 어떤 변화 능력이라든지.. 이런 조작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고.. 가베도 뭐 이렇게 진행하다보면 또 무슨 미술도 마찬가지로,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엄마들이 몬테소리니 뭐니 이런 것도.. 영어도.. 그렇지만 그것을 좋다고 다 시키기로 말하면 안 시켜야 될 게 없잖아요. (사례 14)

- 오전에는 표준보육과정에 따라서 기본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도 보니까는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전부 레슨을 시키더라구요. 개인차가 존중되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좀 더 밀접해 지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을 5종과목이라고 본다면, 오후는 선택과목이라고 보는거죠. (사례 6)
- 보육교사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가지고 아니면 교과서 중심에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지고 운영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굳이 다른 특별활동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애할 시간적인 여유와 보상.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어있어야 한다. (사례 1)

3) 특별활동 실시시 아이들 반응

- 특기에서는 싫증을 많이 안 느끼더라구요. 아무래도 미술도 다양한 재료를 쓰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니까. 미술을 하다보면 오히려 안하던 아이들이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더 잘 제공하려고 하지만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고 반응은 다 좋아요. 또 부모님이 아이들의 반응에 따라서 선택을 해요. (사례 1)
- 원은 거의 여자선생님들이 거의 다 하니깐. 체육선생님은 정말로 인기가 너무 너무 좋죠. 남자가 오니깐.. 우리 아이들도 남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참 좋아하더라구요. 그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활달하게, 활발하게 뭐 진행하고.. 이러니깐 애들이 좀 동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사례 12)
- 아이들의 반응은 본능적이라 재미가 없을 경우 수강을 안 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수강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사례 6)
- 좋아하죠. 특히 오물락 조물락을 좋아하더라구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만지고 자기가 모양 만드니깐 좋아하고. (사례 13)

4) 특별활동에 대한 아동 입장의 장단점

- 가베나 이런 부분은 원래 유치원 이런 데서 유명한 것이고, 영어 같은 경우는 다 문화 시대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언어적인 발달에

도 플러스 되는 것 같고. (사례 1)

- 저희가 영어가 의무이긴 하지만 좋아해요. 색다른 선생님 오셔서 아이들이 매번 같은 선생님 있는 것 보다는 오늘은 무슨 선생님과 무슨 선생님이 온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체육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매일 여자 선생님이 보다가 남자 선생님이 보면은, 또 체육도 하지만 레크레이션도 하거든요. 아이들과 되게 친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등에 타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례 1)
- 아동의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새로운 선생님들에 대한 반응도 있고요. 어차피 교사가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잘 해주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 아동이 행복하다는 것은 교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사례 2)
-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늘 선생님하고 많이 다른 선생님하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 그리고 선생님들도 하루 좀 완전 쉬는건 아니지만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영어선생님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본인들도 그걸 보면서 교사한테 제가 가끔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하나만 가지고 올인해서 준비하니까 그렇고 선생님은 모든 걸 다 준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예요. (사례 7)
- 요리는 오감각을 다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발레는 아이들 성장에 좋고, 또, 아이클레이도 창의적 표현에도 좋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보람있어 해요. 결과물이 나와 좋아요. 단점이라면 아이의 발달에 맞지 않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부모가 원하는 강좌에 넣어서, 아이가 흥미가 없어가지고 안하고 싶어하는 것.....(사례 6)

5)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의 입장

- 어느 어린이집은 특기 선생님이 좀 많고 어떤 어린이집은 좀 적을 수 있잖아요. 형평에 따라서. 근데 선생님들의 반응은 많이 있을수록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례 1)
- 오히려 수업 중에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른 분이 오셔서 수업을 하시거나 같이 도와주시면 더 도움이 크겠지요. 단점이라면 3시쯤에 수업을 끝내고 더 이상

수업을 안하고 싶은데, 한 시간을 더 한다던지. 아니면 아이들이 늦게 가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던지. 이렇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근무시간의 연장선이라고 보았을때 교사들에겐 단점이죠. (사례 6)

- 선생님들이 영어강사에 대한 평가 대부분은 다 만족스럽고 좋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도 성실하게 뭐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자료를 적게 준비를 해온다든지 그런 거 없이 뭐 잘 준비해서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대부분 바라는 사항은 별로 없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이용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강사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례 2)

6)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입장

- 부모님들이 이제 특기를 선택할 때는 외부강사가 오느냐 여기 있는 강사가 가르치느냐 이런 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거의 다가 외부강사가 오구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이런 이런 수업을.. 선생님이 하는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례 1)
-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아이들이 좀 오후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간다던지 미술을 간다던지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을 차량을 운영하고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한다든지 이러면 안전문제에서 부모님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 안전, 네 좋구요. 금액면에서도 학원을 보내는 것이 여기서 단체로 하는 게 훨씬 금액면에서도 저렴한 금액으로 특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 4)
- 저희 부모님들은 별 생각 안하실 것 같아요. 막 시대에 변화에 부응해서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 정도의 비용을 수반해야 하고.. 그리고 저도 어머니들한테 설명을 할 때 특별활동 비용이 특별활동 비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사례 2)
- 우리 엄마들이 외부의 강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세요. 외부의 강사가 와야 그게 정말 특기수업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우리 교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어머님들은 선생님들이 수업한다면 신뢰성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머님은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

오는지도 물어보세요. 저희들은 원어민은 올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안 그러면 어머님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받아야 하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는 저희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어민이 와가지고 크게.. 제 생각에 원어민이 온다고 해서 크게 효과를 본다거나 그런걸 아직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례 12)

-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유독 영어가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외국인이 3명 매일 와서 만2세도 영어가 가능하거든요. 부모님들의 특성상 고학력자들이 많은데 설문조사시 영어교육 안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겠다는 답변도 나왔어요. (사례 6)

다. 특별활동 관련 정책요구

- 어린이집마다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자율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면 완전히 사교육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거 걱정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부모님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해진 금액을 정하면 오히려 그 금액이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정해진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원장님들이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는냐가 중요하고 그것만큼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례 1)
- 보육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외로, 해마다 자치구별로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떻게 보면 로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번에도 저같은 경우는 보육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러면 매번 보육정책위원회를 할 것도 없고,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육료가 나오면 그 이내에서 특기활동비를 포함하면 된다. (사례 2)
- 저의 입장은 돈은 한정이 없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다보면 그러니깐 그게 그렇지 않은 원장님들도 많으세요. 마인드가 정확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제가 더듬어 보면 특기수업 쪽으로 해가지고 영리를 너무 많이, 이윤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한을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12)

- 필요경비 등으로 특기활동비용을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표준교육비용에 맞춰서 제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6)
- 지금 표준보육과정은 아니라 평가인증에서도 초창기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두 개 하되,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면 더 이렇게 엄선적으로 이렇게 더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굳이 안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걸 해주는데, 그러니깐 지금 2개나 3개 이렇게 정해주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상한제를 정해서 가능하면 표준보육과정이나 주제에 맞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특별활동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과학이나 영어나 그런 걸 해주면 그러면 비용을 받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신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례 9)
- 이제 그 특별활동비를 그 상한을 주지 말고 그냥 냅뒀야 해. 원 경영도 도움이 되고, 부모 요구도 있고. 어차피 그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안한다고 안하고 가나. 어차피 사교육 1000만원 하고 간다고. 학원 가면 6~7만원 줘야해. 근데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개들이 이동할 시간도 줄이고 또 안전하게 보고 또 비용도 싸고. 근다고 아무나 무작위로 쓰는 게 아니고. 전문인들을 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결코 부모도 시설도 사교육 경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어린이집에서 안한다고 해서 규제되는 게 아니라고. 어차피 학원가서 한다고 다. 이동하다보면 사고날 수 있고. 그리고 태워다주고 태워주고 그런 것도 서로 다 불편하고 그렇지. 대개 방과후가 하는 애들이 종일반 애들이 하거든. (사례 13)

2. 부모 심층면접조사 결과

가. 자녀 양육 철학

- 교육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유치원 보낼때도 막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러 엄마들도 있고 만나보고 여기저기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교육문제가 많죠. (사례 1)

- 교육면에서는 공부에 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저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엄마중의 하나거든요. (사례 4)
- 인성교육. 제가 요즘에 애들 가르쳐 보면은 똑똑해도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저도 인성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자고는 하는데 그게 잘 되지는 않죠. (사례 5)
- 교육적인 부분이 신경 쓰여요. (사례 7)

나.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1)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

- 교육쪽을 고려했고, 일단은 제가 직장을 다녀야 돼서요. 그래서 4살부터 보냈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매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보육만 하는 그런 거가 있고 그 외 특별활동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하는 데가 있거든요. 특별활동 하는 데가 좋지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다른 거 시켜야 되잖아요. (사례 1)
- 우선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집에서 뭐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애가 크니까 엄마가 놀아주는 것에 한계가 느껴지더라구요. 놀이방 가면 친구들 있고 엄마가 아이를 가르칠 때 힘든 부분들을 선생님이니까 더 잘 하시고. 훨씬 다니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저희 집 아이는 그곳에 보내거든요. 사회성 발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3)
- 맨 처음에 우리 아이가 4살에 갔는데요. 4살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뭐 홈스쿨링처럼 막 공연 보러 다니고 체험학습해도 아이가 집에 있는 자체를 너무 지루해하더라구요. 텔레비전시청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친구들과 더 많이 놀 수 있도록. 더 많이 접하도록... (사례 4)
- 그냥 수더분하신 원장님 성격이죠. 원장님에 따라서 선생님들도 다 수더분하시니까. 시설이 좋고 아무리 빵빵하고 하여도 선생님들이 친절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또 챙기고 하다보면서 아이들한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애들은 아이들 나름

대로 소심하니깐 상처받고 어린이집가기 싫다고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어요. 선생님이 뭐 어째서 어땀다.. 그런 건 없었고. (사례 5)

- 친구들이 없어요. 애들이 거의 두 돌만 지나면 다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면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게 되었고, 보내니깐 또 성격은 활발한 거 같아요. 집에 데리고 있어 봤는데, 너무 성격이 까칠했거든요. 가니깐 또 괜찮더라구요. (사례 7)
- 성격도 있고, 재가 많이 내성적이어서 활발해지는 게 좋고, 대인관계 같은 거..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못 데리고 다니는 곳을 놀이방에선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검사검사. 아이의 사회성발달도 있고, 먹는 것도 단체로 먹으면 편식같은 것도 고쳐지구 비용은 안 들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깝고. 언제든지 다녀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하셔요. 선생님들이 또래 애들을 키우셔서 애들한테도 정을 많이 주시고 편하게도 하고 잘하셔요. 학습적으로도 그렇고.. (사례 8)
- 집에서는 혼자 있어야 되고 같이 놀아 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가 부족하니까 친구도 사귀고 하라고.. (사례 9)

2) 현재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

- 영어유치원도 일단 알아는 봤거든요. 일단 영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하고 대화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영어유치원은 보내지 못했구요. 그 외 어린이집을 알아봤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일반어린이집은 영어두 안하고 수학도 안하는 곳이 있기도 있더라구요. 저는 일반 특별활동 같은거 , 특활 같은 거를 돈을 더 주고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많이 절감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길 선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어, 그런 수학, 체육 같은 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례 1)
- 영어교육을 많이 하고, 놀이식 영어교육, 그 다음에 특기교육을 많이 해요. 난타 라던가, 벨리댄스 라던가, 그니깐 애들이 놀이 위주로 되겠네요. 딱딱한 수업이 아니라 재밌게.. 재밌는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학습적인 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다음에 놀이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사례 2)

- 이사 오고 나서 우리 동네 애들은 지나 다니다보니 7살 아이들이 구구단 외우는 소리라든가, 한문 읽는 소리가 제 귀에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할 때부터 갓난쟁이 때부터 나는 그냥 여기 죽 살아서 어린이집 보내면, 저 어린이 집에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을 하다가 보냈는데 원장선생님 뭐 그런 교육이 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선생님 보고 계속 보내게 된 거죠. 선생님이랑도 맞고, 좀 분위기 자체가 가족적인 분위기였어요. (사례 4)
- 첫 번째로 선생님을 먼저 봐요. 너무 또 선생님들이 공부만 막 얹혀놓고 시키는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안가려고 해요. 이번에 간 데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하더라구요. 어린이집에서. 매일 하다보니깐, 또 자기 자신이 재미있다고 하니깐. 전에 다녔던 어린이집 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여기는 매일 해요. 되게 재미있대요. 애가 6살이다 보니깐. 체계가 들어가다보니깐.. (사례 7)
- 여기 어린이집이 좋기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차가 이 어린이집 한 대밖에 안 오거든요. (사례 9)
- 첫째는 평판이 일단 좋고. 선생님들도 괜찮고, 교육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큰 애는 계속 보내고 있고. 작은 애는 근처에 집 가깝고 하니깐. 작은애들은 집 가까운 곳에. (사례 10)
-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어린이집 보내야겠다하고 알아보던 중에 한번 가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보내게 됐고, 다니던 도중에 다른 어린이집 바꾸는 것이 좀 힘들더라구요. (사례 12)

3) 현재 어린이집의 만족도

- 특활 부분 그런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했고 대개 프로그램들도 알차었어요. 그렇다고 잠을 재우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 거에 대해 좀 만족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여기 등록을 하게 됐어요. (사례 1)
- 원장선생님 교육철학은 되게 만족해요.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니깐 시설투자라던가, 교육적인 투자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니깐 뭐 좋은 교육이 있다거나 그럼 찾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열정에 저는 되게..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에요. (사례 2)

- 원을 처음에 선택을 할 때는 원장선생님과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데도 가보고 했는데, 그 분위기라든지 또 느낌이 좋았어요. 상담할 때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았고 분위기도 좋았던 것 같고. 또 아이 다니는데 선생님이 아이를 잘 챙겨주시고 아무 의심 없이 아이 전적으로 맡기다시피 키우고 있거든요. (사례 3)
- 진행되는 방법에 대해선 만족하는데, 어린이집 하루 일과 중에서 만족하지 않는 부분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머니까. 한 40분을 차를 타고 가거든요. 올 때도. 그러니까 애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럼 원장님의 교육철학 같은 것도 만족해요. (사례 9)
- 큰애 같은 경우는 취학 연령이 다 되가니깐. 오후 같은 때는 뭐 한글이나 수 이런 것을 해주시니깐. 어린이집에서. 한자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깐,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례 10)

다. 보육과정과 특기활동

1) 특기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 좋은 점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 면에서 상당히 좋구요. 한 원에서 모든 걸 다 맡기고 할 수 있자나요. 선생님들도 다 있고 하니깐. 그런 거 믿음이란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영어를 훨씬 더 원어민 선생님들 하고 이야기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깐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한데.. (사례 1)
- 특기활동은 애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솔직히 할 수가 없어요. 그니깐 찾아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문화센터라던가 다른 데를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원에서 해주니깐 그런 거는 애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하니깐 부정적인 거 상호작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애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선생님들 시간이 있잖아요.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딱딱 끝내시니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 2)
- 저는 교육적인 면을, 취학 전 아이니깐 무조건 교육적인 것. 태권도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교육적인 것. 그렇다고 영어 같은 것은 엄마가 접해주시기가 힘들고, 다

른 사설을 보내기에는 너무 비싸고, 또 그 외에 인형극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면은 그다지 없는 것 같은데. 요금자체가 너무 비싸든가,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켰을 경우나, 아니면 선택사항. 우리는 선택사항인데,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정해놓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일단 선택권을 주고, 저도 우리아이한테 선택권.. 의사를 물어 보고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례 4)

- 경험이 폭 넓어지지 않나? 뭐 이것저것 조금씩 발만 들여놨다가 빼는 거긴 하지만 조금씩 해보는 게.. 아무래도 아무것도 안하는 애들 보다는 경험을 조금씩 해본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반면 애들이 너무 많은걸 하다 보니까 힘들어해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고, 어떤 때는 뭐가 뭔지를 헛갈려 해요. 맥락을 가끔 못 찾더라구요. 근데 그건 뭐. 어린애들이니까. (사례 5)
- 아이가 모르는 걸 많이 모르는 걸 접하게 되는 거구요. 그게 그니깐.. 우리가 자라날 때 교육방식하고는 많이 다르자나요. 우리는 주로 학교에서 해주는 거, 지금은 사회가 아무래도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사교육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기부터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가 정말 정서에 맞는지를... 머라고 해야 되죠? 일찍 배우게 되면 아이한테 맞는 지를 발견을 빨리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종류를 여러 가지 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적성에 대해서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일찍 배울 수 있다면 전 찬성. 또 배움은 정말 기회가 되고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더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니깐 너무 극성적인 엄마는 한글 교육을 제하고 이제 영어 막 이렇게 하는 분도 봤어요. 저는 한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이렇게 연계 수업이 될 정도의 그런 언어 특기활동은 대 찬성이예요. 아이만 따라주고 즐거워한다면 이거 외에도 미술도 좋구요. 창의력을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특기활동은 다 좋아요. (사례 8)
- 아무래도 뭐 운동을 하든 뭘하든 자신감도 생길거고, 놀이방에서 하면 엄마들이 바쁘고.. 이럴 때는 엄마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에서 많이 못 봐주고 하니까 놀이방 같은데서 해주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좋죠. 그걸 너무 바라는데 요즘엔 정책이 그렇다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속상해 해요. (사례 9)
- 제가 못해주니깐. 원에서라도 그렇게 하니깐, 일단은 동등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

하고. 부정적인 면은 애한테 너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영어나 뭐 그런 거는 너무 일찍 하면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또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사례 10)

-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하는 거지요. 딸애가 욕심이 많아서 안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다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례 12)

2) 보육시설 내에서 특기활동 시키는 입장 및 이유

- 체육을 체육관을 가서 아이들이 기구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전문적으로 그런 것두 좋구요, 영어 같은 것도 선생님이 원어던 선생님도 오시고 일반 놀이선생님도 오시니까. 그런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아쉬운 점은 아직은 5살이니깐 모른다고는 이야기 하시는데, 선생님들 상담을 해보니깐 그러는데. 아무래도 성과가 눈에 바로바로 안보이니깐.. (사례 1)
- 보육시설 내에서 특기활동을 시키는 이유는 다양한 인성 때문에 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안돼요. 특기비가 4만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누구나 투자할 수 있어요. 엄마들은요. 그걸 부담스러워 하지 않거든요 그거 원에서 해주면 고마운 거죠. (사례 2)
- 그것도 경험이죠. 음.. 제가 막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한테 다 해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학원을 보낼 수는 없고 또 지금 한 분야를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칠 나이는 아니고 그냥 경험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험하고 맥락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특별히 뭐 물어보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5살인데 말을 좀 잘하는 편이라서. 다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다 한다고 그래요. 뭐 다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편이에요. (사례 3)
- 제 욕심에 첫 아이니깐 다 하고 저도 하고 싶어요. 영어 학원 끝나고. 영어가고 싶고. 미술하고, 피아노하고 다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쉽게 질러 버리면 나중에 그 20년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럼 우리아이의 미래는 어떡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깐 단계적으로 해야지. (사례 4)

- 몬테소리만 해도 교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희 아이가 지금 6살인데 8개월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5년 동안 해도 남아요. 시간대비 할 것이 너무 없으니까 특기활동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사례 5)
- 저는 좋아요. 저같은 가정을 비롯해서 맞벌이 부부들은 다 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시설에서 해 주는 거. 제가 개별로 하는 것 보다. 그래서 공부방이라는 것도 참 좋더라고요. (사례 8)
- 만족스러운 부분이 이렇게 안에서 지내다가 가끔 실외활동을 한다던지, 과학수업을 올해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라던지.. 다방면에서 요렇게 맛을 보게 해주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요.(사례 9)
- 원에서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깐, 다 따라가는 거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뭐 괜찮게 생각을 하니깐.. 국악도 괜찮고, 태권도 같은 것도 괜찮고... (사례 10)

3)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 부모 만족도

- 제가 참여수업을 하는 거는 원어민 선생님이 아니고, 그런 일반 영어선생님이신데, 요리 위주로 하구. 그런 선생님들 하는 거 봐서는 너무나 잘 훌륭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한명도 막 딴 짓하는 아이들 없고 막 빠져든다고 하나? 애들이 그래두 일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외 수업은 저는 잘 보진 못했거든요 아직. 5세 애라서. 체육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구 아이들을 체육관에 데려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진으로는 봤는데, 애는 애가 집에 오면은 맨날 체육같은 거 하면은 재밌었다고 뭐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영어같은 것도 원어민 선생님들 가끔씩 뭐.. 그런 단어같은거 이야기 하고. 교육내용은 잘 모르지만 효과에 대해 비교적 만족하고 강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일단 원어민 선생님들은 이야기 위주로 해가지고 빠질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고 하시거든요. 노래 율동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냥 애들이 거부감 없이 막 노래도 하고 모 발음 정확하지 않아도 따라 부르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음..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잘은 모르지만 전 좋은 것 같아요. (사례 1)
- 애가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코앤코 뮤직 같은 경우

에는 다양한 악기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아이들이 재밌어 해요. 재밌어하고, 음감도 익히면서 다양한 악기들을 접하니깐, 그것도 되게 유익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게 다 특기교육에 들어가잖아요. 아이들의 흥미가 가장 중요해요 (사례 2)

- 특기활동의 만족도는 중상? 담당 선생님은.. 사실 제가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저희 아이가 그냥 재밌어하고 응.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재미있구나 잘하는구나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비용대비 효과는 그 정도면 괜찮아요. (사례 3)
- 어린이집에 참여수업에 가서 한번 봤는데, 애가 선생님 따라하고 그러니까 '아 우리애가 잘하는구나. 참 예쁘다. 저 정도 하네? 너무 좋다.' 박수 쳐 주는 거지, 교육 만족도 그런 거는 별루 그다지 뭐. 비용대비 효과도 그럭저럭. 70%정도 만족해요 요. (사례 5)
- 기본적으로 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다지 뭐. 그게 큰 도움이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이예요. 저는 그냥 80%로 정도? 나머지 20%는 애들 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특기 끝나면 가져오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걸 보면, 내가 낸 재료비에 원비에, 너무 타당성이 안 맞는 거예요. (사례 7)

4) 보육시설 이외 특기활동에 대한 입장 및 이유

- 영어하고 수학은, 그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깐 하는 거지요. 선생님들 10분밖에 안하시자나요. 그래서 많이 접하고 해야 되는 거니깐 그건 시키게 됐어요. 좋아 하더라구요. (사례 1)
- 튼튼 영어는 해야 하잖아요. 학습지는 그냥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제.. 한솔 교육이라는 그 학습지 체계가 잘 잡혀있어요. 예. 내용도 탄탄하고.. (사례 1)
- 미술같은 경우에는 창의미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말대로 창의미술이거든요. 테크닉미술이 아니라.. 그래서 다양하게 그리고, 만들고 자기 머릿속에 생각했던 거를 직접 그리고 만드는 그런 체험이에요. 그런 거는 유치원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렇게 가르쳐주기에는.. (사례 2)
- 놀이방. 옛날에는 다 지원을 받아서 괜찮았는데, 점점 클수록 지원은 점점 줄잖

아요. 저도 지금 거의 반 이상 줄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학습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안시킬 수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초등학교도 한글 못피구 들어가면 그러니까.. 안시킬 수가 없어요. 놀이방비 부담되고, 학습지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가게에는 부담이 많이 되죠. (사례 8)

5)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특기활동과 이유

- 일단은 저희 아이가 여자 아이이구, 그 다음에 지금 5살이면 아직 어리자나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하게 저는 그냥 공부보다도 발레 같은 거를 전 또 따로 시키는 게 있거든요. 문화센터에 좀 저렴한 그런게 하는 게 있어 그거를 인제 이제부터 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놀 나이니깐 4, 5세까지는 피아노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구 싶구요. (사례 2)
- 영어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지금 시대에 영어가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는 진짜 빠지면 안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딱딱하게 하면 애들이 싫어하잖아요. 학습적인 면이 들어가면 놀이식으로 영어를 즐겁게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오르다..게임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케이넥스 같은 그런 조립하는거.. 남자아이다 보니까 바둑 같은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례 2)
- 논술이요. 논술이나 국어교육 왜냐면, 책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국어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면 수학과 잘해요. 수학과 잘하고, 또 어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되면 글 쓰는 것도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논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과 중요하지만 가장 베이스는 국어교육, 논술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례 5)
- 가베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유아시기 때는 왜 손으로 만지고 막 주무르고 하는 거 그걸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영어나 어려운거 많이 시키는 거 같아요. 한자나 막 이렇게.. 난 하면은 가베나 레고 같은 만드는데 그런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는 수학을 신청했더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폐강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했던 적이 있죠. (사례 7)
- 예능으로 봐요. 미술, 영어, 음악... 그러니깐 손예, 소근육을 발달 시켜줄 수 있는 건 다요. 지점토도 좋구요. 두뇌 발달에 좋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요새는 창의

력을 많이 중요시 하자나요. 그것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예능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8)

- 운동 같은 거. 운동하고 특히, 한글하고 수학 같은거는 했으면 좋겠어요. 쓰기 같은 거. 학습지는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번만 오잖아요. 근데 놀이방에서 하루에 한 시간씩만 해 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엄마들이 한 시간 해주는 것보다 놀이방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면 애들이 집중력도 많이 강해지고 애를 보면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집중력도 강해지고, 아무래도 단체로 하는 거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가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고 뭔가를 했을 때 그 칭찬과 우월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분..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싱크빅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낫더라구요. 그렇게만 잘 한다 그러면은 확실히 집에선 많이 안해도 되죠. 놀이방에서 해준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적게 들테구.. (사례 8)
- 큰애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러 갔을 때, 애기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제가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활동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실, 집 앞이 바로 도로라서 바깥에 나가서 놀지를 못하게 하고, 어린이집에 가면 또 뛰어놀지를 못하게 하고. 많이 뛰어놀만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사례 9)

라. 특기활동 관련 정책 제언

- 맞벌이 부부들이 거의 많잖아요. 영어수업 같은 거를 따로따로 부모가 돈을 내고 다른 걸 시킬 경우에도 비용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 과목을 시킬 경우에는. 그런데 비용적으로도 너무 저렴하고, 한 원에서 한 장소에서 내가 어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아이가 다 믿고 할 수 있자나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 1)
- 일반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 이런 면에서 너무 비싸잖아요. 물론 똑같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원을 더 해줄 수 있으면, 영어 쪽으로 많이 해주면, 특별하게 영어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영어유치원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사례 1)

-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사교육시장에 왜 뛰어들겠어요. 진짜..영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는 필수잖아요.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계화시대에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세계에 나가겠어요? 영어를.. 진짜.. 영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 2)
- 저도 여건이 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아이는 자녀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많으면 키우는 게 사실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면이.. 그 부분을 나라에서 해결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원하는 만큼 아이도 낳을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사례 3)
- 특기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해주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은데, 솔직히 어린이집에서도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못 해주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그냥 특기가 안 들어가고, 특히 정책을 해주고, 해준다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하나라도 더 배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은 미술이라든가, 가베 같은 것. 가베가 예전에는 유행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뒤쳐지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악기 같은 것도... (사례 4)
- 저는 10만원짜리를 시키고 있는데 ‘강남에 누구는 일주일에 두 번씩 누구한테 몇 십만원씩 주고 레슨을 한다더라.’.. 엄마는 똑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돈 있으면 그런 사람들 불러놓고 교사들한테 레슨 받게 해주고 싶어 하는데 저가 10만원주고 시키는 이것조차도 없어서 못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허투루 돈 쓰지 말고 애들 특기적성 하는데 하나라도 더 포괄적으로 시켜주면 엄마들이 힘들지가 않고 조금 더 마음이 놓이죠. (사례 5)
-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나와서 보육교사 따 가지고 다들 들어간 사람들이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요. 둘째는 유치원을 갔고, 애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서 어린이집을 갔는데. 확실히 틀려요.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이 놀이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유아교육과에서는... 그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무조건 한글, 글쓰기 그런 위주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유치원 다닌 애들

은 활발하면서도 공부 할 것 다 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반면에 그런 게 없죠. (사례 7)

- 우선은 오로지 다 교육비용이에요. 어려운 가정들도 정말 열악해서 애가 재주는 있는데 못시키는 것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폭넓게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아니면 가정에서 개별로 배울 수 있게끔 조금 그 비용들을 좀 낮춰주시던가... 제일 큰 부분은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지원... (사례 8)
- 엄마들이 얘기하는걸 보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4~5살 될 때까지도 집에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엄마같은 경우도 올해 후반기에 애를 보냈어요. 그동안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루.. 근데 그런 게 지원이 잘되고 한다면은 지금도 4살, 5살인데도 후반기에 보내는데 보조를 못 받아요. 만약에 오전반 오후반이 있잖아요. 근데 오전반 같은 거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엄마들이 집에서 데리고 있다 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니까.. 그리고 동생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하나냐 둘이냐의 차이가 많아요. 저같은 경우 두 애가 하나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게 많더라구요. (사례 8)
- 비용적인 걸로 해준다면 엄마들이 좋을 거구요. 강사부분을 이렇게 채용을 해주면, 일자리가 창출되서 좋을 거고 그런 걸 같이 해주면 좋겠죠. (사례 9)
- 지원해 주면 좋져 비용을.. 부담을.. 비용을 부담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주 나라에서 강사를 뽑아서 배치를 해서 각 원마다 돌아가면서 교육을 해주던가.. 공무원 수준급의 사람들..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고...(사례 10)
- 아예 학원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없고 학교만 다녔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다 보강을 시켜서 부족한 것은 특별교육에 대한 선생님들을 다 심어놓고 거기서 다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례 12)

부록 3. 면접조사지 3종

KICCE 육아정책개발센터	특별활동 연구 (원장용)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 실시일자	어린이집 이름	면접 소요시간
	()시/도 ()군/구 ()어린이집	
특이사항		

일반적 정보

- 어린이집 관련 현황
 -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 연령별 반 구성 현황
 - 원장님의 연령, 학력, 원장 경력(보육교사 경력 또는 유관 경력도 세부적으로)
 - 채용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반적 특성(인원 및 학력과 전공에 대한 일반적 경향정도)
-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특성
(맞벌이 부부 자녀가 대부분,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들, 공단지역이라 장시간 보육필요 등)
- 어린이집 운영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특화된 특별활동으로의 명성, 최상급 시설 설비로의 명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어린이집 등)
- 어린이집 운영 형태
(학원 겸업, 유치원 겸업,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 등)

특별활동에 관한 정보

-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종류들
 - 그 중에서 원장님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이유
 -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특별활동들을 선택하신 이유 또는 특별활동선택 기준
- 특별활동 운영 형태
 - 시간, 교사(외부강사, 보육교사 등), 특별활동비, 참여아동 수 및 연령
 - 수강 시 부모 선택 인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지
 - 원하는 아동만 할 때,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문제는 없는지
 - 운영 형태에 대한 원장의 만족, 불만족 요인
-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
 - 특별활동 운영으로 원 경영에 가장 도움을 받는 부분
(표준보육과정 운영으로 부족한 아동의 흥미유발, 운영비에 여유가 생김, 원아모집 기여 등등)
 - 특별활동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교육의 질 관리, 여러 명의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것, 적절한 아이টে이 없는 것 등등)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

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원장님의 교육철학과 특별활동 관계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 외부기관에서 할 때와 어린이집에서 할 때의 장·단점

특별활동과 아동

1. 외부 강사나 특별한 교재교구 등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구체적으로 아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2. 표준보육과정과 특별활동
 - 표준보육과정 실시 여부
 - 표준보육과정 실시만으로는 아동발달이 불충분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면이 불충분한가?
 - 표준보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아동발달에 가장 도움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
 - 표준보육과정만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것보다 특별활동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 표준보육과정에 포함시킬만한 특별활동 영역이 있는지
 - 그 특별활동 영역을 표준보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교사는 누가할지
3. 어린이집 일과 시간 중에 특별활동을 하러 원외로 나가는 원아들이 있는지 여부
 - 있다면 왜 원외 특별활동을 선택하는가?
 - 그런 상황에 대해 교사, 당사자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반응
 - 시설장 입장에서 어떤 개선책을 원하는지
4.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특별활동과 교사

1.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의 입장
 - 보육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여부
 -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휴식시간 및 아동 관찰시간 확보,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아동과 상호작용 어려움 등등)
 -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

특별활동과 부모

1.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입장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선호(아동 연령별, 시간, 비용 등등)
 -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과 그 이유

특별활동과 정책

1. 지방자치단체가 '필요경비' 등으로 특별활동비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입장
(상한제는 타당하나 비용 인정을 더 해야 함, 상한제보다는 자율이 타당 등등)
2. 효과적인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

KIOCE 육아정책개발센터	특별활동 연구(교사용)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실시일자	어린이집 이름	면접 소요시간
	()시/도 ()군/구 ()어린이집	
특이사항		

일반적 정보

1. 어린이집 및 교사 경력 관련 현황
 - 어린이집 정원 및 현원, 연령별 반 구성 현황
 - 교사 경력
2. 어린이집에 오는 아동들의 전반적인 특성
(맞벌이 부부 자녀가 대부분, 교육열이 높은 어머니들, 공단지역이라 장시간 보육필요 등)
3. 어린이집에서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
(특화된 특별활동으로의 명성, 최상급 시설 설비의 명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어린이집 등)

특별활동에 관한 정보

1.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활동 종류들
 - 운영되는 특별활동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 그 중에서 선생님이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그 이유
2. 특별활동 운영 형태
 - 시간, 교사(외부강사, 어린이집 교사 등), 특별활동비, 참여아동 수 및 연령
 - 수강 시 부모 선택 인정하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지
 - 원하는 아동만 할 때, 나머지 아동들은 어떻게 일과를 보내는지, 문제는 없는지
 - 운영 형태에 대한 교사의 만족, 불만족 요인

특별활동에 대한 의견

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
 - 선생님의 교육철학과 특별활동 관계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 외부기관에서 할 때와 어린이집에서 할 때의 장단점
2. 특별활동에 대한 교사의 입장
 - 보육교사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여부
 - 보육교사가 특별활동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반응
 -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반응
(휴식시간 및 아동 관찰시간 확보,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아동과 상호작용 어려움 등등)
 -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

특별활동과 아동

1. 외부 강사나 특별한 교재교구 등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구체적으로 아동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2. 표준보육과정과 특별활동
 - 표준보육과정 실시 여부
 - 표준보육과정 실시만으로는 아동발달이 불충분한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면이 불충분한가?
 - 표준보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지만 아동발달에 가장 도움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
 - 표준보육과정만으로 일과를 구성하는 것보다 특별활동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 표준보육과정에 포함시킬만한 특별활동 영역이 있는지
 - 그 특별활동 영역을 표준보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교사는 누가할지
3. 어린이집 일과 시간 중에 특별활동을 하러 원외로 나가는 원아들이 있는지 여부
 - 있다면 왜 원외 특별활동을 선택하는가?
 - 그런 상황에 대해 원장, 당사자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반응
 - 교사 입장에서 어떤 개선책을 원하는지
4. 어린이집 내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아동의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특별활동과 부모

1.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입장
 -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선호(아동 연령별, 시간, 비용 등등)
 -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특별활동 프로그램(구체적으로)과 그 이유

특별활동과 정책

1. 효과적인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내용

 KIOCE 육아정책개발센터	특별활동 연구(부모용)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접 실시 일자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 이름	면접 소요 시간
	()시/도 ()군/구 ()어린이집	
특이 사항		

일반적 정보

1. 가족구성 및 자녀 성별, 연령, 형제자매 현황,
2. 부모 학력 및 취업상태와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근무여건
 -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직종과 직위 및 근무시간, 근무기간 등
 - 맞벌이 여부
 - 가구 소득 수준, 주거 지역의 특성(고급주택, 영구임대 아파트, 공단지역 등)
3.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4.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이유
(돌볼 사람 없어서, 사회성 발달, 특별활동 위해 등)
5. 어린이집 이용시간 이외 양육 형태
 - 누가(부모가 직접 양육, 도우미 이용, 친인척의 도움 등)
 - 아이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 부모가 직접 양육하지 않는 경우 어떤 목적으로 몇 시간이나 양육을 의뢰하나
6. 어린이집 이외의 기관 또는 학습지 등의 이용여부
 - 기관 혹은 학습지 종류
 - 선택 기준 / 이유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1. 지금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
(원장/교사의 교육철학, 비용, 집과의 거리, 시설설비, 주변 평판, 특별활동 등)
2. 어린이집 하루 일과
 - 어린이집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방법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만족하신다면 어떤 점에 가장 만족하십니까?
 - 만약 만족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점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십니까?

3. 현재 어린이집 만족
 - 원장의 교육철학,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육과정(또는 일과 구성), 아이의 적응
 - 만족하신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 불만족하신다면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특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1. 현재 참여하는 특별활동(종류, 시간, 비용)
 - 보육시설에서
 - 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구체적인 장소)
2. 특별활동 선택이유 (특별활동을 선택 시에 가장 염두에 두는 것)
3. 특별활동의 질적인 측면(강사, 교육내용, 비용대비효과)에 대한 만족 정도
 - 보육시설에서
 - 보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3. 특별활동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특별활동과 부모 입장

1.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에 대한 입장
 - 보육시설 내에서 특별활동을 시키는 이유
(저렴한 비용, 이동하지 않아서 안전, 장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음 등등)
 - 경제적 부담정도
2. 보육시설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에 대한 입장
 - 보육시설 외에서 특별활동을 시키는 이유
 - 특별활동 만족도
 - 경제적 부담정도
3.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특별활동은? 그 이유는?
4. 아이에게 부모가 원하는 특별활동을 모두 시키고 있는가? 시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특별활동과 아동 발달

1. 아이의 특별활동에 대한 반응은?
 - 특별활동은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 특별활동 선택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 반영
2.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현재 /미래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아이의 지적 발달, 창의성 발달, 자녀에 대한 영향은 잘 모르겠고 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 등)
 - 특별활동 참여 전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특별활동과 정책적 지원

1. 국가가 아동의 특별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지원의 이유와 내용
 -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
2. 특별활동 전반에 대해 더 보태고 싶은 것

연구보고

**보육시설 특별활동 중심의
보육프로그램 질 관리 방안**

발행일 2009년 11월
발행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보육정책과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전화: 129 팩스: 02)2023-892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번호 11-1351000-000554-01